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서울시 종로구 감철동 43-8 대한방직B/D 3층 902호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5월 2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75 호

윤 5월은 선업쌓는 달

전국 사암서 생전예수재…업장소멸 발원

나의 업장은 몇근이나 될까?

전국 대부분의 사찰이 윤5월을 한 달 앞두고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를 입재했거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로 윤달을 택해 봉행되는 생전예수재는 자신의 업장을 씻고 선업쌓기를 발원하는 재의식. 이 기간동안 각 사찰은 선망부모 영가 천도는 물론 전생 인연으로 맺은 각종 원한과 악연에 묶인 영가를 소멸하는 재를 49일동안 봉행한다. 법회의식, 수계식, 3사순례, 방생법회, 철야정진 등도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다.

특히 금년 생전예수재 기간에는 IMF를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하자는 서원과 어린 영혼 천도법회 등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보공)를 비롯 일부 사찰에서는 경제난극복을 발원하는 예수재를 봉행할 계획이며, 서울 금강사(주지 자우)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태아(낙태)영가 49재 천도법회를 각각 봉행한다. 강화 보문사(주지 원종)는 7월 22일 경제난 극복을 발원하는 철야정진을 갖고 23일 수계법회를, 동하 삼화사(주지 원행)는 적멸보궁을 참배하는 3사순례를 각각 실시한다.

기복불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지만 생전예수재는 참회와 선행을 발원하는 본래의 신행 의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생전예수재가 과거와 현재의 자기를 반조하고 바른 삶을 다짐하는 경건한 의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게 학계의 설명이다.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은 "예수재를 지낸 공덕은 봄에 뿌린 한알의 씨앗이 가을에 천만개의 씨앗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설하고 있다. 또 생전예수재를 지냄으로써 △전생과 내세의 업장소멸 △무병장수 △극락왕생 등 10가지 공덕이 얻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IMF 시대, 전 국민의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봉행되는 올 생전예수재에는 어느해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 6월과 7월 두달은 불자들이 참회와 선행 실천을 발원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진스님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김종근 기자



◇경북 고령 군수외 군의원 후보자 16명이 15일 해인골프장 건설 취소를 서약했다.

6·4선거 후보들 불심잡기 '바쁘다'

사찰방문 잇달아…해인골프장 반대등 공약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심잡기에 바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불교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병렬 서울시장후보는 21일 교계기자회견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서울의 거리축제로 승화시키고 조계사 부근을 불교문화의 거리로 조성키 위해 조계사 불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건립해 위탁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불교계 운영을 확대해 종교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재 부산시장후보는 사찰수행환경권 보호, 범어사 선암사 삼광사 등 전통사찰 및 주요사찰을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해 내·외국인이 사찰문화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유 광주시장후보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북도의원과 고령군수, 고령군의원 후보자 16명은 15일 고령군청 회의실에서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해인골프장 건설이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다.

후보들의 사찰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건 최병렬 두 서울시장후보가 나란히 26일 조계사 초하루법회에 참석, 불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역불교계에서 각 후보들에게 사찰수행환경 및 문화재 보호 등 불교현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내는 등 지방선거라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3·20면>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과 삼층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철원 노동당사'와 '땅굴' 등을 찾아갑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철원 노동당사, 땅굴'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 · 초등학생 2만5천원(도시락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자녀 동반, 가족단위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현대불교신문사 협찬:일양약품 주관:혜초여행사

불보이장 보시



치한 불교 보육원에서 맑은 눈동자의 선재동자들을 만났다. 유치원생(4명)으로부터 대학생(1명)에 이르기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은 46명의 어린 영혼들을 보는 순간 중1·초등학교 6학년인 두 딸이 떠올랐다.

박씨는 그때부터 매달 셋째 일요일 보육원을 방문, 방마다 칫수를 재고 필요한 재료를 직접 봉고차로 싣고 와 작업을 벌였다.

그는 15년간 믿어 온 기독교에서 개종한 지 불과 1년반이 지났지만 불교적인 사고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일이 더없이 행복하다. 어머니 정래희보살(68)의 간절한 기도로 꿈에 강화 보문사 나한님들을 친견, 불교에 연이 닿았다는 박씨는 그 인연을 시작으로 최근 4형제 모두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게 한 원력불사를 성취하기도 했다.

"도움이 된다면 인근에 있는 대부도 '동지소년의 집' 개축불사를 도와 줄 생각이예요. 틈틈이 원생들과 함께 감자 고추 등 채소와 영두 등 과일을 따며 정겨운 시간도 보내고 싶고요."

박씨는 작지만 여유로운 '나눔의 삶'을 음미할 줄 아는 불자다. 〈김재경 기자〉

"아저씨 예쁜 옷장과 이불장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지난 4월19일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작은 숲속에 위치한 불교계 보육원인 송암동산(원장 박금점), 40여명의 원생들이 2층 서쪽 끝방에 모여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동안 낡아서 문이 잘 닫기지도 않던 옷장과 이불장이 붙박이장으로 새롭게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단장되자 원생들이 감사의 표시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한달에 한방씩 붙박이장을 설치하기 시작, 이날 열번째 방을 끝으로 공사를 회향한 주인공은 '목수 아저씨' 박종우씨(43). 서울 사당동에서 홈 인테리어 사무실 '조우 인퍼니처'를 운영하는 박씨는 IMF시대에도 불구, 개당 1백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붙박이장 열개를 사재를 들여 설치해 주었다.

박씨가 송암동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3월, 유니텔불교동회(회장 김희정) 회원의 일원으로서 이곳을 방문한 그는 경치 좋은 숲속에 위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이 1천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16일 경기도 일산 부지에서 거행됐다.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첫삽'

일산 식사동에…1천여 병상 2003년 완공

동국대(총장 송석구) 부속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이 16일 일산시 식사동 병원부지에서 열렸다.

오녹원 이사장을 비롯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 황명수 총동창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공식에서 송석구 총장은 "불교종합병원은 1천여 병상 규모로 생명 존중의 인간화, 최첨단 의료장비화, 한·양방 의학정보 공유화를 지향한다"며 "2003년 완공까지 종단과 2천만 불자들, 동문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녹원 이사장은 고사를 통해 "1천6백년 한국불교의 숙원사업의 첫발을 딛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원만한 회향을 기원했다. 이어 병원건립 시작을 알리는 시폭과 함께 김병조·홍진경의 사회로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오오타니대학, 불교대학, 류코루대학 등 일본 자매대학 축하사절단이 1억원의 기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 '자비의 벽돌 한 장 동참운동'을 펼쳐 2천만원의 병원기금을 조성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6월15일 개회

성원미달로 유회를 거듭하다 '해산론'까지 대두됐던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6월15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종회에서는 각종 선거법을 비롯한 종법제개정안 등 산적한 현안이 다뤄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종회도 성원미달등으로 유회될 경우 종회해산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화사 후임주지 성덕스님 임명

송광사, 현지스님 추천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 후임주지로 성덕스님을 임명했다.

한편 제21교구 송광사는 9일 산중총회를 열고 3일로 주지임기가 마감된 현고스님의 후임에 현지스님(광주 원효사주지)을 선출했다.

"당신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8면
IMF시대 '불교생협'이 뜬다 19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맹란자 지음 -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신국판/304쪽/정가 7,000원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닮은 꼴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사 설

불교병원건립 '힘모으자'

불교의 목적은 극락정토의 실현이다. 부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생에 복을 쌓아 내생에 극락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는 '모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곳'이라고 하였다.

극락세계와는 반대로 사바세계는 고통이 많은 곳이다. 괴로움에는 생로병사의 네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병의 고통이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괴로움일 것이다. 그래서 약사여래는 12가지의 대원(大願)을 세워 이 세계의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재화를 소멸하고, 의복, 음식 등을 만족케 하여 깨달음의 행을 닦아 무상보리의 묘과를 증득케 한다고 서원하였다.

동국대학교가 통일로 가는 길목 일산 신도시에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16일 기공식을 가졌다.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실천하여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관음손으로 아픔을 치유하여 이 땅에 즐거움이 넘치는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대원을 세웠으니 요즘과 같이 우울한 일이 많은 때 자못 통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병원의 규모는 1천 병상을 규모로 하는 한·양방 협진체제를 갖춘 동서양 의학의 교두보로서 오는 2003년 개원한다고 하니 수도권의 불교종합병원건립이라는 교계의 오랜 숙원불사가 드디어 이루어질 전망이다. 생명을 존귀하게 다루는 인간화, 의료장비의 첨단화, 발달된 의술을 공유하는 정보화를 세가지 특성으로 하는 21세기를 앞서가는 의료기관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에 가면 으레 십자가나 예수의 초상이 걸려있다. 십자가 밑에서 병을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심정은 언제나 착잡하다. 어느 대도시에나 기독교에서 세운 종합병원을 쉽게 볼 수 있듯 의료시설은 기독교가 독차지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산사의 자연환경과 훌륭한 교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를 살려 중생의 현실적 고통을 치유해 주지 못하는 자비의 구호로는 행복한 복지사회, 즉 불국정토의 건설은 요원할 뿐이다.

사실 교계에서도 병원포교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은 엄청난 재원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원력이 지극하고 실현의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묘력이 있는 것이 또한 불사이다.

동국대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립대학으로 불교의료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경주캠퍼스에 한·양방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10여년간 꾸준히 인력을 양성해 왔다. 이제 성공적인 종합병원건립불사를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확보이다. 동국대는 병원벽돌 한장쌓기 등 다각도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IMF시대인 요즘 총 건립예산 1천2백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 내외의 걱정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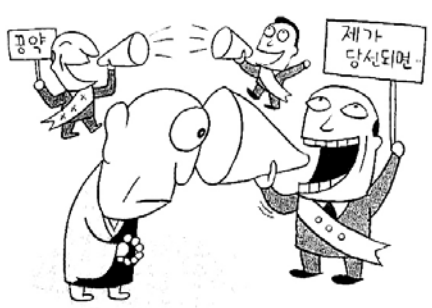
일산의 불교종합병원이 순조롭게 완공하려면 조계종을 비롯한 교계의 모든 단체와 이 땅의 천만 불자가 '벽돌 한장' 동참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력을 확대해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광역시에도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는 밑거름을 삼아야 한다.

IMF체제라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전 불교도의 마음에 십시일반의 보시정신과 불교도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굳은 신심으로 합심, 동참해 반드시 불교종합병원 건립이라는 대 불사를 성취해 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속보이는 공약은…

남북화쟁 대중공사 '연다'

각계인사 40여명 발기…격월 포럼 개최

두달에 한번 사회 각계 중견 지도자들이 모여 불교적 통일기반 조성과 방법론을 모색하는 대중공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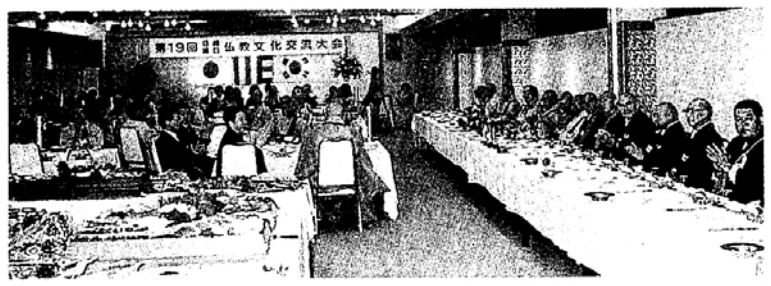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는 30일 송현클럽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불교지도자 통일포럼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를 개최한다.

법장(수덕사 주지) 지하(중앙승가대 총장) 도영(금산사 주지)스님을 비롯 고은시인, 박원순 변호사, 김광삼 현대불교사장, 조희영교수(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손혁재씨(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 사회각계 중진 4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는 두달에 한번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토론은 일정한 형식없이 포럼 참석자들이 각자 분야에서 쌓아온 업적과 경험을 토대로 남북평화통일 방안 제시를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전망이다.

불추위는 30일 '강인덕 통일부장관이 '새정부의 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는 1차 포럼에 이어 연말까지 5차에 걸친 포럼을 개최한다. △2차 포럼(6월)은 '남북의 문화 통합과 전통 종교(불교)의 역할' △3차(8월)포럼은 '남북간 대립되는 이념의 불교 사상적 극복' △4차(10월)포럼은 '통일을 전후한 시기 북한의 종교단체에 대한 남한 종교의 입장과 대응' △5차(12월)포럼은 '정부의 통일사업에 대한 평가와 불교의 남북교류사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

불추위 유지원 사무총장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이 삼국통일의 정신적 논리로 역할하였던 것처럼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전체 대중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통일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남북화쟁을 위한 대중공사'라고 포럼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교계 각 단위별로 통일실천운동을 이끌어 내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불교인으로서 동질감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한-일 불교문화 교류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이해를 통한 우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19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13~15일 일본 조동종 본산 영평사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한국측에서 80여명의 스님과 신도가 참가했으며 일본에서는 2백여명이 참석했다.

北, 日에 문화재 반환촉구

일제약탈 유점사 불상등 불교문화재 다수

북한이 일본에 대해 일제 식민지배시기에 약탈해간 조선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한 중앙방송은 16일 일제는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동안 가혹한 민족문화말살정책을 추구하면서 조선문화재에 대한 파괴·약탈을 일삼았다며 이는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인류문명에 대한 극악한 모독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정부는 과거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약탈해간 문화재를 무조건 즉시 반환하고 충분한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제의 조선문화재 약탈행위는 한일합방 이전인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직후부터 이뤄졌으며, 일제가 약탈해간 문화재 중에는 금강산 유점사 53불 중 11불을 비롯 개성부근의 석탑, 부도 등 국보적 가치가 높은 불교문화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김포학사 공기연장

중앙승가대 확사추진위

중앙승가대학교 학사추진위원회(위원장 지하)는 18일 오후 2시 조계종 교육원장 암도스님 교육부장 향적스님 중앙승가대 법인사무처장 성혜 스님 동문회장 효종스님 시공업체인 풍림건설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포학사건립 공사기간 6개월 연장과 공사비 총 80억 증액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학사추진위는 풍림건설의 공사비 증액요구를 받아들여 물가변동분 45억, AV시스템과 무대장치 설비 13억,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10억, 외부도로 포장 및 하수관로 매설공사 7억5천 등 총 80억의 추가소요비용을 결정했다.

현재 19%정도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학사는 이번 공사비 증액으로 기존의 274억원에서 3백54억원으로 총공사비가 책정됐으며, 오는 99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승가대 동문회 봉은사주지 효종스님 추천

중앙승가대동문회(회장 효종)은 15일 운영회의를 열고, 봉은사 주지에 동문회장 효종스님을 단일화로 추천했다. 이날 운영회의에서는 또 봉은사 주지는 정회원 동문으로 4년 단임으로 하며, 봉은사 운영은 원융살림과 공개살림을 해야한다고 결의했다. 또 이를 위해 동문스님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결성했다.

한편 중앙승가대동문회의 이같은 결의에 대해 봉은사는 '봉은사 주지문제는 봉은사 대중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중앙승가대동문회는 봉은사 주지 추천권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건축문화의 해'

21일 문화부 발표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로 정해졌다. 문화관광부는 21일 내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각계 인사 1백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종교인회의 대북구호사업 결의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가 23~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과 공동으로 대북 식량지원 사업을 전개키로 의결했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는 작년 5월 31일 북경모임에서 합의한 대북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안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북한지역에 구호품과 의약품 등을 조선종교인협의회(KCR)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인권 형평, 종교간 대화협력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 이번 회의에는 한국 불교를 대표해 조계종 사서차장 일화스님과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대표 법륜스님, 정안숙사무국장이 참가했다.

"'남북종교인교류협회' 결성하자"

전불련 워크숍서 민통研 이금순박사 제안

민족화합불교추진위가 주최하고 전국불교운동연합이 주관한 제2차 통일을 준비하는 불교정책 워크숍이 지난 19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를 맡은 민족통일연구원 이금순박사는 '신정부의 대북교류 및 협력정책'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각 종교 및 교파간의 소모적 분파활동과 경쟁을 자제하고 통일여건 조성사업을 위한 범종교적 '남북종교인교류협회(가칭)' 결성을 제안했다. 또 △국제적 종교단체와 연대해 평화통일, 인권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선교 및 교화목적 보다 인도주의적 목적을 기반으로 남북한 신뢰회복과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 등 민간부분 교류협력을 위한 종교계의 과제를 지적했다.

조계종본사 7직스님들 '일문회' 창립

회장에 원담스님

전국 교구본사 7직국장 스님들을 주축으로 하는 모임인 일문회(회장 원담)가 16일 부산 글로리콘도 대회의실에서 창립됐다.

이날 관룡사 정안스님, 화엄사 해봉스님 등 20여 스님이 참석했으며 원담스님을 회장으로 해봉스님과 도감사의 범각스님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원담스님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역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당면문제들에 공감을 형성해 나가 불교문화의 사회화와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문회는 지역간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도모 불교문화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7월에 나주 다보사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두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여의도문화센터 설립 '제동'

정빈스님 잠적 공사중단

조계종 총무원이 추진중이던 여의도불교문화센터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여의도 신송빌딩에 1백50평의 법당과 사무국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던 문화센터는 내부 설비공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최근 설립책임을 맡았던 정빈스님(前 조계종 사서차장)이 잠적, 공사가 중단됐다. 정빈스님은 공사계약금과 건물 전세 계약금 등의 일부를 챙겨 잠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정빈스님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며 사암으로부터 개별적인 화주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출판기념 대법회 ■

眞際大禪師 禪修行 法語集 拈花人天 출간!!



▶ 신국판 340쪽/값 8,500원
화산문화 발행

불 속에 연화가 처처에 핌에
마침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손가락 튕기는데 팔만
사천 법문을 뚜렷이 이루니
찰나지간에 항하사강 모래 숫자와
같은 업을 소멸함이로다.

● 삼가 모십니다 ●

경허, 혜월, 운봉, 향곡 스님으로 이어지는 선맥을 이어오신
진제대선사께서 불자들의 올바른 수행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세번째 법어집 「염화인천」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님을 모시는 저희들의 작은 힘을 모아 출판기념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루 동참하시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생활의 해법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일 시 : 1998년 5월26일 낮 12시
● 장 소 : 해 운 정 사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 해운정사 금모선원

선원장 명 언 신도회장 서석인 신도회 일동 합장

♠ 문의전화 : 051-746-2256/4812

인사위원회 신설 '시급'

군승단 인사파동 배경과 향후전망

육본 인사권 일시적 회수…자율권 훼손
비리법사 징계 이어 자정움직임 가속화

원칙없는 인사가 급기야 군승단의 자율성 훼손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었다.

군승단은 매년 7월 군법사의 신규임관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한다. 올해도 13명의 법사가 임용돼 일선 군법당에 배치된다. 군법사 이동은 군종장교라는 특수성을 인정,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군종보좌관(불교는 김말환법사)이 인사초안을 마련해 육본 인사참모본부에 제출하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지난 6월 김말환법사가 작성한 육군 군법사 근무지변경 정기인사와 관련해 원칙이 무시된 인사라는 반발이 잇따랐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군법사는 "초임자가 임관하는 법당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군법사를 배치하거나, 영관급 이상의 군법사가 맡았던 논산훈련소의 경우 3년차의 위관급 법사를 배치한 것은 인사원칙은 물론 효율적인 군포교를 무시한 것"이라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군승단 비리적결을 주장했던 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라며 반발했다.

이같은 잡음이 일자 육본 인사참보본부는 종단보좌관이 제출한 인사초안을 백지화하고 인사대상 법사에게 직접 전화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군승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종단보좌관에게 맡겼던 인사제안권을 일시적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김말환법사는 "군포교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임했느냐는 판단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했다"며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한 법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군승단 인사는 임관 15년 이상의 법사들로 구성된 원로법사회에서 의결토록 돼 있으나 이를 생략한 채 종단보좌관에게 맡겼다. 중요한 인사를 하면서 규정조차 없고, 몇사람에 의해 이뤄진다면 제한된 진급, 선호 법당, 장기복무 등으로 당연히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인사위원회 신설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 군법사는 위관급, 영관급, 각 군별 대표자 10인 내외의 인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포교원도 군승단내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권고하고, 인사시 포교원과 호법부 총무부의 재가를 받는 방향으로 종단의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파동과 관련, 군승단 내에서는 특정인이 인사제안권을 행사함으로써 군승단의 위상을 추락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포교원도 인사초안을 제출한 김말환법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파동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를 경우 지난 해 비리 군법사 징계에 이어 군승단 자정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인사파동을 계기로 군승단 자정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1월 불사비리 군법사에 대한 조사의뢰를 결의한 군승단 정기총회 모습.

비리군승 제적 등 중징계
조계종 재심호계원 결정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은 4월말 군법당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4명의 군법사에 대한 최종 심판에서 한상길-제적, 김영현-공권정지 5년, 변상금 2천만원, 이정우-공권정지 3년, 변상금 1천만원, 경연수-문서견책의 중징계의 결정을 내렸다.

종단이 군법사에 대해 제적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 군법사들의 군법당 공금횡령과 진급을 위한 로비 등에 대해 묵인치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총무원은 재심호계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다음주중 국방부와 군승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상길법사의 경우 종단에서 군승자격을 박탈했으므로 전역조치된다.

목어 "누굴 뽑을까"

천왕의 태자 벽라가 전생에 왕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인생 무상을 느껴 보시를 하려고 신하들을 불렀다.

"내가 큰 북을 만들어 그 소리가 백리까지 들리도록 하려하오. 이 일을 해낼 자가 있겠는가."

"광상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그는 늘 상감마마를 충성으로 섬기고 국민을 자비심으로 구제해 온 사람입니다."

왕은 그에게 뜻을 전하고 비용을 내렸다.

광상은 창고의 재물을 왕궁 앞에 운반해 놓고 나서 북을 치며 명을 내렸다.

"어지신 우리 대왕께서 자비를 베푸사 백성의 궁핍함을 건지려 공양하니 가난한 사람은 모두 오라."

이 말이 퍼지자 가난한 사람들이 길이 막힐 정도로 몰려 들었다.

1년후 왕은 광상을 불렀다.

"북은 다 되었느냐."

"벌써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북소리가 아니 들렸단 말이냐."

"원하옵건데 대왕께서는 국내를 순행하며 시방에 진동하는 불법의 북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왕은 어가를 재촉하여 순시의 길에 나섰다. "우리 백성이 언제 이렇게 많아졌느냐."

"대왕께서 큰 북을 만들라 하셨을 때 소신은 마른 나무와 죽은 가죽으로는 대왕의 후덕을 떨치기에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로 백성의 궁핍을 구제했더니 이웃나라 백성들이 주린 자식 어미찾듯 모여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나라의 불안은 몸에 병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거니 자비로운 신하를 통해 양식을 주어 백성을 구하리라."

그후 왕은 죽어 천묘왕이 되었고 다시 천왕의 아들 벽라로 태어났다.

부처님께서는 벽라에게 이르셨다.

"무릇 사람의 행위란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산울림이 소리에 응하듯 보답이 따르지 않음이 없느니라"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말 공약이 화려하다. IMF로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썩어가는 3~4급수 수돗물을 마시게 한 책임은 뒷전이다. 참회로써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보다 국민을 먼저 챙기는 현명한 일꾼을 가려내자.

"조직관리 투명성·전문성 필요"
대구경실련 불교발전 시민토론회 전영평교수 주장

재가 입장에서 불교계 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대구경실련 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 주최로 21일 대구진각회관에서 열린 '불교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전영평교수(대구대 자치행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합리화와 자주화를 달성하고 對사회적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평 교수

전교수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불교는 대중과 유리될 수 없는 사회적 생명체일뿐 아니라 조직현상이다"고 전제한 뒤따라서 "재가신도들의 자질과 행동이 중요시돼야 하고 불교조직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이어 "불교의 합리화는 초기 불교의 사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일부 스님들이 재정확보를 위해 영합하고 있는 기복신앙은 버리고 수행불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교의 자주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신도들의 종무행정 참여 △외부감사제 도입 △문중중심의 폐쇄적 운영 혁파 △정치권력감시단 구성 △비구와 비구니간의 굉등적 참여 등을 제시했다.

전교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 "지금까지 주로 대중구제 차원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비판한 뒤 "권력의 횡포와 사회부조리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시정요구를 통해 대중의 호응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대구경실련 불교시민회와 공동으로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재가불자 2백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종단과 사찰운영에 신도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대답이 63%를 차지해 참여를 반대하는 14.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단 및 사찰운영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투명하다"가 19.9%를, "불투명하다"가 39.2%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도교육(33%) 스님들의 자질향상(22.7%) 불교계의 자주화(22.2%) 사회참여(12.3%) 불교계의 민주화(7.9%) 기타(2.0%)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생의 폐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6%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불교대구교육원 사무국장 동진스님 김봉규 영남일보기자 김종웅 경산대교수 이춘희 영남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박상규 대불련간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영)가 개산 14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불사를 전개하고 있다. 금산사는 19일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산 1400주년 기념관' 개관과 기념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했다. 2000년 5월 회향을 목표로 30여건이 넘는 기념불사를 진행할 기념불사 추진위원장 도영스님을 만나 불사추진의 의의와 계획을 들었다.



수요 인터뷰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불사 추진위원장 도영스님

"대사회 미륵십선운동 전개"

-금산사 개산1400주년의 의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산사는 내년으로 개산 1400년을 맞는 한국의 대표적 미륵도량입니다. 백제 법왕원년(599)에 창건되어 제1중창주 진표율사가 미륵장육존상을 조성하고 점찰법회를 열어 백제 유민들의 비애를 불교사상으로 융화했던 도량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도덕과 정신문화가 황폐해진 사회 현실을 바라보며 금산사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융화하는 새로운 도량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을 절감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기념불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중요한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금산사의 1400년 역사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매년 한차례씩 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학술회의를 통해 미륵신앙에 대한 학술적 조명과 현대사회적 역할을 규명하게 될 것입니다. 미륵십선 운동의 전개를 위한 미륵십선회를 조직해 대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각 말사를 특성화하여 본사중심의 사찰 운영에서 탈피하여 모범적인 사찰운영을 꾀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북지역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금산사를 창출해 나가는 열린도량 가꾸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족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으로는 금강산 발연사 복원을 추진합니다. 발연사의 복원 계획은 단순히 북한지역의 사찰을 복원한다는 의미에 앞서 통일운동에 금산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 나간다는 정서적 의미도 부여된 것입니다.

미륵신앙 학술적 조명
금강산 발연사 복원 추진

-미륵십선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중심으로 금산사와 인연있는 대중들을 위해 10명 단위의 십선회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들이 다시 각각 십선회를 조직해 나가는 그물망의 형태로 조직을 확산해 나가며 미륵십선행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금산사에서는 연간 5천여명의 불자들이 미륵십선계를 수계 받고 있는만큼 실천운동으로서의 미륵십선 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천년까지 모든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물론 어느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의미보다는 21세기의 금산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는데 매진한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불사들은 가능하면 기간내에 완료하겠지만 지속되어야 할 사업, 예를 들어 미륵십선운동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임연태 기자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 건" 에 대한 봉은사 대중의 입장

「봉은사 대중 일동은 지난 제3차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안건 처리된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 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를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

봉은사 주지 추천은 봉은사 대중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봉은사에 거주하는 대중 일동은 불법홍포 및 신도포교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미력하나마 승가대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지난 5월 15일 제3차 동문회 운영위원회에서 봉은사로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 봉은사 주지 추천 문제를 봉은사 대중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소수 몇몇 스님들이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유감스런 일이다. 무엇보다 봉은사 주지 추천은 봉은사 대중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밝힌다.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추천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봉은사 주지 추천 결정의 문제는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

전 주지 대운스님, 성문스님, 그리고 현 무상스님에 이르기까지 동문회 운영위원회에서 주지를 결정하고 추천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동문회 운영위원회가 전례도 없는 봉은사 주지 추천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결정한 것은 모종의 정치적 의도임이 분명하며 이는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일이라 판단되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봉은사가 적극적으로 승가대학을 지원해 온 것('97년 기준 일년 예산의 30%가 넘는 10억원 이상 지원)은 순수한 도제 양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럼에도 '봉은사 주지가 승가대 전 학인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야 하며, 동문회 운영비도 전액 지원해야 한다.'거나 '재정지원 사찰로서 지원에 소홀했다'라는 등의 운영위 석상의 발언은 마치 봉은사를 중앙승가대학 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사찰인 양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봉은사 주지는 단임제'로 하며 '중앙승가대학 동문만이 주지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결의는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가 봉은사 주지 임명권은 물론 종법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일으키게 한다.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는 봉은사 주지 추천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중앙승가대학 동문회는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문회원 상호간의 침묵을 다지는 친목단체적 성격을 갖는다.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모색하거나 이권을 위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함에도 신임 동문회장 효종스님은 동문회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및 파벌 조성으로 동문들 간의 화합을 깨뜨렸으며, 동문회장 당선을 봉은사 주지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러한 와중에 동문회 운영위에서 봉은사 주지 추천을 복수 추천으로 결정했다가 이를 파행적으로 본인 단독 추천으로 번복 결정한 것은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신임 동문회장은 중앙승가대학 동문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학교 발전과 동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길 바란다.

「봉은사 주지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단 발전과 봉은사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봉은사 대중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중앙승가대학 동문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안건 자체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를 단호히 배격하며 향후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42년 5월 19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대중 일동



정덕용 문화재단이사장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0일 정덕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신임이사장의 예방을 받고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취임한 정이사장은 "불교계와의 긴밀한 협조로 문화재 관련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기업도 실직고통 나눠야죠"

'아침을 여는 집' 건물기증 최용권 회장



"IMF사태는 기업에게도 책임이 있는 만큼 실직자 구호센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들도 구조조정시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는 등 실직문제 해결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5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이 서울시 서소문공원내에 문을 연 실직자 구호센터 '아침을 여는 집' 가건물을 건립, 기부한 최용권(48) 삼환기업 회장. 이날 개소식에서 경불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최 회장은 "기업들도 노동자·실직자와 함께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새 삶을 여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총 5천여만원이 소요된 2층 가건물(건평 36평)을 건립해 기부한 최 회장의 보시행은 사회에 이윤을 환원하는 기업윤리가 어떠해야 할 지를 웅변으로 보여준 일.

김재경 기자

"타자치며 불교공부 하세요"

불교용어 타자연습프로그램 개발 곽철상 씨



"일부 교회에서 타자연습프로그램에 성경구절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자극받아 불교교리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먼저 제작했습니다."

불교경전을 치며 타자연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 키보드 학습프로그램 '늘푸른 키보드학습 1.0'을 개발, 자신의 원찰에 1천개를 법보시해 화제를 모은 곽철상씨(45세·늘푸른 세미컴 이사)는 개발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곽철상씨는 "사찰에서 이 프로그램 사용을 원할 경우 역사와 문화 등을 넣어 특별 제작해 보급하겠다"고 말하고 "청소년을 위한 법보시용으로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정성운 기자

교차로

법어집 '염화인천' 출판회



진제 혜운정사 조실스님은 26일 혜운정사에서 법어집 〈염화인천-꽃을 들어 사람과 하늘에〉 출판기념법회를 가졌다.

제1회 청소년 보호대상 표창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 스님은 28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회 청소년보호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 건전문화를 조성한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는다.

인덕노인회관 1돌 행사



성운 인덕원 이사장 스님은 6월1일 오전10시 인덕노인복지회관에서 '개관 1주년 기념법회 및 경로잔치'를 연다. 지역노인 3천여명을 초청, 국악 및 풍물공연과 점심공양 등으로 효친사상을 고양시킬 예정.(02)385-8205

해군 신병 7백명에 수계



정우 김포 선경암 주지는 17일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신병 교육생 7백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갖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철웅스님 초청 법회 열어



선일 인천 법명사 주지(조계종인천사암연합회장)는 24일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비구니 선방 '조인' 개원



고경 장수 신광사 주지는 10일 하안거 결제일을 맞아 비구니 선방 '조인(祖印)선원'을 개원했다. 현재 8명의 비구니 수좌들이 정진하고 있다. 조인선원은 제방 수좌들의 입방을 기다리고 있다. (0656)353-0598

오봉사 복원불사 기공

선진 경기 연천 오봉사 주지는 20일 복원불사 기공법요식을 봉행했다.

원효성사 1381주 다례

태경 경북 경산 제석사 주지는 29일 원효성사 1381주기 다례재를 봉행한다.

제12회 동국문학상 수상





故 정의홍씨(前 대전대 국문과 교수·사진위)와 호영송씨(소설가)가 동국문학인회(회장 조상기)가 수여하는 제12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정씨의 시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과 호씨의 소설 '유쾌하고 기지에 찬 사기사'. 시상식은 28일 오후7시 동국대 문과대학 세미나실(A104).

교직원·학생 6백명 수계



이근우 청담종고 교장은 18일 청담중·고교 직원 및 재학생 6백명에게 동광스님(도선사 주지)를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대불련동문 '대불' 창간



임동주 대불련총동문회장은 23일 소식지 〈대불〉(4x6판) 창간호를 발간했다. 이 달의 이슈, 회원 동정, 동문 찾기 등이 실린 이 소식지는 매월 발간된다.

불자예술인연합회 대법회



이성웅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장은 28일 오후5시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연합회 창립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덕진스님 수행담 출판

최일성 울산문인협회장은 28일 오후 7시 울산 정토사에서 덕진스님(정토사 주지)의 포교수행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노인 교화·복지불사에 여생"

교화 한평생 정년맞은 대안화 대종사



지난 22일 대전 리베라호텔 백제홀. 중생교화를 위해 일생을 받친 스승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후학들과 신교도들이 기로진원식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1951년 진각종단에 입교 후 45년의 세월을 중생교화에 힘쓰며 청정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온 진각종 대안화대종사(72).

"부처님의 가피와 선대 스승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제뭇를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후학들과 신교도들이 번번치도 못한 내 법문을 〈회향의 죽비소리〉라는 책으로 엮어내 이런 자리를 마련하니 민망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대안화대종사는 퇴임 이후에도 수도원교화와 복지불사를 위해 여생을 보낼 것으로 알려져 후학들과 신교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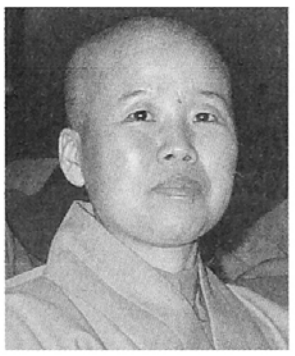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생전에 못다한 수행정진으로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라고 말하는 대안화대종사는 사회적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불자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회향의 죽비소리〉는 대안화대종사의 생애와 교화일화, 법문 등 3편으로 구성돼 있다.

도필선 기자

청소년 육성공로 대통령상 종실스님

"자원봉사는 보살도 실천입니다"



"청소년 교화에 일생을 바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력한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자원봉사는 바로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과 간접적인 인연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청소년 포교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 청소년육성 유공자로 선정되어 20일 대통령상을 수상한 종실스님(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현재 전국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5개. 그 가운데 불교에서 운영하는 곳은 단 두 곳뿐이다. 96년 3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스님은 "2천2년까지 모든 시·군 단위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서게 될 정부 정책에 대비해 불교계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며 교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경제난국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백년지대계인 청소년교육이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종실스님은 "청소년교화연합회가 학내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교법사단과 연대할 계획입니다. 보이스카웃 등이 서구적인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도·발우공양·참선·전통무술 등 동양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붙잡아야죠"라고 앞으로 전국적인 학생 동아리 활동의 장을 만들 뜻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



승가대-불자연예인 친선축구 경기

중앙승가대학교 축구부 승륜회와 불자연예인 축구팀은 17일 강남구 잠원동 신동초등학교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김흥국, 배철수, 김한국, 최백호 등이 참가한 불자연예인팀이 승륜회와 접전을 벌인 끝에 7:6으로 승리했다.

이은자 기자



도안사 경로잔치·효행상 시상

서울 도안사(주지 혜자)는 15일 상계동 동막골 공원에서 제17회 경로잔치 및 효행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경로잔치에서는 도안사 신도회 회원들과 노원구 부녀회 회원들이 참석한 지역 노인 1천여명에게 점심공양 및 떡, 음료수 등을 대접하고 가수, 탤런트, 코미디언의 공연도 펼쳐졌다. 또 효행상 시상식에서는 신현구(42), 강순분(40), 이순덕(40)씨가 각각 수상했다.

김정은 기자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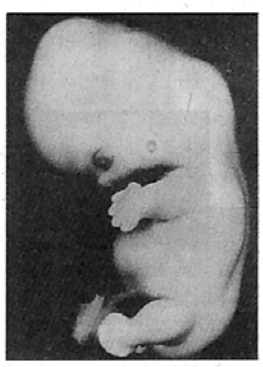
● 주간모금 총액 5,819,890원 △개인모금 총액 3,032,980원(45명) △한 주 한끼굶기 278,000원(21명) ▲나진·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1,802,000원(32명) △나와우리 200,000원 △부산부부선재회 30,000원 △대불련부산지회 476,910원

〈5월20일 현재 총 1,034,905,08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불교운동)

윤달에 구천을 떠도는 어린 영혼들을 천도합니다.

태아(낙태)영가 49재 천도법회 봉행



● 태생 49일째 태아모습

생명을 빼앗긴 태아(낙태)원혼은
부모에게 원한을 가집니다.
그 부모들은 태아(낙태)영가 천도재를
봉행하여 왕생극락을 축원하여 주고,
이들 부모는 윤달 예수재에
동참하시어 선업을 쌓아
이고득락 구경성불 하시기 바랍니다.

관 7·7 천도재 매주 월요일 10시 30분

■ 입 재 : 5월 26일 10시 ■ 회 향 : 7월 13일(윤 5월 20일)
■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8 금강사 특설단
■ 안 내 : 02)993-3744 주지스님 상담 : 02)906-9001

생활불교 실천도량
교통안전 기도본찰
금 강 사 법주 변산 자우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원 모집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에서는 밝고 맑은 목소리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할 소년소녀 합창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합창단명 :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
⊙ 대 상 : 1. 초등학교 2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까지
2. 노래에 소질이 있고 음악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
⊙ 모집기간 : 6월말까지
⊙ 연습시간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시 30분
⊙ 상임 지휘자 및 지도교수 : 정부기(중앙대 작곡과 교수)
⊙ 접수 및 문의 : 봉은사 교무부(511-6070~4)

·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은 봉은사에 소속되며,
· 단원들의 음악 소질을 계발하고 합창 뿐만아니라 작곡, 연주 등 음악 전반에 관한 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은 국내 및 해외연주를 통하여 불법을 널리 전파하는, 국내 유일의 불교 소년소녀 합창단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봉은 소년소녀 합창단 총재 무 상 합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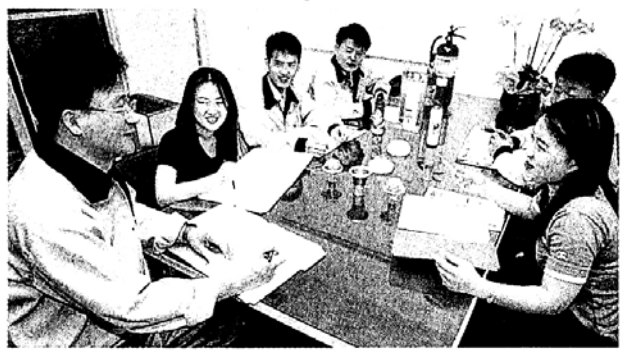
"불심으로 뭉치니 어려울때 큰힘"

'기업을 통해 불국정토를 이룬다'는 모토로 출발해 발전을 거듭하는 회사가 있다.

1년매출 40억원인 대동소방(서울 답십리동소재)은 소방용품 제작 및 판매회사로 전국판매 1~2위를 달리고 있다. 대불련과 동국대출신이 주류를 이뤄 100% 불교신자로 구성돼 있는 대동소방은 회사아유회를 사찰순례행사로 갖고 있으며 직원법회도 준비중이다.

전직원 불자 기업 '대동소방'

4년만에 판매고 전국 1위
'부처님 믿음'이 가장 큰 재산



◇불심으로 IMF를 극복하고 있는 대동소방은 4년의 짧은기간 동안 소방용품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IMF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연쇄부도가 늘어가던 12월부터 3월까지 대동소방도 협력회사들이 무너지면서 4억원의 부도를 연이어 맞았다. 3월10일을 D-데이로 잡고 최종부도 위기에 몰려있는데 경주지사에서 극적으로 수금이 돼 한차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후 대동소방은 전년도에 비해 40%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4월에는 5억원이라는 경이적인 매출 실적을 올렸다.

소방업체의 X세대로 불리는 이남제(35세)사장은 "3백만원 자본금에만 4년이라는 짧은 경력으로 소방업계 최고판매고를 기록하자 주위에서 IMF 첫번째 희생양은 저희 회사가 될거라고 했습니다. 또 부도를 막아내고 급성장하니 뒤에 큰 힘이나 자금력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회장 부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면서 굳이 사람을 든다면 어려울때 매일아침 조계사에서 1백일 기도정진한 부인뿐이라고 웃었다.

신임수이사도 한국외국어대 대불련출신으로 법안정사가 창등에서 도심포교당으로 개원했을 때 청년회원으로 활동하며 안내전단을 만들어 시내곳곳에 홍보했던 신심강한 불자다. 이사장의 뜻을 알고 대동소방에 참여해 현태와 고합등 대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을 맘껏 발휘하고 있다.

이사장과 신이사는 어린이날도 아들과 딸을 데리고 조계사를 찾았다. 굳이 종교를 집요하게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가깝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였다고.

또 입사시 채용조건을 불자로 하는만큼 경주지사 김철기 유현종씨도 동국대출신으로 보경사와 백률사 신도이다. 나선주 관리부주임은 "신행활동하는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다보니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울 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회사내 자체법당을 갖는게 꿈이라는 이남제 사장은 "요즘 사찰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종단에서 승려연수시 소방교육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달려가겠다"고. (02)215-0723

김원우 기자

PC경전방

"산사강원 부럽지 않아요"

하이텔 불교경전연구모임 그룹별 공부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부처님 가르침 배워

하이텔통신 작은모임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회원상호간 대화와 토론하며 올바른 실천행을 꿈꾸는 불교경전연구모임(회장 방용덕)이 있다.

3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이 연구모임은 아함부(원시경전등) 반야부(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등 경전들을 소그룹으로 나눠 자유게시판에서 만나 공부하고 있다. 또 조사어록과 수행에 관한 질문과 응답, 토론을 펼치고 있다.

불교경전연구모임 공부시간은 매일 저녁 9시에 열리는 대화방을 기본으로 화요일은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수요일은 저녁11시부터, 목요일은 저녁 10시 등에 아함경반 반야심경반등 소그룹 경전공부모임이 뜬다. 아함경반은 안정수교법사가 지도하며 교재는 민족사에서 발행한 〈아함경 1,2〉이다.

경전공부방은 누구나 불교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을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여 기존방에 들어가 공부하거나 또 특정분야를 공부하고 싶을 경우 스스로 소모임을 만들어 회원들과 함께 교재를 선택할 수 있다.

찾아가는 방법은 하이텔 TOP에서 7번 동호회/작은모임으로 들어가 31번 작은모임을 선택한뒤 종교/명상1에서 8번방에 불교경전연구회가 있다.

〈원〉

교사연, 청소년포교지 만든다
초·중고생 대상 1만부 배포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포교지가 만들어진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청소년 포교지(제호는 미정)를 다음달 중 1만부를 제작, 전국의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23쪽 분량 포켓북 형식의 포교지는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 2종으로 제작되며,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주로 간단한 불교교리를 곁들인다는 방침이다.

임완숙회장은 "교리를 많이 언급하기보다는 청스년들의 고민을 담아 불교에 우호감을 갖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계간 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불자연합회는 이와 함께 교사불자회 조직활성화를 위한 홍보지도 펴낼 계획이다.

우리 모임에선

부산대불청 창립 32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김수현)는 17일 금정중학교에서 지도법사인 혜총스님과 역대회장을 비롯한 11개 지회 2백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2주년 기념법회 및 체육대회를 가졌다. 특히 고등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학생불교연합회와 친선경기를 마련해 불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었다.

서울구치소 염주 보시

서울구치소 불심회(회장 임장수)는 불국사주지 설조스님이 재소자교화를 위해 기증한 염주 6천여개를 전국재소자 수용시설에 택배로 전달중이다. 염주가 필요한 재소자교화시설은 서울구치소 불심회(0343-23-6107)로 연락하면 된다.

유불동 수계·메뉴 개편

유니텔 불교동호회(회장 김희정)는 13일 운영자회의를 열고 98년 전회원 수계법회및 메뉴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수계법회는 6월20~21일 법주사에서 갖기로 했으며, 중복방 통폐합및 불교교리강좌와 지역모임방, 불교강좌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불기협 전반기 연수

한국불교기지협회(회장 하춘생)는 30일부터 31일까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98 전반기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불교언론 환경의 변화와 새길찾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02)722-4162

수원운불련 경로관광

수원운전기사불자회는 18일 20여대의 택시를 이용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을 방문, 경로관광을 실시했다. 20대의 택시에 태워 수원 용주사와 사도세자릉 등을 참배하고 돌아왔다.



축역 한국대장경 출판기념회

한국불교금강선원(이사장 한정섭)은 17일 불교방송국 3층 대법당에서 제3차 축역 한국대장경 출판 기념법회 및 춘계특강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덕암스님(前 태고종 종정)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김영태교수(前 동국대 불교대학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에 이어 전국 10개 지방교육원 개설에 따른 교육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밀교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명예기자=한수갑〉



생명나눔실천회 자문위원단 모임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20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의료·법조·언론·학계 등 각 분야 자문위원단을 구성, 1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사장 법장, 중앙승가대교수 본각스님과 박선영·박경준 동국대교수, 최재천 변호사, 권대영 원당진단방사선과 원장, 이건호 대한불교방생법회 회장, 송위지 외국어대교수, 이은윤 중앙일보 전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립 근로자 합숙소 개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20일 오전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1번지에 '시립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합숙소 소장 능관(사회부장)스님과 강덕기 서울시장 직대, 김두기 영등포구청장 등 4백여명이 참석했다. 월주스님은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것은 불자들의 의무"라며 "IMF사태를 계기로 자비행을 더욱 실천해 복밭을 가꾸어 성불을 씨앗을 뿌리자"고 당부했다.



군포복지관 '매화효도잔치' 열어

군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현스님)은 15일 목화웨딩부페에서 군포시 생활보호대상 노인 2백50명과 경로식당 및 군포광명의원 이용 노인 1백명을 초청, 매화효도잔치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법혜사 주지 벽혜스님과 조원극 군포시장, 유병직 군포상공회의소 소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탐방 반야선

"이웃과 함께 피안 향해 갑니다"
28가족 회원…96년 4월 창립
부상장병·행려병자·고아등 돌봐



◇반야선 회원들이 세강병원 영안실을 방문 영가천도의식 봉사를 하고 있다.

반야를 향하는 배, 그 배가 있다면 누구든 타고자 할 것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지혜를 구족하고 싶고 성불을 향한 길을 늦추고 싶지는 않다. 육바라밀의 수행덕목을 노 삼아 성불을 향해 가는 배, 바로 반야선(회장 설정수)이다.

반야선 회원들은 그들이 만든 조그마한 반야선이 거선이 되어 온 중생을 거두어 태울 수 있길 발원하며 활동하고 있다. 96년 4월에 열여덟 가족들이 모여 창립돼 이제는 스물여덟 가족이 한배를 타고 있다. 가족이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반야선은 가족회원으로 구성된다. 부부동반으로 경전공부와 봉사활동도 펼친다.

불법을 전하는 것보다는 다른이와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반야선의 활동은 시작되었다. 국군통합병원내 묘광사에서 몸을 다친 병사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부산 시립의료원 행려병동에서 환자들의 외로움과 육신의 고통을 감싸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 불법을 말하기 전에 그저 환한 웃음과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맞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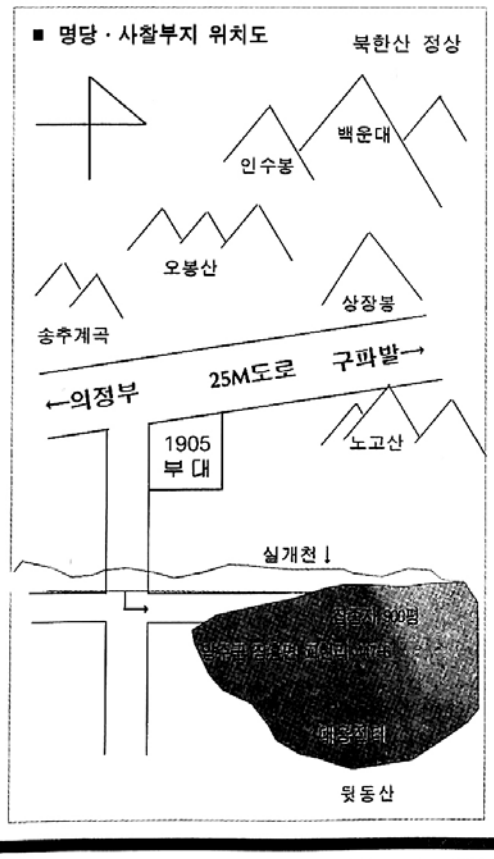
매주 금요일 천명일거사의 〈수능엄경〉을 강의를 듣고 종단에 구애됨이 없이 법사를 초청, 법회를 열기도 한다. 그렇게 다져진 신심으로 매주 화·목요일 군법당 방문,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고아원인 성우원을 방문해 보시행을 펴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에 참여한 불자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천상소리 건립패'를 구성해 흥겨움을 더하기도 했다.

많지 않은 회원이지만 결코 직지 않은 일을 해온 반야선은 오는 30일 또 하나의 일을 벌인다. 불우이웃돕기 하루찻집을 열고 '현대불자가례시연'을 가지고 현대불자가례 책자를 제작 보급한다. 생활예불, 가내길상법회, 시다림, 탄생축복식 등을 시연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분 도심속의 명당·사찰부지 양

■ 명당·사찰부지 위치도



- 정남향!
- 북한산의 명봉이 한눈에 들어오며!
- 노고산 심곡의 옥수같은 계곡물이 앞마당으로 흐르는 명당의 사찰터!
- 병풍처럼 둘러쳐진 뒷동산 배경은 부처님을 바라보는듯 편안함을 누구나 보는 사람마다 느낀다고 함
- 도심속의 심산계곡 여름엔 숲이 우거져 시원하고 겨울엔 눈부신 햇살에 쌓인 낙엽이 솜이불처럼!

교 통 편

- 구파발 지하철 3호선까지 승용차 10분거리
- 의정부 지하철역 10분 거리
- 서울 시내버스 156번 통과
- 불광동-의정부간 시내버스 34번 통과
- 교외선 기차
- 위락시설 송추 유원지
- 장흥국민관광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교현리 447-6

☎ 0351)826-3665

• 推薦 합니다 •

千年宗風 麻谷寺의 大中興을 發願하며!

佛祖의 慧命을 받들기 위해 修行精進에 盡力하시는 麻谷寺 本·末寺 住持스님, 麻谷寺 在籍스님 그리고 地域에 緣故가 계신 大德스님 여러분께 삼가 아뢰옵니다.

元老 正影스님의 門徒인 小衲들은 末寺住持스님들과 함께 三千年 宗風을 지켜주신 大德스님과 各寺 住持스님 그리고 四部大衆 여러분께 揖告하고 仰望합니다. 스님들의 高見과 크신 願力으로 魯鈍한 比丘 楞嚴을 今番 弟6敎區 本寺 麻谷寺 住持選擧에 삼가 推薦하오니 恪別히 指導해 주시고 聲援해 주십시오.

總體的 力量을 다하여 麻谷寺가 發展될 수 있도록 하고, 進取的이고 未來指向的인 큰 일꾼이 되어 麻谷寺를 修行衲子의 最高修行道場으로 만들겠습니다.

■ 門徒 : 종 담 성 원 보 성
운 봉 진 허 월 곡
종 하 (무순)

법회안내



천운스님(대둔사 주지)는 6월 2일 오후 7시 대둔사 부산포교원 '현대를 사는 길' 주제 특별법회. (051)647-8744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27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법당 다보법회. (02)703-0108



혜광스님(법주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정기법회 신중기도 입재. 매월 음력 3일 오전 10시 신중 삼일기도 회향법회. 매월 음력 16일 오전 10시 미륵재일 철야기도법회. (0433)43-3615



송종연스님(성주암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경전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인등법회. 매월 음력 7일 오전 10시 연화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거사림 법회. (02)877-7180



원종스님(강화 보문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 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관음재일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일요법회. (032)933-827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수의 · 금은전 · 천수다라니 · 경전 등

윤달 예수재용품 다양

업장소멸 의식에 사용

5월과 윤오월은 업장소멸 선업쌓기 발원의 달.

각 사찰이 5월 초하루를 맞아 입재하거나 입재중인 생전예수재에는 다양한 용품들이 준비된다. 이에따라 불구점마다 예수재용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예수재 용품으로는 지전·천수다라니·수다라니·돈다라니·소다라니·금강경·만관·수생경·말·금전·은전·금강탑다라니·봉투 등이 있다. 예수재봉행시 이들 용품은 부처님과 여러 성현들에 올리는 공양에 사용된다. 모형으로 만들어진 금전 은전이나 지전등은 전생의 지은 업에 따라 빚을 갚은 의식에 사용되며, 각종 다라니와 경전은 죽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천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예수재때 받은 금은전이나 경전등은 임종시 관속에 함께 넣기도 한다. 이렇게 부처님과 성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스스로 지은 복의 힘으로 자신의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 생전예수재다.

윤달에 준비하는 것이 관례화된 수의에 대한 관심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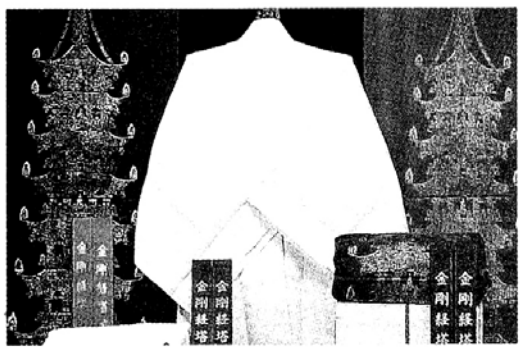
윤년에 부모님께 수의를 선물하면 무병장수 할 뿐 아니라 자손이 번창한다는 풍습 때문이다. 현재 교계 전문보급체와 각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의는 재질과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다.

대한불교연화회는 마혼용 비율에 따라 40만원~280만원까지의 다양한 수의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춘천 연화장의사, 청주 연화불교상조장의사, 대구 지장불교상조(주), 광주 불교능인회, 부산 관음손 마을 장의부 등 전국불교장의연합회에서도 수의를 판매한다. 가격은 대동소이하다.

불교TV 사업부도 수의 판매에 나서 국산삼베로 만든 남녀 수의가 각 1백40만원, 단품으로 삼베양말 6족 3만원, 삼베목수건 2만원 등의 가격으로 보급하고 있다. 각 사찰에서도 수의를 판매하고 있다. 봉은사의 경우 국산삼배 상품의 경우 90만원, 중품 60만원, 중국삼배 30만원 선이다. 보문지장회도 90만원대의 수의를 판매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내 백화점들도 윤년을 맞아 수의 매장을 잇따라 설치했다. 삼성플라자 태평로점의 경우 본관지하 패션존에 수의 코너를 마련했다. 수의 가격은 60만원~2백25만원까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등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거의 비슷한 가격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예수재 입재를 앞두고 조계종포교원이 기획제작한 예수재 안내 소책자 〈생전예수재〉와 감로출판사의 〈생전예수재의 공덕〉도 법보시용으로 주문생산되고 있다.



◇윤달을 맞아 선보이고 있는 수의. 중국산, 국산삼베 등 다양한 종류와 40만원부터 2백8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각 사찰 생전예수재 일정

사찰	일정	연락처
조계사	6.2~7.20	(02)720-1390
봉은사	6.4~7.22	(02)511-6070
도선사	5.19~7.6	(02)993-3161
화계사	5.16~7.3	(02)902-2663
삼성암	5.24~7.11	(02)988-1996
봉국사	6.12~7.30	(02)919-0211
경국사	5.24~7.11	(02)914-5447
영화사	5.18~7.5	(02)444-4321
구룡사	5.26~7.13	(02)575-7766
능인선원	5.28~7.16	(02)577-5800
삼천사	5.17~6.28	(02)359-7766
금강사	5.26~7.13	(02)906-9001
보문사	5.19~7.6	(02)928-3797
칠보사	5.24~7.11	(02)732-1424
대각사	5.26~7.14	(02)744-4502
광명선원	5.16~7.3	(02)584-1108
묘각사	7.17	(02)763-3345
태고사	6.29	(02)745-2030
봉원사	5.11~6.28	(02)392-3007
방생선원	6.24~8.3	(02)928-0475
보문사	6.4~7.22	(032)933-8271
석왕사	5.16~7.3	(032)663-7774
용주사	6.3~7.21(예정)	(0331)34-2818
봉선사	5.27~7.14	(0346)555-5974
심원사	6.19~6.21	(0353)55-3468
춘천석왕사	6.24~6.30	(0361)51-5040
직지사	6.20~7.7	(0547)436-6174
임휴사	6.24~7.14	(053)632-4844
분국사	5.14~7.1	(0561)746-9912
기림사	5.22~7.9	(0561)44-2292
해인사	5.23~7.11	(0599)31-1001
대흥사	5.21~7.8	(0634)34-5502
감로사	5.20~7.1	(051)809-0926
통도사부산포교원	6.4~7.22	(051)816-2241
대각사	6.1~7.13	(051)245-8781
복천사	5.10~6.27	(051)416-3121
삼화사	5.25~7.12	(0394)34-8313
통도사	5.31~7.19	(0523)82-7196
고운사	5.23~7.10	(0576)33-2324
금산사	5.28~7.17	(0658)548-4441
증심사	7.19~9.6	(062)226-0107
향림사	5.31~7.19	(062)375-7600
쌍봉사	5.27~7.16	(062)72-3765
천불암	6.1~7.13	(0417)557-3223
구인사	9.17~23	(0444)20-3399

게 시 판

♣ 인사

진각종 — 진각종보사 편집장 정유제

♣ 알림

△이웃돕기 하루찻집=신행봉사 단체 반야선(회장 설정수)은 30일 전통다원 하나방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루찻집을 연다. 오후 3시와 7시에는 불자가례시연도 갖는다. (051)803-1155

△노인주간보호소=마포재가노인복지센타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5시 노인주간보호소를 운영한다. 전화 또는 내방접수. (02)365-3677

△무료도서대여=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웅)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도서대여를 실시한다. 이용신청서 작성후 일주일동안 이용할 수 있다. (02)817-8052

△무의탁노인돕기 하루찻집=화계사청년회(회장 김장수)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수유사거리 스카이라운지에서 무의탁 노인돕기 하루찻집을 개원한다. (02)990-5928

♣ 모집

△과학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6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어린이를 위한 과학교실을 연다. 일상생활과 과학을 접목한 수업내용으로 유치부는 오후 2시~3시, 저학년은 3시~4시30분, 고학년은 5시~6시30분에 실시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무료 및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02)852-0525

△선체조·다도교실·사찰요리=원효불교대학 문화센터에서는 선체조·다도교실·사찰요리 강좌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53)563-9154

△수화·점자교실=원심회는 제28기 수화기초반과 점자반을 개강한다. 수화기초반은 6월 15일부터 3개월간, 수화중급반은 6월 18일부터 3개월간, 점자반은 수시로 모집한다. (02)720-4528

△국비 간병인교육생=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함께 주부·준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간병인 교육을 6월 8일~12일 실시한다. 접수마감은 6월5일. (02)203-3677

△간병 자원봉사자 교육생=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6월2일~7월7일(매주 화·수) 재단 강의실에서 제16기 간병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 선착순 35명 모집. (02)723-5101

△노인주간보호소 이용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6월10일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10시~오후5시 노인주간보호소를 개소한다. 65세이상 신체허약 및 거동불편 노인, 만성 노인성 질병(전염성 질병 제외)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면 신청 가능. (02)282-1100

△부전스님=영동 중화사(주지 장산)는 부전스님을 급히 구한다. (0414)42-2057

△어린이집 교사=광명선원에서 운영하는 구립 사당어린이집에서는 신심깊은 교사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명이며, 유아교육학과 졸업자로 오는 30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02)584-1108

♣ 화촉

△김채(前 주간불교신문 상무)씨 차녀 이진씨가 이강길씨와 24일 상제리제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나의 수행일기



이 중 오 〈변호사〉

불교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항상 함께했다. 내가 불교에 심취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사찰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젊은 시절이었다. 나름대로 사법시험이라는 힘든 길로 발을 내디딘 나는 산사가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편안했다. 공부를 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칠 때 부처님의 원만한 상호를 그리며, 고요한 산사에서 산만한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하루하루 절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민하던 중 법당 한켠에서 예불의식이 수록된 경전을 발견했다. 그날밤 밤새도록 예불문을 탐독했다. 한 구절 한 구절속에 담긴 의미는 감동적이었다.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문맹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와 같은 환희심이라고 할까. 그날처럼 새벽예불시간이 멀게만 느껴던 적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다. 예불문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음미하며 예불을 하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 마음도 어느때보다 안정됐다. 이같은 체험을 하면서부터 경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속에서 신심은 깊어졌고 마음 다스리는 법도 익혔다. 특히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일체유심조란 부처님 말씀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아름다움과 미움 등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체험이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업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연의 고리를 부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죄와 벌은 어떤가'라는 것을 화두로 삼아보기도 한다.

10여년전 어느 절도 범죄인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다. 약 5만원 상당의 점퍼 1벌을 훔치려다 체포된 것이다. 보통 그 정도의 범죄라면 훈방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피고인은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전과 17범이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전과배경이었다.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피고인은 할머니슬하에서 어렵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자전거포에서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자전거포 옆에 세워진 소형 오토바이를 주인몰래 타다가 붙잡힌 것이 첫 전과였다. 13살이었던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1년동안 복역을 하게 됐다. 그후부터 피고인은 사소한 일만 저질러도 전과자로 분류되어 실형을 살아야만 했다. 17범의 절도 전과자로 17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장기복역수인 그 피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던중 천수경과 지장경 1권씩을 보내줬다. '부처님 말씀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죄나 벌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감옥속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신은 나를 사회라는 감옥속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라. 깨우치면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된다'는 내용의 편지도 함께 동봉했다. 그 후 답장이 왔다.

경전을 읽으면서 지난 세월에 대해 많을 생각을 하였다면서 지금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고 교도소를 방문하는 스님에게 마음을 의탁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그후부터 보내오는 편지의 내용은 무척이나 진지했고 사회를 증오하던 말도 점차 누그러들었다.

이 때문인지 나는 요즘도 시간만 나면 경전을 뒤적이고 책방을 찾는다.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감로수를 목말라하는 또다른 피고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이다.

불법 되새기며 인연의 고리 풀어

목말라 하는 피고인 변호위해 노력



가격파괴!

통신강의 테이프 판매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사찰업무에 바쁘신 관계로 강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기 어려운 스님과 재가불자님의 전문적인 불교 공부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 테이프를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테이프 목록 ◆◆

번호	강 의 명	법 사	테이프갯수	비 고
1	능엄경	법각성 큰스님	95(120분용)	강의록 93회
2	대승기신론	"	23(120분용)	강의록 17회
3	화엄사상특강 1(개론)	"	33(120분용)	교재1권
4	화엄사상특강 2	"	25(120분용)	교재1권
	- 보현행원품		1(120분용)	
	- 수심결		5(120분용)	
	- 원돈성불론		8(120분용)	
	- 증도가		5(120분용)	
	- 신심명		2(120분용)	
	- 전등록		4(120분용)	
5	원각경	법각성 큰스님	20(120분용)	탄허대종사 역해본
6	금강경	"	11(120분용)	"
7	육조단경	"	23(120분용)	"
8	영가집	"	17(120분용)	"
9	서장	"	16(120분용)	"
10	화엄경합론 회석	"	42(120분용)	강의록 29회
11	법화경	"	12(120분용)	원전 강의
12	화엄경원전 80권 및 화엄론 40권(각성스님)	" (현 계속 강의중임)	136(120분용)	탄허대종사 역해본
13	대학직지 중용직지(각성스님)	법각성 큰스님	26(60,90분용)	지욱대사 역해본 감산대사 역해본
14	주역선해	"	345(60,90분용)	탄허대종사 역해본
15	장자남화경	"	59(120분용)	감산대사 원본
16	불교기초교리	"	7(120분용)	한정섭 · 압도스님
17	원인론강의특강	"	2(120분용)	각성스님 역해본
18	대학 중용(심백강교수)	심백강 교수	12(120분용)	원전강의
19	불교사상강좌(근본불교)	최봉수 교수 (동국대 교수)	36(120분용)	논문집 1권
20	불교사상강좌(대승불교)	최봉수 교수	36(120분용)	논문집 1권
2	불교사상강좌	"	36(120분용)	

■ 가 격 : 테이프 1개당 2,000원(우송료 포함, 교재비 별도)
■ 입금처 : 213-026160-04-013(기업은행)탄허불교문화재단
■ 문의처 : 탄허불교문화재단 사무국 02)237-4438 FAX.02)237-4439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

· 설법 게송집 ·

'멋대로 부른 노래'

- 산거스님(淨宇)스님의 설법게송집① -



170쪽/값 4,000원

⊙ 속이 답답하신 분은 이책을 읽으세요.
⊙ 마음을 잡지 못하시는 분은 이책을 읽어 보십시요.
⊙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 아직도 불교의 속뜻을 모르시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요.

그저 심심풀이로 한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는 책이 되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노래를 서너번이라도 읊조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산거지(淨宇) 합장-

■펴낸곳 : 경서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T. 02)733-3345~6 F. 02)722-7787

젊은 佛子여 내일을 열자!!!

- 믿음 기술 자금으로 2001년 主人公이 되자 -

자연계는 섭리세계(攝理世界)의 궤도이탈(軌道離脫)로 혼돈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인간생활은 자기부정(自己否定)의 극한상황 속에서 생존경쟁으로 빚어진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황량(荒凉)한 생명의 여백(餘白)을 믿음을 통한 인성회복(人性回復) 노작생활(勞作生活)을 통하여 기술습득과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36개월후 당당하게 내일의 주인공으로 출사(出師)코저 한다.

• 참 고 사 항 •

1. 불자가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호국영령의 자손 가운데 공업고(工業高) 수료와 병역의무를 필한다.
2. 36개월 공동생활 장소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1,350평 위에 4개동의 건물 준비
3. 원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방대학원, 외교연구원 수료, 고희를 맞아 평생의 숙원을 결실코자 함.
4. 통신연락은 팩스(FAX): 02)925-1661로 가능하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명기할 것, 팩스접수후 회신함.

1998년 5월

忠孝文化院

문화단신

선암스님 사진집 '蓮'



27년간 연꽃을 렌즈에 담아온 선암스님(신촌 봉원사 사회부장)이 사진집 '蓮'을 발간했다. 이 사진집에는 가시연 등 희귀 연꽃과 사계절의 연꽃의 다양한 모습 200컷이 올 칼라로 담겨있다. 값 5만원

서울 · 제주서 '선면전'

단오절을 맞아 제9회 한국선면전이 22~28일 서울 붓데갤러리(02-726-4428) 6월4~10일 제주시문예회관(064-54-5211)에서 열린다.

한국선면예술가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선면전에는 법성 · 일당스님, 황남채 강행복 강순희 씨 등의 불교작품과 산수화 화조도 등이 그려진 아름다운 부채 1백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현대무용

'반야'

오현옥씨 안무
26 · 27일
동숭동 문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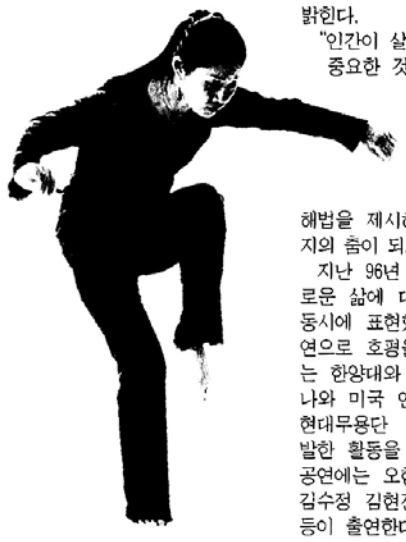
사성제 몸짓 형상화

암울한 이 시대. 경제난국으로 더욱 초조하고 삶의 좌표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 시대인들에게 불교 가르침의 핵심인 4성제(四聖諦)를 몸짓으로 형상화시킨 현대무용 발표회가 열린다.

불자 무용가 오현옥씨는 26 · 27일 양일간 저녁 7시30분 동숭동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직접 안무한 '반야'를 공연한다.

'반야'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된다. 무대는 3~4분간 적멸이 흐르며 아무것도 없는 무(無)로 시작된다. 제1장 '고제(苦諦)의 춤'에서는 인간이 사는 현실세계가 필연적으로 고통의 세계임을, 2장 '집제(集諦)의 춤'에서는 사람이 미혹속에서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것은 번뇌에 의한 무명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3장 '멸제(滅諦)의 춤'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리석음과 욕심이라는 번뇌를 멀각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4장 '도제(道諦)의 춤'에서는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나아가려면 갈애와 무명을 끊기 위한 수행실천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 '반야'는 모든 괴로움이 존재하는 이 언덕을 건너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그곳, 열반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정진과 지혜에 대한 희구를 가장 열정적이고 원초적인 몸짓언어인 춤으로 토해낸다.

요즘 반야심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오현옥씨는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춤으로 형상화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지만 내 평생 끝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라며 무용 '반야'를 연작 시리즈로 만들어 나갈 것을 서원했다고 밝힌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야'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해법을 제시해주는 근원적인 여지의 춤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 유태인학살과 평화로운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동시에 표현했던 '가스챔버' 공연으로 호평을 받았던 오현옥씨는 한양대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나와 미국 연수를 마친후 현재 현대무용단 '탑'의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오현옥씨 외에 김미경 김수정 김현진 유희주 박소현씨 등이 출연한다. 선화가 성륜스님이 무대미술을 맡았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9〉

작은 시내 저절로 빙 둘려

金塘小澗自澄洄 황금 못 작은 시내 저절로 빙 둘려
(금당소간자영회)
芳草垂楊一洞開 꽃다운 풀 늘어진 버들 한 골짜기 열리다
(방초수양일동개)
春入雲山長不出 봄은 구름 산에 들어 오래 나가지 않고
(춘입운산장불출)
水流人世定無回 물은 속세로 흘러 돌아올 기약 없다
(수류인세정무회)
行持研匣時潤筆 벼루 집 갖고 다녀 때로 붓을 적시고
(행지연갑시유필)
坐擁茶爐試畵灰 차 화로 끼고 앉아 재에다 글씨 쓰다
(좌옹다로시화회)
憶與琴湖遊岸上 금호강 언덕에서 놀았던 기억 있으니
(억여금호유안상)
幾年玄觀賞桃來 어느해 오묘한 관상으로 복사꽃 보고 왔던가.
(기년현관상도래)

연파대사의 '장춘동잡시(長春洞雜詩)'의 하나이다. 장춘동은 해남의 두륜산으로 온 골짜기가 다 유채꽃이어서 장춘동이라 한다고 주석을 붙여 놓았다. 연작으로 된 12수이다.

유채꽃으로 어우러져 있기에 황금의 못인 금당인가 보다. 여기서 흐르는 물과 작은 시내에서 흐르는 물이 동리를 에워 흐르고 있는 것이다. 그 옆으로 수양 방초가 늘어져 있다. 이 수양버들이나 곷다운 풀은 봄의 전령사이다. 이들이 봄을 실어다 준 것이다. 그러기에 봄이 운산으로 들었다 하였다. 이렇게 한 번 들어온 봄은 나가지를 않는다. 길이 나가지 않다 하였다. 구름산이라 하였으니 들어온 봄이 길을 잃어 나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 이 산골은 항시 봄인 셈이다.

그러나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다. 물은 속세로 흘려내려 돌아오지 못한다. 산사의 이 그윽한 소식을 전하느라 돌아오지 못하는 것인가. 이 대구의 묘가 재미있다. 가고 옴이 대칭이 되어 자연의 조화를 돋보이게 한다. 대사는 스님이자 시인일이 분명하다. 문방사우를 주변에 두고 있다. 나들이의 걸음에도 붓과 벼루를 가지고 다닌다. 시상이 떠오르면 어디에서나 붓에 먹을 물한다. 참으로 운치있는 일이다. 화로 옆에 앉아서도 붉 꺼진 재에다 글씨를 쓴다. 잡기 없는 한 신선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서 본 몇 편의 시들도 이러한 즉흥과 여운의 멋에서 나온 것이라 상상된다.

모든 존재나 삶이 대칭의 맞물림이 있는 법이니, 산 속의 한가함이나 적요함은 때로는 바깥 세상을 동경 아닌 궁궁함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대사도 그 어느 시절엔가 함께 감상했던 산아래 마을의 복사꽃이 생각났다. 산속의 봄에서 산 밖의 봄을 그리는 것이다. 역시 승 · 속을 어우른 스님의 자세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세 주인공 자기와의 한판싸움

박일문씨 구도소설 '적멸' 펴내


◇박일문씨

반승반속(半僧半俗)의 떠돌이 삶을 살아온 작가 박일문씨(37)가 구도소설 〈적멸〉(민음사 刊)을 펴냈다. 저자는 세계와 자기와의 한판 싸움을 벌이는 인간들의 처절한 모습을 그리면서 '적멸'이라는 절대미를 완성해낸다.

〈적멸〉은 불교 세계를 그리려 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오묘한 무대가 되기에 충분한 영주 부석사 두량수전을 공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화려한 화엄의 경지, 선정삼매의 경지가 아닌 거칠고 거친 불교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도사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 순수행각하는 구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바로 '적멸'임을 말한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마저 죽자, 운수는 출가를 결심하고 부석사로 들어가서 무애, 적묵, 학능 스님과 함께 수도하는 과정이 줄거리의 축을 이룬다. 무애는 술과 계집질을 일삼는 괴각행각을 벌이면서 화두선이든, 참선이든 모든 수행방법을 거부하고 조롱한다. 적묵은 의진 암자에서 묵언정진하다 마침내 소신공양을 택한다. 학능은 선(禪)보다는 교(敎)에 가까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늘 조용히 수행한다. 그리고 이들 인물과 기이한 인연을 지닌 선묘라는 여인이 춤추듯이 여기저기 색정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명명된 무애(無涯) 적묵(寂墨) 학능(學能)은 말 그대로 인물의 성격 혹은 존재론적 표상과 직결된다. 그러나 저자거리에서 장삼이사의 삶을 껴안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무애의 대승적 깨달음의 지향이나 적묵의 소승적 용맹정진은 방법은 다르지만 적멸화엄을 향한 본질은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에다 적묵스님을 사랑하는 선묘의 애절한 구애와 그녀의 죽음은 애욕의 덧없음을 새긴다.

92년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 제16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 박씨는 고교시절 출가한 이후 출가와 환속을 되풀이하다 88년 백양사 말사 문빈정사에서 본격적인 수도생활을 했다. 문단에 데뷔한 뒤 산에서 내려와 대승적 삶을 택한 자신의 이력이 〈적멸〉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

달마대사 인터넷에 떴다

조신우씨 '달선재마성' 홈페이지 개설

중국 선불교의 초조 달마대사가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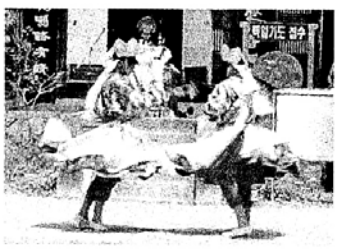
경남 창원의 원로 불교미술가 조신우옹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에 '달선재 마성(達禪齋 摩性)'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달마대사 8폭병풍 등 자신이 한지에 그린 각종 달마그림 5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이 사이트는 우리말과 일본어로 돼 있으며, 달마대사를 인터넷으로 감상하는 것은 물론 작품구입도 가능하다. 주소는 'http//user.chollian.net/~shift200'

부탄예술단 라마춤 공연

부탄의 라마승 11명이 19일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에서 전통 티벳 라마춤을 선보였다. 10월31일까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에서 열리는 '티벳불교미술 특별전' 기념으로 방한한 부탄예술단은 불보살을 찬탄하고 번뇌와 수행의 장애를 소멸시킨다는 의미의 화려하고 유연한 라마춤을 소개했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린포체가 마정수기를 실시했다. 〈보성=주용직 지사장〉



◇부탄예술단은 19일 보성 대원사에서 전통 티벳 라마춤을 선보이고 있다.

"용주사 삼불회도 김홍도作 아니다"

문명대교수-김경섭씨 공동연구 발표

"1910년대 축연 · 철유스님등 화승 작품"

18세기 말 김홍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용주사 삼불회도(三佛會圖)가 1910년대 축연(竺衍)스님 등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한국미술사연구소 제57회 강좌미술사 학술발표회에서 문명대교수(동국대 미술학과)와 김경섭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용주사 삼불회탱(도)의 연구'라는 공동연구 발표에서 "전면화된 서양명암법에 의한 채색, 현실주의적인 형태, 혼탁해진 중간 채색 등 용주사 불화의 사실적 현실주의 양식은 18세기 말 불화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양화의 유입으로 인해 이상적인 불격보다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된 근대불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밝혔다.

김경섭연구원은 용주사 삼불회도를 김홍도작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는 다른 불화와의 양식비교 없이 지나치게 문헌기록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탁월한 구성의 묘와 얼굴을 비롯한 피부 전체의 음영법은 조선후기 불화나 초상화에 사용되던 기법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를 길고 늘씬하게 그리는 인체표현법도 감로왕도의 존상 등 조선후기 불화에 자주 나타나 김홍도만의 기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홍도作이 아니라 1910년대 조성된 근대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용주사 '삼불회도'(부분).

문명대교수는 "용주사 창건시 불화제작에 25명의 화승과 함께 김홍도가 참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때 조성된 삼불회도는 어떤 이유로 사라지고 새로이 조성된 작품을 봉안했을 것"이라며 "그 시기는 용주사가 경기이남의 대본산이 됐던 1912년에서 1915년 사이이며 조성자는 1913년에 용주사 신중도를 그렸던 축연 · 철유 등 금강산 일대에서 활약했던 화승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석〉

慶 大한불자 예술인 연합 대법회 祝

■ 일 시 : 1998년 5월 28일(음5.3) 목요일 오후 5시 ■ 장 소 :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Hotel Sofitel Ambassador)

◎ 대한불자예술인연합회 회원명단 ◎

·총 지 도 법 사 : 한 자 응 스님
·지도 기획실장 : 석 청 암 스님

고 문 박상규 박철언 권익현 김명륜 김덕룡 김종서 장한기 박규채
회 장 (탤런트)이성웅
부 회 장 (탤런트)태현실, 이정웅, 박주아, (가수)남진
이 사 (탤런트)이목원, 박웅, 이덕화, 서우림, 전원주
(가 수)명국환, 한명숙, 남강수 (국악인)김백국, (코미디언)김영하
운영이사 이재락
감 사 정이동
사무국장 (탤런트)김진오, 사무차장 : 자해성
홍보부장 고상신, 홍보차장 월성광
기획차장 자광화, 기획과장 혜자광
탤 런 트 강태기 권경하 고희준 곽정희 김시원 김원배 김동완 김성겸 김 청 김혜정 김보미 박태민 박병호 박경순 박윤배 박상만 박용식 김하림 백찬기 박광남 반문섭 맹상훈 변희봉 이대로 임영식 유승봉 임문수 이춘식 이도련 양재원 임대호 서갑숙 신충식 전인택 장칠군 정성모 전희룡 최한호 황 민 오영갑 장미자
가 수 김활선 정해순 한영애 김하정 김태곤 차광구 김수연 정재덕 이도형 오영애 거루와다래
코미디언 이기철
성 우 이의선
국 악 인 이은관 이만석 김영빈 박성현 남궁랑 이유라 황정아 이 형 김명순 김순영 조성자
무 용 장윤영 이명희

◆법어 : 송월주 큰스님 ◆격려사 : 성암도 스님, 이성웅 스님

● 자문위원(스님)
천운 정민 광민 연암 혜인 법성 해성 혜령 연담 세진 성우 법해
정명 보경 황정 은일 동광 보선 현공 진공 대우 무애 상운 무염
혜명 법기 선우 보륜 성수 법두 혜안 관진 덕본 향공 혜관 성근
무공 적일 혜능 명신 진천 현법 진관 성심 혜성 도산 정원 지형
현오 선래 대권 지우 명진 법관 법지 정각 부용 영조 현진 지산
창법 지문 혜월 경송 탄우 지상 동산 광해 청허 송묵 정수 청하
귀영 정욱 법농 지철 영담 서광 만다 대광 관용 정법 자암 법륜
대몽 혜성 원종 종후 성타 법용 증견 법열 법안 묘봉
법수원 원송정사 수성정사 혜인정사 효암정사 수성정사 의강정사 지성정사 〈무순〉

● 자문위원(재가불자)
오형근 이해덕 최수봉 정정선 하정효 이동영 신홍룡 이윤신 김석우
서종욱 박재용 장정규 최실광 이정기 정덕증 〈무순〉

대한불자 예술인 연합회 · 대표: (02)655-0533 · 섭외부: 655-0534 FAX. 655-0534 · 기획실: 823-9136 FAX. 823-9134

도서출판 여시아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당신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초펠스님 한글 번역



티벳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구하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진짜 재산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티벳 사람들을 가난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부처님께 신심없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음 자체 보다는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기초수행을 강조한다. 서구에서 불고 있는 불교 바람을 티벳불교가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낸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201' 생활불교 첫 번째 권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바로 깨달음의 궁극보다는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한 책. 티벳불교 대표 종단인 겔룩파의 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티벳 학승 초펠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초심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한국 실정에 맞게 편역했다. 특히 이 책은 우리불교사에서 처음으로 티벳스님이 그들의 성전을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상징적 의미도 지닌다.

〈보리도차제〉는 티벳에서 제2의 부처로 추앙받는 쫑카빠 대사(1357~1419)의 대표적인 저술로, 석가 세존으로부터 용수와 무착으로 이어진 대승불교의 전통을 설명하고 초발심에서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해 보살의 서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이 경전을 명상하듯 읽으면 바람직한 생활규범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고 초펠스님은 말한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는 '〈보리도차제〉의 유래' '〈보리도차제〉를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가르침을 듣는 방법과 가르치는 방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 등 총 4장에 걸쳐 진정한 생활불교란 곧 앎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 책이 제시하는 요점은 〈보리도차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있다. 그 요체는 수행 동기의 세 가지 차원을 밝힌 '삼사도(三士道)'이다. 수행의 처음 단계인 하사도(下士道)는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윤회의 좀더 높은 단계로 환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중간 단계인 중사도(中士道)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 수행해 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 최상의 단계인 상사도(上士道)는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닦아 중생들을 구원하는 법문을 담고 있다.

다만 티벳불교의 전설·설화 등은 읽기에 따라서는 낯선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티벳 사람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철학이 우리와 다름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는 무리가 없다. 오히려 이같은 상징들을 신비적 신앙행위로 낮추기 보다 그들의 원초적인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책은 분명 불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모범답안이 될 것이다. 이번 출간에 앞서 현대불교신문은 152호(97. 11. 26)부터 156호(97. 12. 24)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초펠스님 번역 〈보리도차제〉를 간추려 소개해 호평을 받았었다.

한명우 기자

'보리도차제'의 유래
가르침을 듣는 방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 등
수행의 요점 간추려



유마경이야기 관음경이야기

마치 경전을 수필 읽듯…





민족사가 경전을 이야기 식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다시보는 경전' 시리즈 1·2권인 〈유마경 이야기〉와 〈관음경 이야기〉를 펴냈다.

두 권 모두 경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한 후 경전 전개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자구해석이 아닌 수필식 이야기 전개가 특징이다. 즉 이 경전이 어떤 경전이며,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하며,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누군가와 마주앉아 대화하듯 풀어나간다.

혜원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이 쓴 〈유마경 이야기〉는 제1불국품에 제14촉루품까지 모두 이와 같은 형식으로 경전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관음경 이야기〉는 저자 동봉스님(우리절 주지)이 일상적 단편을 매개로 경전의 의미를 되새긴다.

"대장경 판각 주역은 일연스님"

김정학PD '일연선사…' 펴내



방송 프로듀서가 책을 냈다. 그것도 읽기 쉬운 수필이 아닌 역사와 한 인물에 대한 새로운 고증을 갈망하는 학술서적류의 책을.

김정학PD(대구방송·前 불교방송 프로듀서)는 〈일연선사로 팔만대장경을 본다〉(페이지원 刊)에서 "일연스님이 그려대장경 판각의 주역임을 역설하고, 판각장소인 남해분사도감과 정림사의 분명한 유허지를 찾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 책은 불교방송에서 방송됐던 4부작 다큐멘터리 '역사기행-삼국유사의 현장을 찾아서'와 2부작 다큐멘터리 '일연스님과 대장경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남해분사도감과 팔만대장경, 그리고 일연스님에 관한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해 분사도감과 정림사, 일연스님을 둘러싼 역사적 개연성을 포괄하고 있다.

해외신간

노상에서



1959년 이후 미국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불교소설은 단연 〈노상에서(On the Road)〉다. 잭 케로악(美)이 쓴 이 책은 주인공 살 파라다이스(Sal Paradise)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의 패러디이며, 당시 비트세대들은 파라다이스의 삶을 닮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Viking Pr 출판사 刊. (p.p. 352, ISBN 0670874787)

선과 두뇌



〈선과 두뇌(Zen and the Brain)〉는 선불교의 깨달음을 지속적인 정신생리학의 생리·화학작용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美 콜로라도대학 신경학 명예교수이며 참선 수행자인 제임스 H. 오스틴이 쓴 이 책은 '명상' '의식탐험' '전념(專念)' '깨달음' 등 총 8장으로 구성됐으며 〈반야심경〉을 별첨해 놓았다. MIT 출판사 刊. (p.p. 1056, ISBN 0262011646)

이기영박사 추모전집 둘째권

'다시쓰는 한국불교 유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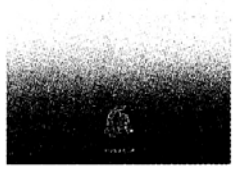
한국불교학계의 거봉으로 지난 96년 타계한 불연 이기영 박사. 불교에 대한 애정과 불법에 대한 투철한 신념, 학문에의 열정이 남달랐던 이박사의 추모전집 두번째 권이 나왔다.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엮은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한국불교연구원 刊)은 '불교는 이 시대에 맞게 새로워져야 하고 불교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이념이 돼야 한다'는 이박사의 신념을 그대로 담았다. 이박사의 불교관계 미간행 논설, 법문들 수백편 가운데 60편을 뽑아 엮었다.

'나는 오늘의 한국불교가 국내외로부터 받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정법의 구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질타와 '참고 용서하며, 법의 본질을 따라 세상의 칭찬이나 욕설이나 핍박에 동요되지 않고 바라밀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등의 불자와 승단에 대한 애정어린 고언이 스며있다. '불교의 본질과 이상' '세간과 출세간' '불자의 길, 보살의 길'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주제아래 60여가지의 얘기들로 묶여져 있다.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



이 책은 지난해 발간된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에 이은 '불연 이기영 전집'의 두 번째(제18집) 권으로, 한국불교연구원은 이기영 박사가 남긴 저서와 역서, 논문과 수필, 법문, 강의록 등을 총망라해 순차적으로 34권을 펴낼 계획이다.

'불교예술' 창간호 나왔다



〈불교예술〉 창간호가 나왔다. 한국문화예술인법회(회장 김흥우·발행인)가 펴낸 〈불교예술〉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회원들의 예술 발표의 장으로 삼기 위한 문화예술인 법회 회지로 1년에 1회에서 4회정도 발행된다.

이번 창간호는 '불경 속의 식물'(송홍선) 등 수필 및 기행문 6편과, 희곡 1편, 시 23편 등 문학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제종불교 전통의례의 기원·역사와 그 사상성'(홍윤식) 등 학술논문 3편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멋대로 부른 노래 정우스님 지음

진정한 삶의 모습 노래한 게송 모음집



"제멋대로 부르는 노래에 무슨 형식이 있고 구색이 있겠는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그만이지. 그래도 부처님 노래니' 서너번 읊조리다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산거지스님으로 알려진 정우스님(선경암 주지)이 펴낸 〈멋대로 부른 노래〉는 10여년간 사찰과 각종 신행단체 법회에서 설법할 때마다 한구절씩 읊었던 게송을 모은 책. 부처님 사상과 신행, 교리에 대한 내용을 담으면서 평화롭고 인정 넘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한글로 된 게송을 소개하고 쉽게 뜻풀이를 해놓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경서원, 4천원〉

화제의 책

이뭣꼬 이청 지음

큰스님들의 육성으로 듣는 선의 핵심



"세상에 태어난 까닭이 이것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선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는 세상, 선불교의 전통을 지닌 세상에 태어난 인연이야말로 고마운 일이다." 선 속으로 들어가 있는 스님들은 선을 이렇게 말한다. 〈이뭣꼬〉는 위대한 선사들이 걸어갔던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 한국불교의 선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 선원에서 어떤 모습으로 참선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저자 이청씨가 전국 유명 선원을 방문해 성철 경봉 서암 진제 스님 등 입적했거나 생존해 있는 큰스님들과 선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육성을 통해 선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불교영상회 보사, 7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2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3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4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99찍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5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율 순	신 우 당
6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7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신 규 탁	장 경 각
8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9	명상체험여행	박 석	모 색
10	밀교강좌	혜 정	출판시대

구입문의:(02)737-0695

원·혜·스·님·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



열린 마음은 모든 것의 출발

불교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포교에 애쓰는 원혜 스님의 수상집 《열린마음 열린불교》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진리를 체득한 수도자의 지혜가 한올한올 엮어져 있다.

'저는 열린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는 一切唯心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갑자기 열린 세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세계가 열립니다.' -본문에서

'나 하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스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열린 눈, 열린 가슴'으로 보는 수행자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과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원혜 스님 지음/신국판 307면/값 8,000원



죽비 꺾는 아침
미국으로 인도로 파리로 엷고 먼 길을 흐르며 엮은 운수납자 지욱스님의 청정한 죽비소리.
지욱 지음/7,000원



둥지마을 이야기
대부도에서 외로운 고아들을 돕보며 살아가는 둥지마을 아빠 스님 법현의 수상집
법현 지음/5,000원

백팔번뇌
8만4천의 법문 중 어려운 인생문제에 적합한 말씀의 구절을 골라 내어 모았다
현재훈 역/7,000원

불교입문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해설, 정립한 입문서로 해박한 불교지식을 접할 수 있다
홍사성 역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팩스 (02)393-9696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요

덕진스님 포교·수행담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부처님 말씀 귀기울이면 모든 악운이 사라진다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 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이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인생묘약' '똥싸서 위안하다' '무소유의 기쁨' '잘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 아래 덕진 스님의 경험담이 진솔하고 재미있게 담겨 있다.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를 읽는 동안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덕진 스님 지음/신국판 288면/값 8,000원



우리출판사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93-5

"고구려 승랑대사의 삼론학 中·日 대승불교학 기초"

한국불교학회 '승랑 상승의 대승진리론' 세미나

중국 대승교학의 선구인 삼론학(三論學)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고구려의 구법승 승랑(僧朗·생몰연대 미상)이 중국불교에 미친 역사를 조명한 세미나가 교계에서 처음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는 21일 동국대 소강당에서 '승랑 상승(相承)의 대승진리론'을 주제로 제29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갖고, △대승 반야사상이 동점(東漸)·이해·정착되는 과정 △승랑에 의해 중도론(中道論)으로 개진된 내용 △승랑 상승으로 형성된 삼론종(三論宗)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했다.

'승랑대사의 중도론'을 통해 김인덕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불교의 중도(中道)가 승랑대사의 '삼종중도(三種中道)'에 의해 가장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다"며 "중국 제일의 석학으로 저작도 많이 한 길장(吉藏)도 오로지 승랑의 가르침에 의해 정법 진리를 올바르게 밝혀내고 있는 사실에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랑대사가 전개한 삼종중도는 세제중도(世諦中道)·진제중도(眞諦中道)·이제합명중도(二諦合明中道)의 세가지 진리성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진리를 뜻하는 진속(眞俗) 이제(二諦)의 개념에서 '중도'라는 불교 근본진리를 새롭게 변증해 낸 것. 승랑은 '중생의 인연법은 공이고, 가명(假名)이며 중도의 (中道義)다'고 한 삼시게(三是偈)에 바탕, 삼종중도론을 전개했다. 김교수는 "승랑의 삼종중도론은 '반야' '공성(空性)' 파악 으로 흐르는 중국불교계에 '중도'라는 불교 정법 진리를 알려 '자행이타(自行利他)의 대승이념을 철저히 실현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교수(동국대 명예교수)는 '삼론정맥(三論正脈) 청의학통(靑衣學統)의 사적 전개'에서 승랑 이후 삼론학의 역사적 전개를 밝히는 가운데 승랑을 조사(祖師)로 하는 계통을 '청의학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일컬어 눈길을 끌었다.

김교수는 "승랑을 비롯한 역대 삼론종의 학장(學匠)들이 청의, 푸른 장삼가사를 입었다는 사실을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청의를 입은 학승들에 의한 삼론학의 정통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붙여보았다"고 밝혔다. 〈속고승전(續高僧傳)〉 등에서 승랑 이후 법랑(法朗), 길장, 혜관(慧灌)으로 이어지는 제자들이 모두 청의를 입었던 사실이 보인다는 것. 이어 김교수는 "승랑 이후의 삼론학은 당대(唐代)에 이르러 현장(玄奘)이 전래한 유식법상학(唯識法相學)의 흥성으로 쇠퇴했으나 외형적 모습만 사라졌을 뿐 중국교학 연구의 체계확립에 선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삼론학이 고구려 승려 승랑에 의해 이룩된 것이 틀림없음에도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삼론종의 학승과 관계문헌을 국내자료에서 볼 수 없으나 해외 사료(史料) 등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고, 삼론학이 중국불교학의 선구가 됐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 혜학(慧學)이 되어 일본에까지 전하는 등 교학과 선 수행의 근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 계환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반야사상의 동점과 그 이해'를, 김용표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라집삼장(羅什三藏)에 의한 대승정착', 김하우 교수(고려대 철학과)는 '라집문하 승조(僧肇)의 반야공관'을 각각 발표했다.

김정은 기자



◇21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정확한 불교원전 번역위해 한문-교리-동·서양 철학 연구"

은정희 교수 지적



◇은정희 교수

정확한 불교원전의 번역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이뤄져야할까.

이예대해 23일 열린 제6회 백련불교아카데미에서 은정희 교수(서울교대·윤리교육)는 '한문 원전번역에 관한 문제'를 발표하고 "장기간의 한문연수와 불교기초교리연구, 동·서양철학의 병행연구 등이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교수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된 불교가 대중속으로 파고드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불교원전이 우리말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며 "중국불교의 역사가 인도 원전을 중국어로 번역한 역사와 등가(等價)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번역의 중요성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불교원전 번역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포함한 중국의 제가서(諸家書)와 불가(佛家)를 바탕으로한 장기간의 한문연수. 둘째, 초기불교에서 구사·유식·화엄·선에 이르는 불교학 기초교리 연구. 셋째, 동양과 서양 철학 일반에 대한 연구 병행. 넷째, 철저한 주석과 번역작업을 위한 번역대상서와 관련 전문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교수는 "이상의 번역 작업을 위해서는 팀을 구성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전번역을 하겠다는 꾸준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불교유학생 관리 철저히"

이경순씨 불학硏 세미나서 주장



◇이경순씨

일제시대 불교 유학생의 동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불교유학생들은 불교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자주성 수호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대불교의 승가교육'을 주제로 25일 열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밀원스님) 춘계세미나에서 이경순씨(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 연구원)는 '일제시대 불교 유학생의 동향-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을 통해 "1910년대부터 파견된 유학생 수는 1920년대 그 수가 증가하면서 배태된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 문제는 현대 한국불교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일제시대 출판된 불교잡지 등에서 추출한 360명을 대상으로 일제시대 불교유학생의 양상을 분석한 이씨는 당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본사간의 무분별한 유학생 파견 경쟁 △유학생 관리의 소홀 △취처(取妻)를 비롯한 유학생의 세속화 경향 △귀국후의 환속 등을 지적했다.

이씨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들이 환속해 버림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재들과 엄청난 양의 삼보정재를 손실케 했다"며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본다면 오늘날에도 교단차원에서 유학생들의 귀국후 그들을 교단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제의 종교정책(김순석·호서대 겸임교수) △일제하 승가교육과 근대화(정혜정·동국대 강사) △1930년대 강원제도 개선문제(김광식·독립운동사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학술단신

종교교육학회 세미나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29일~30일 대진대 국제회의장에서 '근대에 있어서 한국종교의 개혁사상'을 주제로 9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에 있어서 개혁사상'(김광식·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등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02)278-6956

성철硏 7개 윤독회 지원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98년도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윤독회를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윤독회는 불교경학연구회(일지스님·수국사), 부산대 불교독경회(이진오), 구결학회(고영근·서울대 교수), 경주남산윤독회(이만·동국대) 등 모두 7곳으로 각각 1백만원씩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된다.

'종교연구' 15집 발간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는 춘계학술지 〈종교연구〉 제15집을 발간했다.

97년 추계학술세미나 '해방후 종교 50년'에서 발표된 △해방후 50년의 한국 종교사회학 연구사 등 12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02)880-6237

국제소식

티벳 판첸라마 中억류설 '증폭'

中 정부 '보호'시인

지난 95년 5월 티벳 제2의 정신적 지도자 판첸 라마로 지명된 뒤 행방불명된 게둔 초키 니마(8)가 현재 중국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국 당국의 감금설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판첸 라마의 행방 불명설이나 감금설을 부인해오던 중국 당국은 최근 "니마 소년은 현재 중국의 한 지방성에서 당국의 보호아래 잘 있다"고 밝혀 그가 중국에 있음을 공식 시인했다.

한편 판첸 라마가 행방불명된 직후 중국 정부의 감금설을 주장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한 티벳 망명정부 및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에 그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니마 소년을 11대 판첸 라마로 임명하자 즉각 그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다른 티벳 소년을 판첸 라마로 지명해 티벳을 비롯한 세계 전지역 라마교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국가 민주운동

티벳 망명정부 사이트 등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전세계에 민주화 운동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이 티벳, 베트남, 미얀마 등 불교국가의 반독재·민주화 투쟁의 강력한 도구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름하여 '사이버 파워(Cyber Power)'. 필리핀의 민주화 투쟁을 의미하는 '피플 파워(People Power)'에서 유추된 이름이다.

컴퓨터와 모뎀,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지구상 대부분 지역에서 즉시 생생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도 바로 개진할 수 있어, 특히 언로(言路)가 막혀있는 아시아 불교국가들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터넷 통신을 통한 민주화 투쟁의 원조는 티벳. 1959년 중국 강점 이후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운 티벳은 △망명정부(http://www.tibet.com) 사이트를 개설하고 정치·사회, 종교·문화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티벳 독립의 국제적 여론 형성에 공헌하고 있다. 또 美 영화배우 리처드기어가 공동회장으로 있는 △티벳을 위한 캠페인(http://www.savetibet.org) 사이트는 달라이 라마의 독립운동을 측면에서 돕고 있다. 이 사이트는 중국 주석 강택민에게 편지 보내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민주화 투쟁의 원조는 미얀마. 지난 95년 미국에서 창립된 △자유버마연합(http://www.freeburma.org)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1백여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인권운동가와 세계 26개국 관련단체들이 연결되어 있어 세계적인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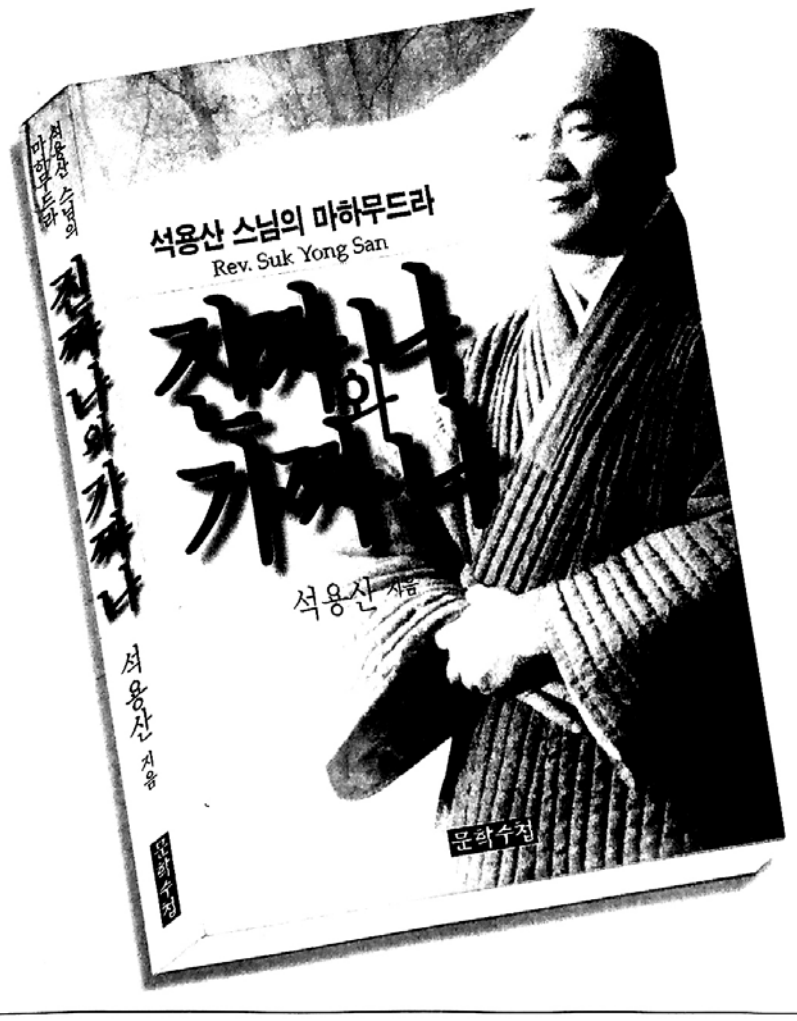
작년 훈센 총리의 유혈 쿠데타 이후 언론 암흑 시대로 들어간 캄보디아에선 미국내 망명단체가 개설한 △통신망(http://www.kreative.net/knp)이 민주화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쿠데타 주모자 훈센 이름을 딴 '캄보디아 민중 대 훈센' 서비스에서는 양측의 대결 상황이 매일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통신이 시작된 베트남의 경우 △자유베트남 연합(http://www.fva.org) 등 여러개의 인터넷 통신이 있다. 과거 '보트피플'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이제 미국을 위시해 여러 국가에 사는 베트남인들이 제각기 인터넷을 개설,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일어난 관리들의 부정과 주민들의 항의시위 사건은 매스컴에는 보도가 안됐으나 한 통신 이용자가 인터넷 통신으로 알려 전세계에 소개됐다.

최근 외환위기 사회 혼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인터넷 사이트는 지하 정당인 인민민주당이 주축이 돼 만든 △인도네시아-L(http://www.indopubs.com/archives).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하루 이용자가 평균 13만명에 이르렀다.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인터넷에서 제공된 다양한 문서들이 복사·배포돼 읽혀지고 있다고 한다.

훈센이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은 자체 △홈페이지(http://www.cpp.com.kh)를 개설, 훈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의 소식과 사진을 열심히 싣고 있으나 이용자는 별로 없다고 한다.





왜, 침묵했던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진짜 나 가짜 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루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가슴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지음 | 신국판 350면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51

마조의 딱지돈 ②

혜능이 선의 실질적 창시자라면 마조(馬祖道一 709~788)는 그 중흥조라 할 수 있다. 사천지방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절을 드나들다가 열 두살에 출가했다. 산 속에서 혼자 수련하다가 어느날 남악회양(677~744)의 눈에 띄었다. 남악은 첫 눈에 그가 범상치 않은 그릇임을 알아보았다.

"자네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보시다시피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해서 무엇하려는가." 마조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며 이렇게 대답했다. "부처가 되려구요."

다음 날 남악은 마조의 선방 앞에서 기와를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사각대는 소리에 눈을 뜬 마조가 그에게 물었다. "무얼 하고 계십니까?" "보시다시피 기와를 갈고 있지." "뭐하시려고요?" "거울을 만들려네." 마조는 크게 웃으며, "원, 농담도. 기와를 갈아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남악은 마조의 말을 잡아채듯 말했다. "그렇지. 기와를 갈아 거울이 안된다면 퍼질러 앉은 좌선으로 어떻게 부처를 기약하는가." 쇠망치로 맞은 듯 얼얼한 마조가 회양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수레가 안 간다면 소를 쳐야 하는가, 바퀴를 쳐야 하는가." 마조는 대답이 없었다. "좌선이라고 앉은 부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된 원리는 얇거나 누움



그림 · 이준석

로 자란 그는 강서(江西)로 가서 독자적인 법을 폈고, 그 아래 수천의 기라성들이 선의 역사를 수놓기 시작했다. 남악과 마조의 만남은 선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찬연한 광휘 가운데 하나이다. 남악은 마조를 일깨우기 위해 하루를 참고, 다음날 선방 앞에서 천연스럽게 기와를 돌에 갈았다. 그 간절함과 노파심의 배려를 생각해 보라. 선에서 스승은 점잖은 강연투나 설교조의 손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선은 철두철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 스승은 다만 산파역을 맡을 뿐이다. 제자가 스스로 악어알을 깨고 나올 때쯤, 스승은 밖에서 어미닭처럼 쪼아줄 뿐이다. 타이밍이 너무 늦으면 질식하고, 너무 일러도 알을 상한다. 그를 일러 줄탁지기라 한다.

남악은 엉덩이를 물키며 선방을 지키고 앉은 마조의 뒤통수를 쳤다. 외면적 추구로는 비밀에 이를 수 없다. 문제는 마음인데 어째서 신체를 혹사하고 있는가. 좌선은 살아있는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틀에 마음과 몸을 가두는 부자연스런 질곡이다. "수레가 아니면, 바퀴를 쳐야 하는가, 말을 채찍질해야 하는가." 좌선은 절차이지 궁극이 아니며,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좌선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외물에 걸리지 않고, 궁극의 자리는 일정한 틀이 없다. 너의 따지고 가리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태도로 하여 부처가 질식하고 있음을 왜 모른단 말이냐." 이 말에 마조의 응어리진 속으로 시원한 감로수가 흘고 지나갔다.

기쁜 나머지 큰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정신의 영원한 고요와 평안(無相三昧)을 유지하겠습니까." "네가 마음의 근본에 대해 듣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너를 위해 그 비밀을 설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 인연으로 도(道)를 보게 될 것이다." "도는 빛깔도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마음바탕을 보는 눈이라야 도를 볼 수 있으니 무상삼매 또한 그렇다." "그것은 혹 성취되기도 하고 일실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내 게송을 들어보거라."

마음은 여러 종자를 품고 있으니,
비를 만나 다들 싹이 튼다.
삼매의 꽃은 형상이 없으니
어찌 이룩되거나 무너짐이 있으리.

마조는 이 말에 밑바닥에 남은 의심까지 떨쳐냈다. 이후 남악을 모시고 10년을 지내며 나날이 깊이를 더해갔다. 천리를 내달을 준마의 유혹과 침탈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위한 불교의 기초수련이다. 남악이 이 수련의 효과와 의미를 전면 부정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남악 또한 입문자에게는 선의 준비단계로 부엌일과 좌선을 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상대는 앞으로 선의 운명을 걸머쥐고 '천하를 짓밟을 천리마'이다. 남악은 단절된 공간에서 자폐적 법열에 젖어 있는 마조를 위해 최상승의 법문, 즉 혜능 이래의 돈오(頓悟)의 법문을 들려주었다.

엄격한 생활과 소승적 명상이 해탈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수행의 단계와 과지(果地)의 점차(漸次)를 설하는 방편론은 궁극의 깨달음을 오히려 방해한다. 부처와 중생 사이, 그리고 깨달음과 미혹 사이의 거리는 기실 아주 가깝다. 현실이 곧 궁극이고, 네가 곧 부처이다(卽心是佛). 지금 네가 그 본원의 걸림없는 세계를 네 스스로 흩트리고 있지 아니하냐. 너의 가리고 따지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태도로 하여,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한 종종의 장애로 하여 부처의 걸음이 뒤뚱거리고 있다.

이 말에 마조의 눈이 문득 열렸다. 그 사건은 초시간적인 순간, 즉 시간을 넘어선 영원 속에서 일어났다. 그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절대의 열림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따지고 취하는 태도에 부처 질식"

남악과 마조의 만남은 선종사에 찬연한 광휘

계 지키며 일체생명 위해 선행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1



팔정도의 네 번째 단계인 정업(바른 행동)은 전통적으로 계율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각으로 여겨왔다. '바른 행동'이 담고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산스크리트어의 아힘사(ahimsa)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유정 · 무정물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게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업 ①

아힘사 운동을 전개해 인도 독립의 초석을 다진 간디는 "자각과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선 사람은 반드시 자신처럼 모든 유정 · 무정물들을 사랑할 수 있다. 오직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종교는 정치적 영역에서 아무런 역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동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는 바른 행동이 토대가 된다. 바른 행동은 우리 수행의 핵심이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 수행의 계율들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마음을 분별없게 만드는 취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한마디로 일체 생명을 위해 자비심과 하심(下心)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계지킴으로써 하루하루의 생활을 소박하고 순수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계행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애롭고 고요하고 맑아 진다. 수행은 이러한 토양속에 무럭무럭 커갈 수 있는 것이다.

> **"어리석음 · 삿됨 품고 있는가 감정을 관찰 苦의 원인 알아 모든 존재에 해악 주지 말라"**

아잔차 스님은 "모든 악행을 삼가고 모든 선행을 행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고 항상 가르쳤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행은 가치없는 것을 없애고 가치있는 것을 간직하는 일이다. 아직도 우리는 무엇인가 삿되고 어리석은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물론 그럴 것이다. 그러니 왜 집을 말끔히 치우지 않는단 말인가?

참다운 수행으로써 이처럼 선행을 계발하고 악행을 제거하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우리는 선과 악을 모두 넘어서야만 한다. 그리하면 일체를 포용하는 자유를 찾게되고, 자비와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무욕의 경지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정치 · 경제 · 사회 현실이 복잡한 세간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해답을 바른 행동의 수행관에서 찾을 수 있다.

앰네스티(Amnesty)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진행중이며 정치 · 사회 · 사상적 문제로 고문 등의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직적인 폭력 외에도 인간은 살아가면서 모든 유정 · 무정물에게 헤아릴 수 없이 해를 입힌다.

이제 우리는 '왜 이같은 해악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왜 유정 · 무정물에게 상처를 주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해답은 해악을 끼치는 순간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배고픔, 상실감, 고통 등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증오, 미움, 탐욕, 집착 등과 같이 공격적인 감정으로 발전하다. 또 인간은 이 감정들은 지키기 위해 이기성에 뿌리를 둔 그릇된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해악의 길은 '나', '내것'과 같은 분별심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이같은 감정이 삶의 방식이 될 때이다.

바른 행동과 계지킴은 겉으로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는 내면의 알아차림과 자제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선한 의도로 행해지는 자선은 나와 남에게 모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순수한 자선행위를 위해서는 계행이 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바른 행동은 정원사가 크고 작은 나무에 얽매이지 않고 나무를 돌보듯이 우리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기에서 곧바로, 소박하게 시작해야 한다. 정견(正見)을 갖추는 정사유 정어의 단계를 마쳤을 때 정업은 나온다.

번역=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0

불교와 수학

55

잠자는 유전자

김 용 운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으며, 자연에 도전한다는 소리도 흔히 듣는다. 인간은 우주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달을 밟았으며, 복제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하게 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처음엔 겨우 '1, 2, 3' 정도의 수를 알아내고, 돌과 나무로 간단한 생활도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과학의 성과를 얻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기의 실타래 얽힘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큰 나뭇가지에 매달린 잎이 바람에 날려서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해 낼 수 없고, 또한 나뭇잎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흔히 결혼하면 아이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단지 아이를 낳고, 태어난 아이에게 적당한 영양을 제공하는 정도의 일을 할 뿐이며, 그 외의 모든 일은 절묘한 연기의 결과에 따른 생명원리의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는 작은 생명인 세포 하나도 만들 수 없다.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물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생각게 하는 중대한 물음이다.

'중생의 병은 마음에서 나온다(유마경)'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것을 곧이곧대로 해석하여, 마치 TV의 채널을 정하는 것처럼 마음먹기에 따라 어느 특정한 유전자의 단추를 눌러 병에 걸리기도 하고, 치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다. 사실 마음은 중요한 연기의 한 요소이며, 마음가짐이 연기의 고리에 여과되어 신체 조건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좋은 유전자를 자극하고, 나쁜 유전자를 억제하는 것이다. 마음의 발동이 하나의 연기의 요인이 되어 모든 유전자와의 긍정적인 협조를 자극하는 것이다.

> **70兆 인간 유전자 'ON-OFF' 되풀이 잠자는 세포 작용 시키면 깨달음 얻을 수 있다**

인간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전자가 있으나 대부분이 OFF의 상태에 있다. 아직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나, 이들 가운데는 인간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자가 상당히 있다. 이 사실은 뇌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뇌세포의 수는 100억개를 훨씬 넘는데, 이들 사이가 회로로 연결됨으로써 각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평생에 겨우 10% 정도의 뇌세포만을 활용할 뿐이며 나머지는 그대로 잠재우고 있다. 인간의 신체 다른 부분에 내장되어 있는 유전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훈련과 정진 여하에 따라 육체나 지성은 잠자고 있는 부분을 ON으로 전환시켜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초인적 능력으로 일컬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 잠재우고 있는 세포나 유전자를 좀 더 넓게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 극치의 대오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겉보기에 어른들은 성장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세포는 엄청난 속도로 교체하면서 분해, 합성을 되풀이하고 있다. 메마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육체는 물질이며, 유전자는 인간의 몸에 화학 작용을 일으킨다. 누구나 죽는 날까지 잠자고 있는 세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평소 겨우 40kg 정도의 무게를 들어올리던 사람도 절박한 상황에서는 80kg의 짐을 어깨에 메고 달릴 수 있다.

이 관점을 마음에 둘림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절대적인 가능성을 긍정하게 된다. 절대 긍정의 불교적 신념이 과학적으로도 진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인생을 거대한 피아노라 생각한다. 그 피아노는 보통 것과는 달리 건반의 수가 70조(兆)개나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유전자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어떤 부분은 작동시키고, 또 어떤 부분은 잠재우는 작업을 되풀이 하고 있다(ON, 또는 OFF). 환경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저마다의 유전자는 ON, OFF를 번갈아 선택하고 있으며, 자신의 마음은 이 구조에 수시로 영향을 주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간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체 건반의 극히 일부분만을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잠자고 있는 유전자 가운데는 나로 하여금 대오의 경지에, 또는 초인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인간 피아노 앞에서 삶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 · 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석, 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8년 5월 18일 ~ 6월 19일
■ 개강일시 : 1998년 6월 19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1년)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건강에의 신비! 옥
羽川玉山家玉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여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玉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다(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777-0105 (백오옥)

신문광고 사과문

1998년 5월 5일字 「주간불교신문」 10면 광고란에 게재된 「한국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손혜인의 신문광고는 본인의 허락없이 광고된 것으로 대승종 총무부장 김용섭이 임의로 올린 명단이므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참회하겠습니다.

1998년 5월 일

대승종 총무부장 김 용 섭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대학 학장 손혜인 스님 귀하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탁본 "흑과 백의 질서로 역사를 본다"

쓰고 새긴 선인들의 정신 되살리는 작업
模寫 아닌 본연의 모습 찾는 독창적 예술
비문·범종등 탁본소재로… 훼손 조심해야



◇북위 황흥5년(471)에 조각한 '황흥조상'. 미륵불과 불전도를 조각, 정교하고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있다.



◇당나라의 대화가 오도자(吳道子)가 그렸다고 전하는 관세음보살상. 순천 선암사에 이를 모본으로 관각한 목판본이 있다.



◇중국에서 간혹 즐겨 사용하는 홍탁(紅拓).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화려한 탁본으로 색다른 느낌을 준다.

금석(金石)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 문양 등을 종이에 대고 찍어내다 보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탁본(拓本) 또는 탑본(榻本)이라 하는 이 작업은 단순히 모사(模寫)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세계가 된다.

일반적으로 비문은 찬자(撰者)에 의해 글이 지어지고 서예가(書藝家)에 의해 글이 써지며 각인(刻人)에 의해 글이 새겨진다. 이러한 비문을 재탁함으로써 탁본 하나에는 많은 사람들의 예술혼과 정신이 깃들게 된다. 여기에 바로 탁본의 묘미가 있다.

탁본은 세월의 이끼를 걷어내고 비문에 새겨진 고승성현(高僧聖賢)들의 가르침을 읽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누대로 역사가 내려오면서 우리 선인들은 바위와 돌, 쇠붙이 등에 당시의 역사와 글, 필적을 남겼다. 이 모든 것들은 오래되면 될수록 풍화되고 부식돼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럴 때 탁본을 해두면 그 글은 생생하게 살아나게 된다.

이제껏 탁본은 사학자들이 비석이나 바위에 새겨진 유물을 좀더 확실히 보기 위해 사용하면서 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약간의 기술만 익히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탁본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먹물이 주는 회화적 느낌은 우리의 정서와 맞닿아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왔을 만큼 취미생활로 적격이다. 그러나 탁본의 문(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마음과 수행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탁본은 마음의 정서를, 예술의 세계를, 지식과 개성을, 참나를 찾아 주며 키워준다. 은은히 배어나는 묵향이 마음을 깨끗이 닦아준 이유에설까? 탁본을 하다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본연의 모습이 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실성이 보인다.

탁본의 대상은 감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좋다. 이런 의미에서 고승의 비문이나 탑, 부도, 범종 등에 새겨진 문양 등 불교문화재는 탁본의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부처님의 맑고 고운 소리에 환희하는 범종의 비천상 등 각종 문양이나 싯구, 가사 등은 좋은 감상거리가 되고, 고승대덕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탑비나 사찰의 사적비 등은 좋은 연구자료가 된다.

1970년대 한국불교연구원이 탁본전시회를 연 이후 지난해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신라·고려 고승전'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탁본전시회가 간간히 열렸다. 96년 10월에 열렸던 '미황사와 구산선문 탁본전'은 차디찬 돌덩이와 쇠붙이에 새겨넣은 문양의 아름다움을 종이 위에 되살려냈으며, 97년 9월에 있었던 '신라·고려 고승전'은 전국 사찰에 전해지는 비문을 재검토하고 정리해 불교문화와 고승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특히 불교사학연구소는 비문에 대한 기존 연구가 고려이전의 것에 국한돼 있는 점을 감안 조선과 근대의 비들도 계속 발굴·탁본해 한국불교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탁본은 흐릿한 비문을 또렷이 읽어내거나 사라졌던 비문의 제 모습을 찾는 데도 그 몫을 톡톡히 한다.

춘천 청평사(淸平寺) 문수원기(文殊院記)는 한국전쟁때 파괴돼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었다. 68년 황수영박사(前 동국대총장)가 대웅전터에서 일부 발견된 비편을 토대로 복원을 시도했지만 원 비문의 1/3정도만을 집성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비문은 1170년경 채탁한 탁본이 전해져와 복원이 가능하게 됐다. 향토사학자 홍성악씨는 탁본을 재구성, 총 1천9백59자 중 39자를 제외한 1천9백20자를 확인, 문수원기 복원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97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탁본은 하나의 예술이며,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올바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 필요하며, 한번 실수로 귀중한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윤기석 기자



④ 채탁 탁본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만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먹의 색을 엷게 하여 몇번이고 두드려서 먹의 농도를 맞춰야 하며 위부터 아래로 또는 글자를 따라가면서 종이 위에 수직으로 두드려야 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연세대박물관 7월3일까지 '서안비림전'
황흥조상·불공화상비 등 110여점 전시
中 서법예술의 정수 '한자리'

중국의 서법예술을 대표하던 대가들의 명품석각 3천여점이 즐비해 있는 서안비림(西安碑林). 서성(書聖)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해 새긴 삼장성교서비(三藏聖敎序碑), 안진경이 최초로 썼다는 다보탑감응비(多寶塔感應碑) 등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이 비석 숲의 정수를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연세대박물관(관장 김인회)이 특별기획한 '서안비림전'은 7월3일까지 서안비림의 명품 중 가려뽑은 1백10여점의 탁본을 한자리에 모은 것. 이번 전시는 진나라부터 근대에 이르는 각종 명비(銘碑), 묘지명(墓誌銘), 조상기명(造像記銘)을 소개하고 있으며 눈길을 끄는 불교작품도 꽤 많아 마치 중국서예사 및 불교사상사의 책을 펼쳐놓은 듯하다.

집자비(集字碑)를 통해 보는 왕희지 행서의 진수, 당나라 초기 해서의 완성을 보여주는 구양순 등의 글씨, 당당한 힘과 조형성이 어우러진 자연스러움이 가득한 안진경의 글씨 등에는 문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함축된 예술미가 담겨있다. 또 북위때(489년) 세워진 휘복사(輝福寺)의 창건과정과 모습을 적은 휘복사비, 당나라의 고승 지혜법사(智海法師)가 금강경을 전수받은 사실을 기록한 지혜법사비, 서역승인 불공화상(不空和尙)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불경을 번역하고 포교하던 상황을 담은 불공화상비 등은 중국 당나라 불교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황흥조상(黃興造像), 건숭사조상비(建崇寺造像碑) 등 불상을 조각한 내력을 적은 발원문과 공양주 등을 새긴 조상기 등은 형상(조각)과 글씨(서예)를 함께 볼 수 있어 일반 비나 불상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서안비림은 양쯔강 하류의 초산비림(焦山碑林)과 함께 중국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비석 숲으로 송나라때 황제해지는 옛 석각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 조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년 중국정부로부터 중점문물보호단위(국보급문화재)로 명명됐으며, 서안비림박물관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5대 중점박물관으로 지정돼 있다. 〈석〉

올바른 탁본방법



① 물뿌리기 물을 바를 때는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좌우로 종이가 구겨지지 않고 잘 펴지도록 뿌린다.



② 기포빼기 물을 종이에 바르면 비면과 종이 사이에 기포가 생기는데, 물수건을 사용해 밖으로 빼낸다.



③ 솔질 기포나 주름을 없애거나 비면에 종이를 완전히 밀착시키기 위해 솔을 사용,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⑤ 떼어내기 채탁된 종이는 고정시킨 테이프를 제거한 뒤 한쪽부터 천천히 떼어내는 것이 좋다.

탁본을 위한 준비물은 종이, 먹물, 솜방망이, 솔, 수건, 물뿌리기 등. 종이는 화선지도 가능하나 이보다 조금 두꺼운 옥당지가 좋으며, 먹물은 서예가용 고급먹물을 사서 하거나 직접 갈아서 쓰는 것이 좋다.

탁본 재료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제작. 마애불과 같이 면이 거칠거나 마멸이 심한 것은 쌀이나 왕겨를 넣어 만들고, 보통은 좁쌀이나 솜을 채워 사용한다. 다만 다양한 크기의 솜방망이를 준비, 대상물의 크고 작음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탁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폐사지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탁본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탁본할(한) 대상물을 깨끗이 씻고 닦는데 있다. 우선 대상물을 물수건으로 닦아낸 뒤 종이를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고정시킨 후 물붓, 물수건 등으로 표면에 밀착시킨다. 종이가 어느정도 마르면 솜방망이에 먹을 묻혀 같은 농도로 찍어내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은 기포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 솔로 완전히 밀착시키는 일과 종이의 물기를 측정하는 것.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종이가 들떠 정확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물기가 많으면 번지게 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탁본이 간단한 듯 하면서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 손의 감촉과 육감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탁본은 회화적 느낌을 주기 위해 먹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연잎을 엷게 하고 연꽃을 짙게 하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갖가지 색을 이용, 탁본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또한 색다른 느낌을 준다.

종이는 화선지·옥당지 쓰여
관리자에게 꼭 사전허가
기름잉크 복사는 유물훼손

탁본을 했다고 해서 그 비가 훼손되거나 예술적 가치와 중요성이 모두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탁본기술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초심자들이나 탁본을 돈벌이로 여기는 장사꾼들이 마구잡이로 탁본을 하는 것이다. 특히 로울러를 사용, 기름잉크로 복사하는 행위는 유물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유물에 잉크를 묻혀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

탁본은 채탁을 하는 개인의 기술과 개성, 창작의욕, 그리고 유물을 대하는 겸허한 마음을 담을 때 예술적 가치와 감상의 가치가 뒤따른다. 묵향이 은은히 배어나는 탁본의 멋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정신에 있다. 〈석〉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사문품(沙門品) ②

手足莫妄犯 수족막망범
節言順所行 절언순소행
常內樂定意 상내락정의
守一行寂然 수일행적연

손 발을 놀려 나쁜짓 않도록 하고
말을 절제하여 행을 조심하며
마음이 항상 선정을 즐거워하면
한마음 간직해 맑고 고요하리라

學當守口 학당수구
宥言安徐 유언안서
法義爲定 법의위정
言必柔軟 언필유연

마땅히 입조심하기를 배우고
말이 너그럽고 편안하면
범다운 이치가 절로 머물게 된다
말은 반드시 부드러워야 한다

樂法欲法 낙법욕법
思惟安法 사유안법
比丘依法 비구의법
正而不費 정이불비

법을 즐겨 행하고자 하고

滅行乃安 멸행내안

비구가 자비를 행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공경하면
쉼과 비춤이 깊어지리니
번뇌 사라져 편안하리라

一切名色 일체명색
非有莫惑 비유막혹
不近不憂 불근불우
乃爲比丘 내위비구

온갖 것은 다만 이름이요
헛것있는 게 아니니 미혹되지 말라
명색을 가까이 않고 근심 없으면
그야말로 비구라 하리라

比丘芦船 비구호선
中虛則輕 중허즉경
除婬怒癡 제음노치
是爲泥洹 시위니원

비구여 배 안의 물을 퍼내거라
배가 비면 가벼워지리니
음욕·성냄·어리석음을 없애면
그것이 바로 열반이 된다

捨五斷五 사오단오

손발 놀려 나쁜짓 않도록 하고 말이 부드러우면 법이 절로 머문다

조용히 법을 생각하라
비구가 법에 의지하면
삶은 바르고 힘들지 않으리라

思惟五根 사유오근
能分別五 능분별오
乃渡阿淵 내도하연

學無求利 학무구리
無愛他行 무애타행
比丘好他 비구호타
不得定意 부득정의

안팎으로 다섯가지 욕망을 끊고
오관의 뿌리를 생각해
능히 오온을 분별할 줄 알면
곧 생사의 못을 건너리라

잇속 구하기를 배우지 말고
남들이 하는 잡된 일을 좋아하지 말라
비구가 다른 일을 좋아하면
고요한 마음을 얻지 못하리라

禪無放逸 선무방일
莫爲欲亂 막위욕란
不呑洋銅 불탄양동
自燃燋形 자뇌초형

선정을 닦아 방일하지 않고
욕심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하라
번뇌의 끓는 구리쇠를 마시지 말라
스스로 괴롭혀 몸을 불태우지 말라

比丘少取 비구소취
以得無積 이득무적
天人所譽 천인소예
生淨無穢 생정무예

비구는 무엇이든 적게 취하여
그것을 쌓아 두고자 하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의 기림을 받고
그 삶은 깨끗하여 더러움 없으리라

無禪不智 무선불지
無智不禪 무지불선
道從禪智 도종선지
得至泥洹 득지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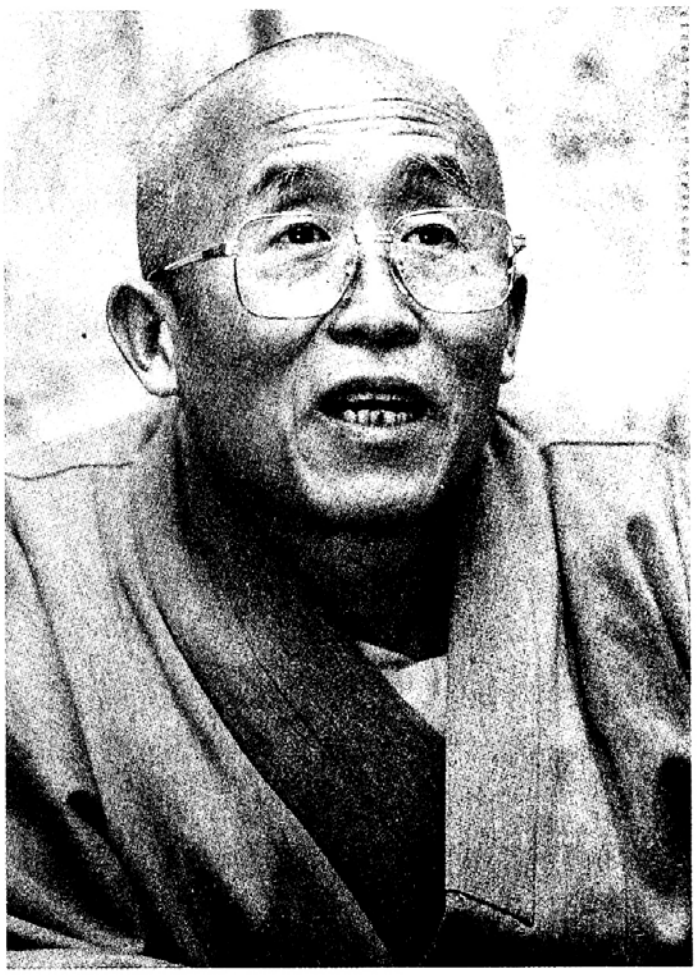
선정이 없으면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 없으면 선정도 닦을 수 없다
도 닦는이는 반야의 지혜를 좇아
열반에 이르게 되느니라 龍眼

比丘爲慈 비구위자
愛敬佛教 애경불교
深入止觀 심입지관

큰스님 수행한담

"불경에 성불의 길 있으니

월운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약력
- 1928년 경기 장단 生
- 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卒
- 57~61년 통도사 강사
- 65년 해인대(마산대) 철학과 卒
- 79년 중앙승가대 교수
- 봉선사 주지 역임
- 現 남양주 봉선사에 주석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온통 편리하고 즐겁게, 등따시게 사는 것들이예요. 생각이 나 위주로 국한되면 아상에 빠집니다. 아상이 생겨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못맞추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게 되지요. 이를 이기는 방법은 어려움을 참고 고행함으로써 업장소멸을 하는 것이예요.

고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견고행(邪見苦行)은 안되고 내가 힘들다고 고행이라 생각해도 안됩니다. 선인선과(善因善果)의 법칙을 믿는 고행은 정견 고행이요, 선인선과의 법칙을 믿지 않으면 사견고행입니다. 나를 아름답고 빛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견고행이지요. 남이 공들인 것을 슬쩍 꿀꺽해 버리고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견입니다.

부처님은 선업에는 선과가 오고 악업에는 악과가 온다는 인과법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이웃집에 정직한 형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형의 모친이 밤 한 되를 삶아 주고는 너는 먹지 말고 동생에게 다 먹이라는 말을 하고 출타를 하셨어요. 모친이 돌아와 보니 형은 하나도 안 먹고 동생에게 삶은 밤을 억지로 먹이더랍니다. 이렇듯 정직하고 착한 것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악한 것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닦아라 악을 멀리 하라는 말이 시일이 지나면 형식적으로 흐르고, 얼만큼 선을 닦았는지 얼단름 악을 멀리했는지 집착이 생겨요. 이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반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부처님이 설법하신 인과법문을 통해 자신의 집착과 사견을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침착하고 조용해야만 해요. 진정한 자기에 눈을 뜨게 되면 타인의 괴로움이 곧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타인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예요. 이 지혜와 자비를 완전하게 갖춘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경계하고 어느 한 쪽에도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양극인가를 제대로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실천기준이 있지 않으면 자칫 관념의 함정에 빠져 헛된 삶을 살기 십상이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중도의 함정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에 부딪치면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 마련이지요. 인간이 자신의 처지에서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어려움없는 삶을 영위하려 노력한 결과 오늘의 문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의 난관을 종교에 의지해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지요.

나는 가끔 불법을 배우고 이를 믿고 체험해 가는 가운데 형용키 어려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기쁨이며 영원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불교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을 법 속에 파묻어 버리므로 어려운 교리나 개념은 잊어도 문제시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불법따라 사는 것을 잊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요. 진심으로 법에 살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바가 아닙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열일곱 살 되던 해였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지요. 내 속가집은 유달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희망없이 사느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었는데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업은 채 집 떠나는 나를 따라 오셨어요. 그 무렵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산자락에 도랑이 흐르고, 돌다리를 건너면 집이 보이고 아련한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가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그런 꿈이였어요. 똑같은 꿈을 하도 여러번 꿔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해요.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 고향인 장단(판문점 근처)에서부터 떠돌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남해 화방사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이 바로 늘 보던 곳이었으니까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꿈에 느껴지던 그 냄새도 똑같았습니다. 그 냄새는 잡목을 태우는 냄새였어요.

화방사에 있으니 그리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불경을 접했지요. 그때까지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불경을 보니 내용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히 〈금강경 오가해·金剛經五家解〉가 머리 속에 쏙 박혔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믿고 체험하면
언제나 기쁨과 행복의 연속입니다
자신을 불법속에 묻고 살면
교학이론 잊어도 문제되지 않아요

일곱 살 때부터 한학자인 재당숙에게 10여년 동안 한문책을 두루 익힌 덕에 그 어려운 한문 경전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지요. 한문 경전을 줄줄 읽는 나를 눈여겨본 스님들이 당신들의 양식을 내 몫으로 주시면서 화방사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곳 스님들이 출가를 권했지만 불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출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화방사에서 장작 패고 지붕 수리하고 담장 고치고 공양 준비하는 일 등을 하면서 틈틈이 불경을 읽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라기보다는 일할 것이 눈에 띄면 배운다는 생각으로 찾아서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때가 바로 행자생활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화방사에 자리잡은 것을 보고 어머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서너 해동안 화방사에 머물렀지요.

그 무렵 화방사에는 열분 남짓한 대처승들이 머물며 조석 예불을 드리는 외에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80,000

인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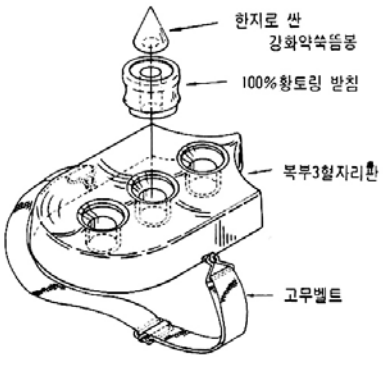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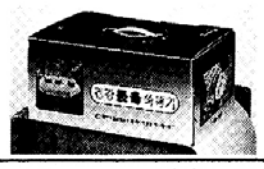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3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운스님 수행한담

다른데서 찾으려 마세요"



◇ 1958년 통도사에서 하안거 해제를 하며 도반들과 함께했다. 셋째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월운스님.

역경은 부처님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한글로 쉽게 경전읽게 하는 일은
불사중에서도 큰 불사입니다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일하는 틈틈이 경전을 읽으며 신심을 키우고 있었지요. 그렇게 서너 해를 보낸 후 육지에서 온 스님들이 내 한문 실력이 좋다고 양주 봉선사 운허스님(1892~1980)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분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를 하라고 권해줬습니다. 화방사 스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우선 삭발을 하고 운허스님을 뵙고 은사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사스님 얼굴도 모르는채 출가를 했습니다. 그 때가 스무살이었는데 운허스님을 찾아뵈려는 터에 덜컥 전쟁이 나 버렸어요. 피난다니다가 운허스님을 뵈었어요. 스님이 동래 범어사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찾아갔지요. 다른 스님들로부터 내 이야기를 들으셨던지 운허스님께서는 별 말씀없이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범어사에서 운허스님이 하셨던 〈능엄경〉 강의는 지금도 명강의로 유명해요. 교학과 수행에서 단연 일인지였던 운허스님은 강의 도중 '〈능엄경〉을 설하게 된 동기를 쓰라'는 과제를 주셨고 나는 한문으로 답을 써 냈지요. 다음날 저녁 스님은 나에게 참선하는 사람은 많으니 경학을 붙들고 익히도록 분부를 내리셨어요. 경학이 불교를 일으킬 것이라구요.

운허스님은 동 서양 학문에 두루 조예가 깊은 석학이셨어요. 칠판 앞에서 경전을 강의하실 때는 참으로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더니 나에게 찬주(纂註)를 보라고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죽으나 사나 혼자 하루종일 끙끙 대다 다음날 제출하면 보시고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시기만 했어요. 하루는 너무 답답해서 경전을 번역, 현대적으로 개편해서 가르치고 배우면 어떨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종교, 특히 부처님 말씀에는 현대도 구대도 있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업을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스님께서는 "옛 어른들도 보고는 또 잊고, 잊고는 또 보고 그렇게 성취하였다"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지혜와 자비 얻으려면 모든일에 침착
경전 새겨읽고 법문 듣고 체화 시켜야

오늘날까지 내가 운허스님이 머물던 봉선사에서 한 평생 경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스님에게 어렵게 수학했던 탓도 있겠지만 수억겁에 걸친 인연 때문일 겁니다.

출가한 지 얼마되지 않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가 고성 문수암의 청담스님이 실천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지도를 받기위해 찾아갔지요. 그곳에서 얼마간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청담스님께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도고마상(道高魔尙)이 생기는 법이야" 하시더군요. 그 뜻은 도를 닦지 않는 이에겐 마가 생기거나 극성을 부리는 법이 없으니 마 생김을 오히려 반갑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방황과 번민은 수행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것이지요. 정작 문제는 나태와 안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경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지적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은 오히려 공부를 해치는 것입니다. 운허스님의 수업방식이 그러했고 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국의 역경 일인자인 구마라습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마라습(343~413)은 서역 출신으로 어머니가 출가하자 5세 때 자신도 따라서 출가한 사람입니다. 서역은 요즘 같으면 이란 이라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중국 전진왕 부견은 서역으로 사람을 보내 구마라습을 빼앗아왔어요. 그런데 중국에 와보니 전진이 이미 망하고 없어 구마라습은 국양이라는 나라에 임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다시 후진에서 구마라습을 데려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자 결국 후진에서 머물며 활발한 역경사업을 벌였지요. 역경은 부처님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에 역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 쟁탈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경 속에 성불하는 길이 있어요. 길을 이탈해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경을 통해 부처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업을 소멸하는 길은 경을 읽고 부처님이 가르치신대로 실천하는 것이 모래 한 줌이라도 보탤 수 있는 길이예요.

나는 93년도 12월에 동국대 역경원장에 임명됐어요. 한글대장경 간행계획에 의하면 전부 250책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180책이 나와 있었어요. 그해 대통령에게 30억원 보조해주면 5년동안 해마다 14책씩 70책을 끝마치겠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취임하더니 맘이 바뀌어서 연 3억원씩만 준다고 해서 받아가지고는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려고 보니까 은사스님이 원장 때 고려대장경 아닌 것을 많이 번역했더라구요. 3천6백매로 책 한 권을 만들던 것을 3천2백매로 한 권을 만들었던 탓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180책 나온 것이 실제로는 145책 정도 분량밖에 안되는 거예요. 흡간해야 될 분량이 배로 늘었으니 재정지원을 더 해 줘라 못하겠다 실갱이를 벌였지요. 1년에 30책을 만들어야 5년동안 150책을 채울 수 있어요. 돈도 인원도 모자랐지요. 1년 예산이 11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정부는 3억원밖에 안주고 책을 만들어 팔아봐야 4~5억원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 역경후원회가 만들어져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열심히 마무리를 해 여법하게 회향해야지요. 역경후원은 바로 법공양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 법공양이 으뜸이예요. 법당 건립 불사에 동참하는 것만이 공덕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사업은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경전을 한글로 쉽게 읽을 수 있는 터전을 닦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큰 불사입니다.

불자들 중에 어떤 경전을 봐야 좋으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경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읽어보고 마음이 끌리는 경으로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경전을 선택했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뜻도 모르고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읽는다면 훨씬 좋겠지요.

요즘 방송 출연을 하니까 전화가 많이 와요. 한결같이 좋았다는 말들만 늘어놓지요. 뭐가 그리 좋았냐고 알맹이를 물어보면 스님을 TV로 보아서 좋고 법문 들어서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법문내용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있는지 지적하는 불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법문을 하면 그 내용을 듣고 체화를 시켜야 합니다. 소리만 들으면 뭐합니까. 아니 소리도 제대로 못듣고 스님 얼굴만 쳐다보면 성불할 수 있답디까. 진정한 부처님 말씀을 이 시대 수행자를 통해 다시 듣는다는 자세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돌고 경전공부도 병행해서 하세요. 성불하는 수행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나와 경전 〈54〉

대승장엄보왕경



김 무 생
위덕대 교학처장

경전을 읽는 것은 자기를 읽는 것이다. 그것은 경전을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경전의 의미는 읽는 사람의 경지에 따라서 달리 느껴진다는 뜻도 되겠다. 그 때문인지 같은 경전이라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된다.

나의 불교 입문은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염송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대승장엄보왕경〉을 읽게 된 것은 이 경전이 육자진언을 설하는 유일한 경전이기 때문이었고, 그 시기는 70년대초라 생각된다. 그 때 나는 불교신앙에 대한 교학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내가 신앙실천하고 있던 '육자진언,' 넓게는 '진언'에 대한 교학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유일한 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에 의하여 진언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 있다.

육자진언·관음신앙 희곡처럼 구성
불교사상 대중화 위한 서민의 경전

〈대승장엄보왕경〉은 10세기 초반에 성립이 완성되어 10세기 말경에 중국에 전래 번역되었다. 이 경전은 범어를 중심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지역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경전문헌 중의 하나로 대접받고 있다. 그것은 〈대승장엄보왕경〉이 관음신앙의 마지막 발전 형태, 밀교의 관음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의 주제는 관자재보살과 육자진언이다. 내가 처음 이 경전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한편의 희곡을 읽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의 대화에서 시작한다. 부처님은 전생에 과거칠불로부터 들은 관자재보살의 중생 구제의 모습을 리얼하게 설하고 있다. 즉 관자재보살이 뛰어난 위신력으로써 갖가지 몸으로 화현하여 지옥을 비롯한 육도의 중생을 구제하고, 천궁의 천자, 나찰녀, 심지어 갖가지 충류(蟲類) 등을 화도하고, 나아가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 나찰녀의 재난을 받고 있는 오백상주(五百商主) 등을 구제하는 장면이 경전의 전반을 채우고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관자재보살이 이러한 위신력을 갖추고 제도와 구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육자진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육자진언이 가지고 있는 무량한 공덕상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부처님이 제개장보살을 위해 육자진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자, 제개장보살은 스스로 육자진언을 청법하게 된다.

관자재보살이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음성으로 시현하는 육자진언을 듣고 부처님의 처소로 돌아온다. 그 때에 칠십칠구지 여래가 준제진언을 설하고 관자재보살의 몸의 터럭 구멍에서 상서로운 기적이 나투어진다.

〈대승장엄보왕경〉은 경전의 내용을 희곡처럼 구성하여, 이야기 사이 사이에 불법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담고 있어 읽을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준다. 경전을 읽어가는 흥미를 일으키면서 깊이있는 교리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경지만큼 받을 수 있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관자재보살은 본성이 '무자성(無自性)하여 여래도 보지 못하다'는 내용과 육자진언은 '반야바라밀다모다(般若波羅蜜多母陀)가 설한 것이다'는 구절은 백미에 해당한다. 사실 관자재보살은 우리들 본성의 상징이요, 이상상이며, 관자재보살이 구제의 활동을 편 저 많은 고난당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사회상이라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지혜의 상징태로서 '육자진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면,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발휘하여 여러한 고난과 현난도 극복할 수 있고, 결국 개침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평범한 법사의 등장은 불법의 무차별 평등주의와 대중성을 강조한, 이 경전이 성립할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곧 대승장엄보왕경이 고원한 불교사상을 대중사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짜여진 서민의 경전이요, 우리들 인간의 자기 고습을 돌아보게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윤달수의

미리 준비하면 무병장수한다는
윤달 수의를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신 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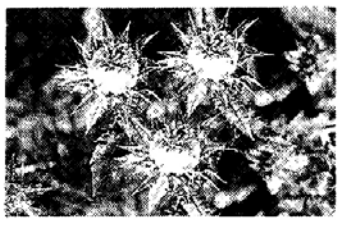
스님, 불자들의 불교식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전국불교장의연합회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 난치병 치료 ◆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한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여래한방원장 시연스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천이백여년전 당나라 선도의술(仙道醫術)의 의성(醫聖) 주진형의 놀라운 비방약인 기적의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은 사향·호골(虎骨)·인삼·박하수오·적화수오·원방풍 외 30여종의 약재로 만들었으며, 손상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오장육부의 치료, 중풍·근육의 모든 통증 및 마비증·당뇨병·소화불량·심장병 등의 치료와 예방을 하며, 복용할수록 정수(精水)가 풍부하게 생겨서 왕성한 정력이 솟아남으로 회춘(回春)이 되고 피부도 윤택해진다.

■ 진 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전화문의 : (053) 628-9145
(053) 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5월의 라일락 향기

사랑하는 사람
생각 날때면
눈물이 납니다.
라일락
꽃 향기 피어 오르고
그대 그리움으로
눈망울 흐려지면
호수는 강물로 변합니다
언덕 아래로
빠알간 지붕 보이고
담장 밖으로
5월의 라일락 꽃 향기
하얀 얼굴 내밀며
고개 숙이고 서 있는데

지나는 이의 발걸음
멈추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픔에
그 꽃잎마다
그리움으로 가득 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손수 만든 햇차 향에 속세 잊고…



◇쌍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서있는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범패와 차를 사랑한 기록이 담겨있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5월

쌍계사 茶축제 · 제다 현장실습

아홉번 덖어 깊은 맛 지닌 茶 닦고 또 닦아 깨치는 수행 연상

최치원이 쓴 진감선사비 천년세월 '우뚝'

17일 새벽 4시, 새벽이슬을 머금은 야생차나무들의 환영속에 5월 불교문화체험기행단 45명이 화개골에 도착했다.

'다신일미의 세계를 찾아서'를 주제로 쌍계사 茶 축제 관람과 제다현장 실습을 하게 될 일행들은 먼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쌍계사(주지 선곡)로 발걸음을 옮겼다.

〈삼국사기〉 흥덕왕 3년에 보면 당나라에 다녀온 사신 대렴이 차씨를 가져왔고, 그 차씨를 왕이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이후 진감선사가 쌍계사와 화개부근에 차밭을 조성 보급했다고 하는데, 이를 기념해 차시배지 기념비가 쌍계사 입구에 세워져 있다. 쌍계사는 4월에는 벚꽃 10리길을 찾는 상춘객들로 붐비지만 5월에는 차인들의 발걸음이 집중되는 차의 명소다.

어스름이 채 걷히기 직전, 지난 밤 내린 비로 더욱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의 안내를 받으며 쌍계사 일주문과 금강문을 지나 다시 팔영루 옆의 계단을 올라 대웅전에 다다랐다. 보물 제500호로 지정된 조선중기의 목조건축인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포식 팔작지붕이다. 그 웅장함과 위엄있는 모습에 신심이 절로 솟은 기행단들이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대웅전 마당에는 진감선사(774~850)의 공덕과 도력을 흠모해 신라 진성여왕이 당대의 대문장가 최치원에게 글을 짓고 쓰게한 진감선사대공탑비가 천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서 있었다. 이 비는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가운데 하나로 국보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쌍계사의 대표적인 문화재다. 진감선사는 중국에서 불교 음악을 공부하고 돌아와 우리 민족에 맞는 범패를 만들어 쌍계사 팔영루에서 많은 범패 명인들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이 탑비의 비문에 범패의 대가이며 차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진감선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참배를 마친 기행단은 맑은 물살이 흐르는 화개천 돌다리를 조심조심 건너 야생차밭에 도착했다.

"왼손으로 줄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잎만 살짝살짝 따이소. 특히 작고 길죽하고 보들보들한게 좋은 잎입니데이!"

이기영사범(효월수제차 대표)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찻잎따는 법을 설명했고,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야생차밭에서 일행들은 찻잎 향기에 휩싸인 채 채다(採茶)를 만끽했다.

저마다 따온 찻잎을 모아 효월수제차 가마에서 차덖음이 시작됐다. 손을 깨끗이 씻고, 두꺼운 장갑을 끼고 4개 조로 나눠 700℃가 넘는 뜨거운 가마에 찻잎을 볶아 부었다. 하얀 연기와 함께 상큼한 찻잎냄새가 코를 찔렀다. 뜨거운 가마에서 찻잎이 타지 않고 덖어질 수 있도록 바닥 깊숙이에서 찻잎을 건져 올렸다 흩어 내리는 빠른 손놀림이 반복됐다.

"차는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더. 오늘 여러분은 전통적인 수제차를 직접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구증구포라고 해서 아홉번 덖고 아홉번 말리는 과정을 통해 차가 만들어 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지예. 첫 덖음만 제가 시범으로 해 드리고 나머지는 조별로 힘을 모아서 함께 덖어내야 합니더. 차를 만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이소."

이사범의 설명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첫 덖음을 마치고 모락모락 김을 뿜아내는 찻잎이 멍석위에 올려졌다. 열명씩으로 구성된 조원들이 이제 찻잎을 빨래빠는 모양으로 둥글게 비비기 시작했다. 찻잎을 비비면서 어제밤 처음으로 만난 일행들이 어느새 웃음과 담소를 나누며 친근해졌다.

4시간 만에 마지막 아홉번째 덖음까지 모두 끝났다. 처음 한 솥 가득 생생했던 찻잎량이 이제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손으로 세게 짜으면 부서질 정도가 되었다.

직접 만들어 우려내 마시는 한잔의 차가 무척이나 향기롭다. 갓 딴 햇차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향그러운 차가 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겪었기에 더욱 그 맛이 각별했으리라.

덖고 또 덖어내 깊은 맛을 지닌 차가 되는 과정에서 한낱 중생에서 닦고 또 닦아 깨달음의 경지에 드는 수행자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예로부터 많은 선사들이 차를 즐겨 마셨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차나 마시고 가게(喫茶去)' 화두로 중생들을 깨우쳤던 조주스님의 가르침을 한 잔 차에서 음미해 본다. 차를 마시는 작은 일상이 그대로 진리이고, 선의 세계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와 아들 딸과 함께 온 윤혜숙씨(서울 상계동)는 "그동안 커피, 콜라만 좋아했는데 앞으로는 아홉가지 덕을 갖췄다는 차를 온가족이 애용할 생각"이라며 직접 덖은 차를 자랑스러운 듯 들어보였다.

글=이은자 사진=고영배 기자



◇화개천가 비탈진 야생차밭에서 채다에 나선 불교문화 체험기행단.



◇효월수제차 이기영사범의 찻번째 차덖음 시연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불교문화 체험기행단은 각 조별로 남녀노소가 함께 덖어진 찻잎을 둥글둥글 비비며 녹차만드는 과정을 조금씩 익혀 나갔다.

茶人들의 잔치 '쌍계사 차축제'

시음회 · 사진전 · 사생대회 '눈길'

제1회 혜능 · 진감선사 헌다례 봉행

17일 쌍계사에서는 '제3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및 제18회 차의날(5월25일) 기념 차문화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하동 쌍계사 차 축제는 매년 전국에서 2천여명의 차인(茶人)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 축제이다.

이 차축제는 차 시배지의 역사와 전통과 천혜의 재배조건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드날리고 있는 화개지역의 차문화 발전과 야생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된다. 각종 차 겨루기를 하고 차로 만든 요리, 차관련 상품, 차술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우리 차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의 장으로도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차의 시배지로 알려진 쌍계사 차시배지 다례식과 차의 날 기념 춘계 학술논문발표회가 열렸다. 또 쌍계사 금당에 모셔진 육조혜능대사의 정상을 기리는 제1회 육조혜능조사와 진감선사전 헌다공양례도 봉행됐다.

특히 찻잎따기 대회, 햇차 시음회, 올해의 명차 선정 등의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가해 우리 차의 우수성을 맛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차 사진전시회, 차유적지 답사, 차 제조과정 시연, 향토음식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글짓기 및 사생대회, 초의선사 다신탑비 참배 등도 열렸다.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하일라이트인 올해의 명차 선정대회. 차 전문가와 관광객 3백명이 직접 맛과 향, 빛깔을 보고 명차를 선정했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 · 불(火) · 흙(土) · 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木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종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이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ℓ(700mℓ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9508 대구여래한방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고개 숙이지 못하면 쭉정이 벼이삭"

"남의 말에 속고 행동에 끌려다니면 노예"
"마음으로 아주 죽으면 어디에도 걸림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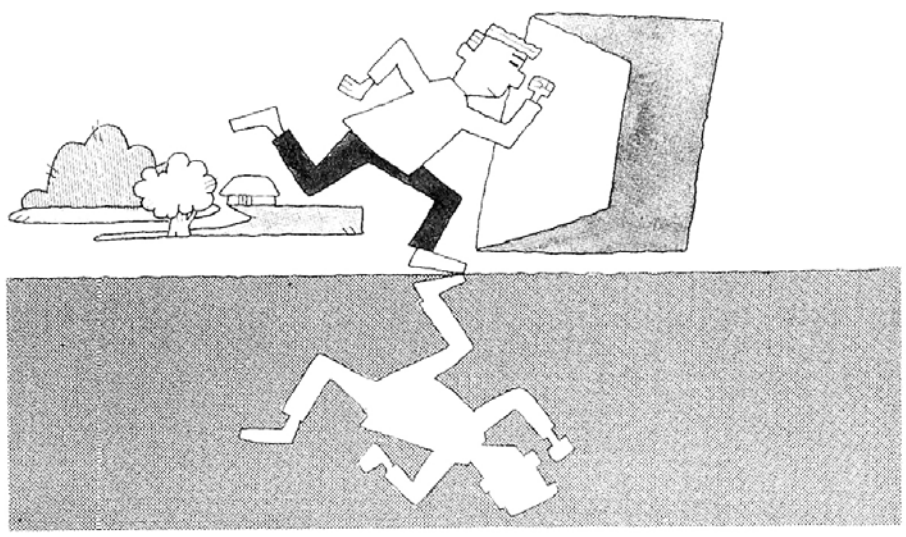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 해서, 첫째는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세계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나라를 안정되게 할 수 있으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서 어디에도 끄달리지 말고 자유스럽게 살라는 뜻이며, 둘째는 여러분의 모습이 언젠가 사대로 흩어져서 없어진다 하여도 이 다음에 뚜껑만 열면 최상의 수행자로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으리만큼 검지도 희지도 않은 모습으로 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깊은 바다의 흘러드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설법이며, 들고 남이 없이 융을 하는 것이 바로 문수의 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푸르른 청정한 산과 들, 꽃이 피고 새우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승가의 설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일체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푸르고 꽃 피고 물 흐르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아집과 아상을 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러한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대업을 쌓고, 내 가정이 부유하여 고생하지도 않는데 뭘 배운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이는 세계의 물질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소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면, 쭉정이를 낳는 벼이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실천을 옮길 수 없으니 사람이 되어 가지고도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격이나 같은 것이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과거 · 현재 · 미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과거는 현재에 가져왔고 미래도 현재에 가져왔으며, 여러분이 가고 으고 일어나고 눕고 먹고 배설하고 앉고 서고 일하는 것이 전부 참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상사가 왜 참선이 되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 아버지 · 오빠 · 형님 · 동생 · 남편 · 자식 · 사위 등등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듯 많습니다. 일체만법의 일체만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며 결정짓고 행을 하는데 들이고 내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도 즐거운 것도 전부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듯이 일체 만법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서 조작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도깨비 장난을 하기도 하며, 법신이 되고 보살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세계평화를 가져오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내마음을 잘 다스려 자유스럽게 살 수 있어요"

난 가끔 여러분을 접하면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했더라면 답답할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여러분의 몸이 내 몸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내 모습이기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처 마음도리를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여지없이 흩어지곤 합니다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내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모르고 물질세계의 50%만 보고 항상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이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속고 남의 행동을 보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니, 자기를 끌고다니는 주처의 참 자기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만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시여! 당신은 말할 수 없이 자비하신데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하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색경을 봐라, 거기에 있느니라"하기에 색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생긴 내 얼굴만 보이지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했는데도 미처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전을 많이 봤습니까? 설법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 그걸 미처 모를 수 밖에요.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그러다가 "색경을 봐라, 네가 손을 쳐들면 나도 손을 쳐들 것이고, 네가 찌푸리면 나도 찌푸릴 것이며,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클 것이고, 네 그릇이 작다면 나도 작을 것이며, 네가 울면 나도 따라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 뜻을 알고나서는 그 자리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도 몸이 고달프다는 생각도 없었고, 못 먹었다는 생각도 없었고, 괴롭다는 생각도 없을 뿐더러 나 홀로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높이 앉았다고 해서 높이 앉은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습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저렇게 등상 위에 높이 앉아 계시다고 해서 높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생활하는 그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자비를 베푸시면서 찰나찰나 들고 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의 중생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생들을 모두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물질에 젖고, 말 수단에 젖고, 배워서 아는 게 많은데 젖고, 습에 젖어서 벗어나질 못하고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지 않는다면 죽은 세상을 어떻게 맛 볼 것입니까? 죽는 것도 반쯤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만 생산이 될 것입니다. 아주 죽는다면 다시 태어날 것이고, 아주 죽지 못한다면 고생을 하면서 길게 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아닌 까닭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이관사관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살 양으로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몸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죽는다면 몸도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고운 마음씨로 부드러운 말을 하며 남들을 이익하게 해줄 수 있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혹 "비구니인데 뭐 얼마나 알겠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의 차원이지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물 한 조기도 불교 아님이 없으리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의 모든 생명들과 바람 · 흙 · 물 · 불, 아니 산천초목의 나무 한 일사귀도 불교 아닌 게 없거늘 어찌 사람인데 비구니여서 모자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돌 하나 굴러 가는 걸 보고 발부리를 채여서 발이 찢어져도 이것이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바로 증득할 것입니다.

돌도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이 법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상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놨을까요? 그러니 하나 하나가 생명이 있어서 이심전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끄달리지 않고 자유인의 경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항상 말을 합니다만 재미있지 않고 딱딱하기만 하겠죠? 그러나 그 재미없는 이야기들이 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웃기기나 하고 과거 이야기나 한다면, 여러분은 웃고 즐기겠지만 여러분 속의 여러분은 아마 실망하실 겁니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69)

그대는 예순살이라도 청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 주고 길을 밝혀 준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하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불법을 알면 살아가는 이치가 즐겁다.

불법을 알면 환희에 찬 내 마음이 일체와 더불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음을 느끼게 된다.

불법은 일체 중생을 버리는 법이 없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오직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아름다운 향기로 모두를 감싸준다. 고로 불법을 아는 삶은 고(苦)가 아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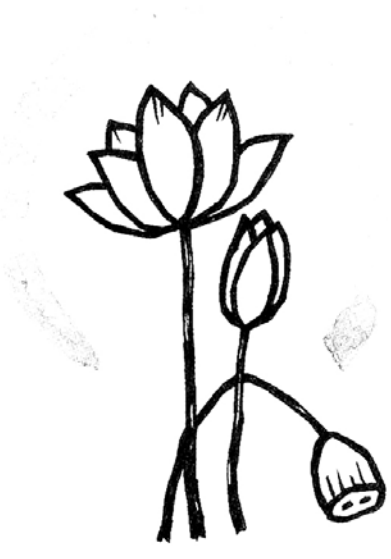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을 뜻하나니/장미빛 볼, 붉은 입술, 강인한 육신을 뜻하지 않고/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과/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참신함을 뜻하나니. …/때로는 스무살의 청년보다 예순살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

그렇다. 인생의 깊은 샘에서 끊임없이 에너지가 솟아오른다면 예순살 노인일지라도 스무살 청년보다 더 활기찬 삶,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시인의 말처럼 청춘이란 연령의 청춘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청춘인 것이다. 따라서 스무살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예순살의 청년도 있을 수 있다.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다. 고로 어떤 생명체든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과정을 밟는다. 심지어 모든 사회제도나 질서, 문화적 관습들도 그런 과정에 맞춰져 있다. 때로는 짝 짜여진 틀처럼 그런 과정이 역으로 우리의 삶을 구속한다. 우리는 속절없이 자신의 삶을 그 과정에 맞게 채색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느 새 삶이란 다 그런 것이라며 체념한다. 육신의 나이테가 뭐길래 거기에 얽매여야 한단 말인가? 늘 천진동자(天眞童子)로 살면 안되는가? 만년청춘의 역동적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면 안되는 일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단언한다.

'그대가 기개를 잃고, 그대의 정신이 냉소주의의 눈과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스무살이라도 늙은 이라네. 그러나 그대의 기개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타고 있는 한, 그대는 여든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네!



인생이라는 게임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다. 그 둘은 이상하게도 동전의 앞 뒷면처럼 붙어 다닌다. 마치 우리들과 시소타기를 즐기기라도 하려는 듯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태우고선 오르명 내리명 한다. 즐거움이 느는가 하면 그 속에서 괴로움이 싹 터 자라나고 괴로움이 커지는가 하면 다시 즐거운 일이 생겨 그 괴로움의 쓴 맛을 잊게 한다.

사람에 따라서 혹은 때에 따라서 시소가 한 쪽으로 오래 기울기도 하지만 인생은 결국 고 · 락의 시소게임이다.

이왕 한 철 사는 인생인데 늘 청춘으로 살 수는 없을까. 늘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는 없을까. 그 방법은, 그 해답은 불법 속에 있다. 불법은 우리가 왜 사는지 가르쳐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나아가서 청춘으로서 길게 사는 법, 괴로움을 멀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제시해 준다.

불법 속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청춘의 샘이 있다. 퍼내어도 퍼내어도 줄지 않는 즐거움의 샘이 있다. 바로 마음의 도리이다. 그러나 늘 청년의 에너지가 샘 솟게 하는 일, 즐거움의 샘이 고갈되지 않게 하는 일만은 각자에게 달려 있다. 각자의 마음먹기.

육신의 나이테를 피해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마음의 나이테는 자신들이 하기 나름이다. 육신엔 정년이 있고 노년기가 있겠지만 마음엔 정해진 정년도 없고 노년기도 없다. 시인의 말처럼 여든 살이 되도록 청년정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낙관주의, 자신감, 긍정적 사고…, 그렇게 한 생각 돌리는 거기에서 청년의 샘은 솟아오른다.

괴로움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비관적인 생각으로, 냉소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더욱 커진다.

반면에 실망과 공포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신념과 기개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경계에 맞서면 삶의 색깔은 서서히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마음먹기. 불법은 그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샘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불법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감싸는 쉼터가 되기도 한다. 거기엔 언제나 아름다움과 희망과 기쁨이 있고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 고로 불법을 아는 삶은 고가 아니다.

협찬 : 김교도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이 천차만별 살림살이 합니다

☞ 15면에서 계속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눈 뜨고 감고 앉고 서고 하는 생활을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해요. 그놈이 무엇인고 하고 의심내기 이전에 일체를 그놈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해요. 지금처럼 밝은 세상에 "그 뭣이 뭣고"하기보다는 일체를 그놈이 하고 있구나 하고 뛰어 넘어가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 생전에 오고 감이 없이 오

"색경을 봐라
네가 손을 쳐들면
나도 손을 쳐들 것이고
네 그릇이 크다면
나도 클 것이고
네가 울면
나도 우는 것이니
따로 있다고 생각말라"

고 감을 알고, 들은 사이 없이 듣는 걸 알고, 말하는 사이 없이 말하는 걸 알며, 맥을 브되 보지 않는 걸 알고, 저 구름이 스스로 오고 가는 걸 알고, 인간이 스스로 생하고 멸하는 걸 알고, 망상이 망상이 아니라 마음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도리를 증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다음에 뚜껑만 열면 모습을 최상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衆)이라 함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중은 계·정·혜 삼학을 고루 갖춘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도 정에 들고 혜도 정에 들어서 계를 지킨다 안 지킨다가 없이 그대로 여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중(衆)이 되어서 어느 소임을 맡든 수천 수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장부로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국가의 역사도 거기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산천초목을 쳐다보고 가슴 속에 흘리는 눈물이 한 방울의 피와 같이 바다를 메꿀수 있는 한 방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역대 조사와 일체제불의 마음이 접근이 된다면 그대로 여여하게 행을 할 수 있으니, 그때 비로소 역대 조사들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일체제불의 마음도 알 수 있으며 바람의 마음, 풀 한 포기의 마음도 알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본래 나빠서 나쁜 짓을 하는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득이 들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팔자·운명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팔자를 만들고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얘야, 저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것이 보이느냐?"하고 옆에 앉아있는 스님



그림 · 최주현

더러 물었더니 "안 보입니다" "그래, 안 보이긴 하나 돌아가는 건 알지?"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요.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돌아가는 불바퀴에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해도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맡겨놓으면 닿는 대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건성으로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으나 용도에 따라서 굳은 믿음으로 너만이 이것을 녹일 수 있다고 진실히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을 하는 반면에 상황에 따라서는 남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거짓 아닌 거짓말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이것을 융통성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못 생겼든 잘 생겼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맡겨 놓을 때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타 버리고, 갈아져버리고, 부서져버리고, 녹아버려서 홀연히 여러분의 참자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맛을 본 분들은 "내가 이만하면 깨달았구나" 하고 만족해 할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절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망상을 갖지 마세요. 견성했다면 그건 겨우 땅에서 싹이 나왔을 뿐이지 그것이 다 길러져서 이심전심으로 조화를 이루고 돌아갈 때 비로소 들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르러도 깨달았다는 말은 못합니다. 열매가 맺어서 무르익어 온 누리를 두루할 때, 그 씨를 되심어서 세세생생 끝간데 없이 먹일 수가 있는 실과가 돼야만 이름해서 구경 경지에 이르러서 과거·현재·미래를 통달해 참 인간이 돼야만 자유인이 되는 것이며, 그 실과 하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공부 가슴에 닿지않아요

문 마음공부가…, 저는 절에 다닌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아직까지 제 가슴이 닿는 것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 생활하면서 앞에 닥치는 대로 믿고 놓으세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불바퀴에 맡겨 놓으면 부서지고 타서 녹아 없어집니다. 과거의 업보·유전·영계의 문제, 인과가 다 녹아 없어져서 본래의 자기를 발견하게 될테니까요. 그러니 열심히 정진하세요.

한걸음 한걸음 걸으세요. 초등학교 학생이 갑자기 대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스스로 알게 되겠죠. 우선 모든 것이 자기 한마음 주인공에서 들고 난다는 것을 믿고 맡기며 사세요.

그래요, 항상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느냐구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공했는 데도 말입니다.

누누히 얘기합니다만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사위가 되며, 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마음 가졌다가 금방 저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 때 나라고 하며, 어떤 일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죠. 유와 무가 하나로 돌아가는 것부터 알아야 하나마저도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 말마따나 모아 모아 닥치는 대로 되돌려 놓으세요. 일체를 그놈이 하는 것이니 그놈이 해결할 수 있고, 안되는 일도 그놈이 성사시킬 수 있으며,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며, 비관하게도 하며, 어떠한 생각이 들고 어떠한 마음일 때에도 나온 그 자리에 맡겨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부해서 누구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반의 중생들을 ㄷ 건질 수 있는 마음의 실천 궁행을 할 수 있어야만 나도 좋아 싱긋이 웃을 수 있고, 여러분도 좋아 싱긋이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도리를 통달한 분이 한번 웃는데, 우주 법계가 함께 웃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질문하나 드리지요. 만약에 이 물음에 대답을 하면 내 상을 주리다.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가 과거라면 어떤 게 옳겠습니까? 현재 아닙니까?(대답하는 이 있음).

그렇게 물질세계에서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땅 속에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오도록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거름도 더 줘야겠고 북돋아주어야 겠고….

여러분이 그릇이 켜져야 나도 더불어 커질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작으면 나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은 그릇에다 한 드럼통의 물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종지라면 나도 종지일 수밖에요. 공부들 열심히 해서 항상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부드럽게 말을 하며, 잘 잘못이 있다 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며,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만 해 나갈 수 있다면 큰 대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온다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하고 나온 그 자리에다 되돌려 놓는다면 스스로 참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스님이 팥죽을 쑤다가 팥죽이 부글부글 끓어 방울지어 오르는 것을 보고 죽을 젓던 주걱을 가지고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하면서 주걱으로 내리쳤다 합니다. 그랬듯이 여러분 속에는 악업, 선업들이 모여 잔뜩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업 선업 속에서 수없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떤 사람의 솥에서 방울 지어 나오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는 것이죠. 그러니 울화가 치미는 것, 보고 들음에 비위 상하는 것, 할 것 없이 모두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시대를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가정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다 보면 그 사람은 넝마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갈갈이 찢어진 넝마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해도 진정으로 맡겨 놓을 때 행복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돈벌레가 다리가 그렇게 많아도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가듯이.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아니어서 큰가 하면 작고, 작은가 하면 큽니다. 그리고 사계절도 사계절 나름입니다. 가을에 장마가 들었다 해도 사람이 많이 피해 보는 때가 있고 적게 피해 보는 때도 있습니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을도 가을 나름이요, 봄도 봄 나름이며, 겨울도 겨울 나름입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서 업보를 만들고 유전을 만들며 인과를 만드는 것이죠. 또 지렁이나 벌레들을 하찮은 미물이라고 업신여기지만 여러분 뱃속에는 없는 게 없이 모습도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놈들이 소임을 맡아서 운행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레를 보면 업신여기고 징그럽다고 하겠습니까? 모습이야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습니까?

마음이 착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남들과 같이 나눠 쓰지만 욕심 많고 못된 사람이 돈을 벌면 엉뚱한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도 독 있는 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고 약풀이 이슬을 먹으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이러니 누구 탓입니까? 다 여러분 탓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사람이고 벌레고 업신여기지 말고, 배신을 당하고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선원에는 정신적으로 잘못된 분들, 백혈병·암·속앓이 등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병들을 재료 삼아서 공부하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의사가 있어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단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세균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파업을 일으켜서 잘못된 거라면 거기서 가라앉히고 거기서 낫게 해야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은 몸이 피곤하고 몸에 병이 들면 인생이 허무해서 살 맛이 안나며 죽고만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서 오히려 이 도리를 알아야겠다는 각오가 섭니다. 구름이 한데 모였다가 흩어져서 다른 구름덩어리와 다시 모이듯이 인간도 사대로 흩어져서 바람으로 물로 불로 흙으로 흩어져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모의 뼈와 살을 빌어 몸을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죠.

인간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못 쓰면 소로도 태어나고 독사로도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며,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뛰어난 사람으로 태어나며, 이 세상을 누빌 수 있는 통달한 성인 성자로 태어날 수 있으니 이거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이 천차만별의 모든 살림살이를 들고 내며 거기서 한다는 걸 믿고 맡겨 놓아 좀더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가지세요.

나무도 고목이 되면 껍질이 흐물흐물해지고 진물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늙으면 몸이 쇠약해지고 말을 하면 입가에 뭐가 끼이기도 하는군요.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입가에 뭐가 묻어나오면 흉을 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러는군요. 나는 어려서부터 불쌍한 사람들에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가져다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갖다 놓으면 아침에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생각으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때는 굶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때니까요.

그러나 내 몸이 보이질 않아야 가지고 갈텐데 내 몸이 보인다면 붙잡히고 말 것이니 어떻게 해야 가져다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그후에 공부하면서 일입니다만 어느날 길가에 버려진 키를 집으라는 거였습니다. 키 하나를 들려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그땐 알지 못하고 키 하나를 줘서 내보내다니 그게 뭔가 하고 의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 벼는 절구질을 해서 찧어놨으나 까부를 줄 모르니 닦으라는 소리였습니다.

벼를 절구질 했으면 까불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키를 하나 줘서 내보냈을 밖에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기도 했고, 또 어디 갈 자리를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바닥이 차면 그걸 깔고 앉고, 풀밭에 앉을 때도 깔고 앉고 그랬어요. 허허허, 나 참 재미있게 살았다구요. 지금 생각해 보니 얼마나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키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고 다니던 어느날 홀연히 키가 아니라 키인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설법을 들은 것도 아니니 미쳐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암스님을 찾아가서 자꾸 점검을 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공부하려고 바짝 다가서지 않았던들 어찌 공부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더욱 결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이니 하는 등 마는 등 하지 마시고 더욱 정진하세요.

천정의 전구를 보세요. 모습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전력이 똑같은데 어찌 따로따로이겠습니까? 전력이 없다면 빈 전구 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척척 다 떼어버리겠지. 마음대로들….

공부를 하고 못하고는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데는 먼저 오고 나중 오고가 없습니다. 법을 이어받는 데는 선, 후가 없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들 공부하십시오.

'내가 이만하면 깨달았구나'
망상 갖지 마세요
열매가 무르익어 그 씨 되심어
끝간데 없이 먹일 수 있어야
과거 현재 미래 통달해요

"믿고 놓으면 업보·유전 녹아 본래 자기 만나"

"잘못된 것 남을 원망말고 내탓으로 돌리세요"

협찬 주인공

여시아문의 새책
대행 스님의 신행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앎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눈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빚어낸 깨달음의 和音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A5신 410쪽
여시아문 펴냄
값 5,000원
이 책에 소개된 38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15)부터 140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 난에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난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해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건 강 •

암·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결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제3의학·심요법

TEL : 0552-585-8118·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한방암정보 02) 700-6366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밀교·기공·지압·쑥뜸

본래의 건강을 찾습니다.
당뇨·고혈압·간경화·관절염등
※ 3~7일간 지도 ※

대한불교조계종 **如來院**
능인 간병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39-11호
0351-875-0342/015-8487-3674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스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해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동양철학(명리) 학인모집중

●인원 : 5명
●철저한 개인지도로 전문가로서의 말문을 열어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자님께 무료지도함.

032)865-9475
011)765-9475
성원사 용현 포교원 석천 합장

• 불교용품 •

氣明緩屛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맑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워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배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02)897-7731
016)340-4459

• 불교미술 •

탁자,닫집,법상,문짝,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시흥(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쑥전함
● 음성(심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장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강탁 강성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 구인구직 •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3개월 졸업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 장
☎ 02)482-4550, 488-1569

투자하실 분

◆지회는 설악산 가는 길에 위치한 홍천소재의 공공개발지역 근거리에 자리한 넓은 주차마당이 있는 휴게소와 올타리하는 **큰시설을 갖춘 주유소**입니다.
◆자본투자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공사직 퇴직이후 새로운 인생을 미래의 땅인 강원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실 분 방문상담 환영!

0366)435-8451
소장 정 회 성

사무직 여직원 구함

■ 23세 미만 미혼여성
■ PC 경리 가능자
■ 불교신자

은평구 진관외동 488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02)385-8205~6

모 십

(중형승용차 소유)

⊙ 관리 간부사원

출장관리	3명
내근관리	2명

⊙ 자격 : 40세 고졸이상

(주)테크 교역
02)3453-0562~3

• 수련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분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요양·기도·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용굴산 종합심신 수련원

◆ 一東 禪寺 ◆

전통예술과 고유무술을 한 곳엣 배울 수 있는 종합 수련원으로 대금, 태평소, 가야금, 바라춤, 전통무용, 사물놀이등과 선무도, 봉술, 전법, 호신술 등을 지도하여 文, 武, 藝를 겸비한 全人敎育의 場을 펼치고자 하오니 우리 문화와 예술에 관심 깊은 분의 많은 수련을 바랍니다.

관 입방 희원은 매주 화·목·토 수련가능
관 스님 참자는 특별 개인지도하여 출장지도, 단체지도도 가능함
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도자 지격부여(티 무술 유단자도 환영함)

0523)82-5074, 388-0921(FAX 겸용)

• 인 쇄 •

다모인기획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옵셋

T. 02)275-2650
F. 02)268-7421

대흥당 필방

02) 732-7326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 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장의·납골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종합납골당 '영묘각'
개인단/부부단/가족단/문중단/봉밍/합동봉인 영구위패봉인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이직도 다주고이의 순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시장사 직원 100명의사에서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례를 위한 도우미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다수 진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저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우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 / 장의부 / 영묘각 사무국
24시간365일상담/출장예가 0321)28-108/032)6673-404

• 법회·공연 •

●무료담선법회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수·금 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국악·전통무용 공 연

경로 · 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 · 상담 · 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 기 타 •

무불스님 ● 달마보급



011-841-3591

포교원 · 불교유치원 양도

◇지 역 : 수도권
-1급포교원으로 자리매김
◇불교유치원
-국내 최정상급 시설(자타인정)
◇130평, 원생 100명이상
◇포교원 : 유치원 합 2억에 양도함. 단, 정법결철 자격있는 납자에게만 양도함(부동산 사절)

02)503-4883 주지스님

찬불가 작곡 독창 · 합창 지도함

- 경희대 음대 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수료

불자테너 황영일 합장
02)577-0188
017)558-1969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주)광 진 불 사

◆토굴, 절터 별장터(5천만원)

설악산 봉정은 봉황의 머리 횡성의 봉복산은 봉황의 배, 봉황의 꼬리인 봉미산 두개곡 만나는 부처골, 강남향 일출일몰, 전망일몰, 청정지역, 암벽약수, 2층 황토토굴, 겉 · 전기 · 전화 - 전 : 470평 잡실에서 1시간 20분 소요.

◆토굴암자 전세(2천만원)

괴암괴석의 소리산 소금강계곡 정남향, 차돌알벽 약수대량, 산책로 일품, 운창한 수목(산방에정지), 법당 21평, 사무실 방 4평 : 기름보일러, 방3개, 세면장 5평, 공양실 7평, 창고
※ 비구니 스님, 불교학자 요망

0338)71-7745

◆토굴 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 방3)
◆ 최고의 명당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 위 치 : 경희대 입구 회귀역서 2분거리
◇ 평 수 : 4층 · 5층 약 70평
◇ 가 격 : 4천, 월85만원
◆ 특 징 : 최고급 시설완비
◆ 교통편리한 곳임

011)286-2680

◆ 토굴(전원주택)

◇ 위치 : 경북 청도읍(5분거리)
◇ 대지 : 大 208평
◇ 건물 : 신축 30평 주택 (97년 11월 준공), 기타 35평
◇ 특징 : 주변경관 양호, 도로양호,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 곳 (인접토지 확장가능)
◆ 가액 : 7천만원

0542)71-0847

◇ 부산시 진구

◇ 국유지(대지) : 1천평
◇ 대웅전(27평), 산신각, 요사체 2동(60평)
◇ 울창한 숲속(대웅전 뒷편), 오륙도 앞바다가 보입니다.
◇ 가격 : 2억 5천(조절가능)

017)585-0067
012)1568-6936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내
◇ 법당, 요사채, 산신각(30평)
◇ 부지 : 6만 2천평
◇ 산자수명 지기충만 연수원, 기도처, 고시원 최적지
◇ 창녕군청에서 3분거리
◇ 포장도로 주차장 완비
◇ 토속음식점 2동포함
◇ 매도가 : 2억 8천만원

051)817-1242~4
016)565-3366

대구시내 포교당

◇ 급히 양도함
◇ 보증금 : 2 500만원
◇ 법 당 : 60평

053)943-4170
016)586-3669

■ 사찰 임대하실 분

◇ 위치 : 종로구 홍지동
◇ 평수 : 60평
◇ 매가 : 2억(전세도 가능)
◆ 비어있는 상태, 바로 입주가능

0333)683-5820
02)394-1277

◆ 사찰전세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체 : 주방·거실·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 급매(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 평수 : 550평
◇ 법당 : 17평(단층스레이트 건물)
◇ 요사체 : 18평(방3칸)
◇ 삼성각 : 5평(목조건물, 단청완료)
◇ 지하수 : 200m 암반수
◇ 전기시설(농사용전기 사용) 및 주차장 완비(사찰마당까지 주차함)
◇ 매매 및 전세 가능
◇ 양도금액 : 1억9천(절충가능)
◇ 전세금액 : 6천만원

011-563-0108/0551)21-5737

◆ 사찰 양도 안내

◇ 사찰부지 : 750평
◇ 대웅전 : 30평(완전목조로 주산도 단층완료, 법당시설 A급)
◇ 요사채 : 20평(목조), 50평(지하), 방8개, 거실 大2, 산신각 10평(돌벽), 채봉실 18평
◇ 특 징 : 문화재급 사찰로 산세 · 물 좋고 교통편리, 주차장 완비, 서울과 5분 거리(금천구 대한전선 다리건너 수화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 시 설 : 일체 무료기증
◇ 양도매가 : 17억 5천(절충가)

02)899-4281

◇ 위치 : 인 천 승이로타리 중심가

◇ 법당 : 3층건물 3층 45평
◇ 방3, 욕실, 주방
◇ 시설완비
◇ 전세 : 1,000만원

032)886-8785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부지 : 60평
◇ 건평 : 36평
- 임법당 13평
- 방4칸, 부엌, 목욕탕
◇ 가격 : 1억 2천만(절충가능)

02)936-4785

◆ 수행처토굴(암자)구함

현재 수행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금전 거래없는 토굴〈암자〉 구합니다.
불심 돈독한 불자님 연락 바랍니다.

석 도 휴
017)565-5619

사찰 운영하실 분

◆위 치 : 경주시
◆부 지 : 1,000평
◆법 당 : 25평 / 요사 : 25평
◆가 액 : 2억 5천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계곡이 접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 즉시 법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률 및 건축상담도 무상으로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80)512-4447
호출상담 : 012)1648-6334

※ 출장중이 많습니다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 본 도량은 정법도량이므로 무속인, 보살, 일반인 및 대리상은 절대 사양합니다.

◇ 전세 4천 (월세도 가능)

◇ 기도도량

0582)536-2195
무안법사

◆ 포교당 양도

◇ 위치 : 서울시 가동구 중심가
◇ 법당 : 36평(3층건물 3층) 총 50평
◇ 방 3개, 주방(15평)
- 샤워, 창고, 기타시설
◇ 월 50만원
◇ 싯가 : 보증금 및 시설일체 3,000만원
※ 현재 성업중이며 30여년간 유지된 포교당임

02)488-1569/016)349-1563
혜능선원 원장 일관 합장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 (황토흙방 3)
◇ 가액 : 7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015)8483-5963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 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 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有), 시설비 -1천 3백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344)979-0212
011)667-0212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채 4동(총건평 90평),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 (전세가능-4천만원, 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사찰 건축 및 목제 안내

⊙ 내용 : 사찰건축, 사찰조경, 단청, 목조주택(한옥,황토방) — 전문

⊙ 사찰목조안내 :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 확보
·대웅전 : 12평.20평.24평.34평.54평 108평을 지을 목조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건축하실 스님 · 불자님들 연락바랍니다

◆ 사찰 운영하실 분

◇ 위 치 : 원주시내 중앙통
◇ 사찰부지 : 176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40평 × 방 5개
◇ 매 가 : 1억 5천

※ 그외 사찰부지 및 전세 사찰 다량확보 연락바랍니다.
※ 사찰양도하실 분 구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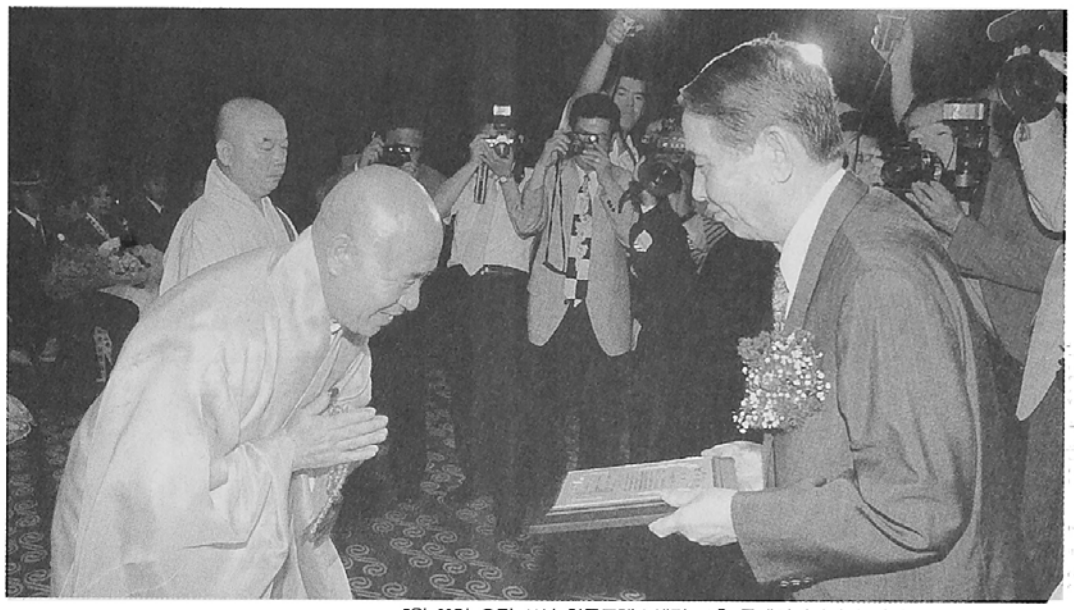
(주)천운 나강민 합장
0371)762-0101/011)735-4168/012)935-4168

재소자 사랑 23년…"불성은 같아요"

교정대상 법무장관상 수상 정각스님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가 사회정의와 재소자 교정교화라는 성스럽고도 어려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재소자의 인권과 뒷바라지로 헌신한 사회 각계 인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교정대상'. 올해로 제 16회째를 맞아 23년동안 묵묵히 재소자를 돕고 자활의지를 심어온 목포 보현정사 정각스님이 자비상(법무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포교 낙후지역인 호남권에서 보현정사를 목포지역 최대의 사찰로 중창시키면서 지역불교의 새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1년 365일 어떤 형태로든 법회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는 보현정사. 포교와 복지라는 불교 역량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고 있는 보현정사 주지 정각스님(한국불교법륜종 이사장)은 21세기 포교의 등불이 되고 있다.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5월 22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영예의 본상 자비상을 받고 있는 정각스님.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상식에는 박상천 법무부장관, 차일석 서울신문사장,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교정기관장 47명과 스님을 축하하기 위해 목포와 서울에서 동참한 신도 60여명 등 2백여명이 자리했다. 스님은 이날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16명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해 김대중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재소자 교화와 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환담했다.

약력
- 1938년 전남 무안生
- 61년 건국대 법정대 행정학과 3년 재학중 출가
- 68년 선원 5안거 성만
- 68~70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2교구본사 대흥사 총무
- 70년 목포 보현정사 주지(현재)
- 71~89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전남종무원장
- 72년 목포교도소 교화협의회 불교위원 (현재)
- 74~91년 목포시 시정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 목포지국 자문위원
- 79년 제3해역사 법당 해광사 건립
- 82년 보현유치원 설립 및 원장취임 (현재)
- 83년 광주지법 소년교화위원(현재)
- 84년 해양경찰서 경승(현재)
- 90년 법륜종 중앙종회 의장
- 95년 목표교도소 종교협의회 회장(현재). 유치원설립자 유아교육 전공 이수(중앙대학교)
- 96년 법륜종 재단 이사장(현재)
- 96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현재) 학교법인 정광중고등학교 재단이사(현재). 민주통일불교중앙협의회 상임위원(현재)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79년). 국무총리 표창(82년)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94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표창(94년). 인권옹호한국연맹회장 표창(9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표창(94년)

수계식·독경대회등 열어 재범 방지
무의탁 출소자 취업알선 갱생 도와
종합불교회관 건립 복지사업 앞장

"국가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현실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악을 증가시켜 종교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출가 수행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고보니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제16회 교정대상 자비상(법무장관상)을 수상한 정각스님(보현정사 주지. 법륜종 이사장)의 감회다.

그동안 스님이 받은 수상·포상만도 수십개를 헤아리지만, 이번 교화대상은 스님에게 각별하다. 1970년 포교 사각지대에 속하는 목포 시내 중심에 보현정사를 창건하고 전법과 복지를 지향한 법륜을 굴려, 목포의 상징사찰로 자리매김한 29년의 세월이 되돌아 봐지기 때문이다.

"30년전 목포는 원불교 천지였습니다. 도량을 세울 터를 찾으면서, 큰일났다 싶고 불심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원력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저 앞만보고 밀어부쳤고, 부처님 가피로 마침내 1년만에 불심의 싹을 틔웠습니다."

스님은 신도조직을 결성하는 작업부터 착수했다. 연령과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단체를 꾸렸고 직업이나 직능에 따라 또 생활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신도회를 결성하도록 이끌었다. 그렇게해서 보현정사는 총신도회를 중심으로 여신도회 지장회 자비회 보리수회 영산회 관음회 선행회 청년화랑단 등 20개의 산하 신도회가 각기 정기법회를 구심점으로 특성을 살려가며 활동하고 있다.

75년 사찰 내부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불교총림을 이루듯 탄탄해지자, 스님은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 각 분야 참여를 통해 불교 위상을 확대해 갔다.

교도소 가운데 목포는 재소자가 1천7백여명에 달해 그 수용규모가 전국에서 몇 째안에 꼽힌다. 75년 목포교도소 독지방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시작한 재소자의 교정교화 활동은 정신순화는 물론 신행지도 수계식 독경대회 위안잔치 사회견학 등 행사를 벌여왔고, 교양도서와 교화용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특히 출소이후의 갱생을 위해 스님은 탄탄한 보증인이 돼주었고, 무의탁 출소자 생활지원 취업제공 등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왔다. 지금까지 출소자 48명을 불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시켜 재범은 꿈조차 꿀수 없게 했다. 재소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교화프로그램으로 '교도소 독경대회'는 목포교도소가 효시로 7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85년부터 지금까지 불우재소자 35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인당 1만원씩 영치금을 넣어준다.

"교화활동의 보람은 새사람이 되어서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무의탁 불자 재소자들은 일단 아침 6시에 출소하면 우리 절에 옵니다. 많을 때는 7명까지도 함께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오는 첫날 아침공양은 반드시 한상에서 같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절의 불문율이지요."

스님에게 가장 고맙고 가슴에 남는 사람은 전과7범의 안모씨. 출소한 그를 신원보증해줘 (주)보해에 취직시켰고, 신도 딸과 중매까지 서 결혼하게 했더니 3남매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산청에 있는 한 사찰의 신도회장을 맡아 포교에도 열심이다. 그럼에도 재소자 교화활동은 쉽지만은 않다. 재정적인 지원도 따라야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비구니스님들에게는 특히 더 부담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지 3만평 신도 1만2천여명의 보현정사. 남도불교의 중심사찰로 자리매김했지만, 스님의 원력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목포시 하당 신도심 중앙지역에 서게될 불교회관과 장의포교를 이끌어낼 극락전을 보현정사 경내에 조성해 이를 토대로 생산불교 생활불교를 벌이는 일이 스님에게는 더욱 큰 불사이기 때문이다.

대지 2백평에 지상7층 지하1층의 연건평 1천여평의 불교회관이 올 연말 완공되면 임대사업을 통해 그 재원으로 원활한 복지사업을 편다는 것이다. 손벌려서 이루어지는 복지활동은 한계가 있고, 불공으로 사찰운영이나 포교활동을 펴는 것은 더이상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스님은 생산불교를 일구고 있다.

"돈은 칼과 같은 것입니다. 칼은 의사가 쓰면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쓰면 죽이는 도구지요. 마찬가지로 돈도 깨끗한 돈이 가난하고 소외된 중생들에게 베풀어지면 곧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스님은 사찰운영과 포교에 굳이 비법이 있다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으로 신심과 원력과 끊임없는 참회의 3요소가 따라야 한다고 제시한다. 일례로 스님은 출가이후 단 한번도 빠짐없이 아침예불과 아침발우공양을 지켜오고 있다.

"21세기가 원하는 불교와 스님의 역할은 시중에서 중생을 품어안아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끝없는 중생사랑은 IMF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가 되고 있다.



목포 최대 사찰 보현정사 총 도량 면적 3만여 대지 9천평에 자리한 목포 용해동 보현정사. 20동의 전각과 요사들이 마치 계율에서 개차법을 쓰듯 전통과 현대양식으로 어울어져 중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 8층석탑 뒤로 대웅전을 중심해 오른쪽으로 나불전 극락전 원통전과 영산전 종각 해탈문이 있고 그 아래 유치원이 들어섰다. 대웅전 왼쪽으로 요사(3층)와 회관이 자리잡았다.

산하단체

- 총신도회 회장 권이담
- 여신도회 회장 김이숙
- 지장회 회장 임정순
- 자비회 회장 장복례
- 보리수회 회장 배은아
- 관음회 회장 오영자
- 영산회 회장 백여영
- 정각회 회장 정순남
- 반야회 회장 김순자
- 금강회 회장 이충엽
- 선행회 회장 김공님
- 법성회 회장 정인숙
- 성도회 회장 김금자
- 자선회 회장 김화순
- 보현회 회장 홍완식
- 달마회 회장 김희태
- 백련회 회장 김경현
- 청년화랑단 단장 임병철
- 중고등화랑단 단장 배형교
- 초등연화단 단장 강효성

법회안내

일반/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 매주 수 오후7시
대학생/ 매주 목 오후6시
중·고등학생/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 매주 일 오전10시
*특별법회/매월 3일·7일 오전10시

월례법회

보현회/ 셋째주 일
달마회/ 7일 오후7시
백련회/ 첫째주 수
법성회/ 15일(양) 오전10시
보리수회/ 1일
선행회/ 26일(양) 오전10시
금강회/ 5일
반야회/ 7일
영산회/ 10일
성도회/ 13일
자선회/ 15일
정각회/ 17일
지장회/ 18일
관음회/ 20일
자비회/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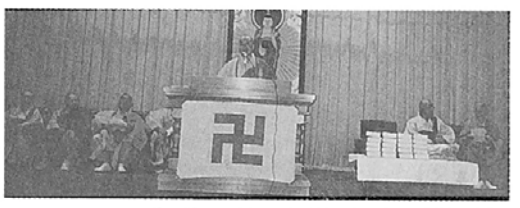
교화활동 이모저모



위문교화 영·호남 교화위원들이 한자리에 자리한 가운데 친선교류를 위한 목포교도소 재소자 위문 특별교화법회가 94년12월 목포교도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각스님은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문으로 재소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회견학 93년 목포교도소 모범재소자 17명이 보현정사에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맛있는 공양도하면서 1박2일의 사회견학 시간을 보냈다. 재소자들을 위해 법문을 하기 위해 대웅전에 입장하는 정각스님.



독경대회 재소자 독경대회는 사회인들이 벌이는 대회보다 더 열띤 '야단법석'을 이룬다. 신심을 강화하고 스스로 불심을 확인케하는 재소자 독경대회에 앞서 정각스님은 독경의 의의와 자세를 들려주고 있다.



농악대 창설 목포교도소는 75년부터 매년 전체 재소자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정각스님의 지원으로 농악대가 창설돼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우리가락에 시름을 달래고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



음식공양 재소자들에게 사회음식은 별식중의 별식이다. 97년 추석, 종교를 떠나 1천여명의 무연고 재소자들을 위해 보현정사 신도들이 '1일 가족'이 돼 푸짐한 음식으로 추석잔치를 벌였다.



연예인공연 연예인 공연은 특히 재소자에게 감동이 크다. 96년 목포교도소 불교종교위원들과 함께 후원해 마련한 연예인 초청 특별위문법회. 1천여명의 재소자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IMF '불교생협'이 뜬다

재활용품 사용 활성화, 우리 농산물 먹기를 실천하는 등 우리 농촌과 환경 살리기운동에 지역 주부불자들이 나섰다. 부천시 중3동 지역 주부들은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이 매주 토요일 열고 있는 재활용 교환매장 외에도 IMF극복과 환경을 살리는 노력을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해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덕유복지생활협동조합은 복지관과 지역주부들로 구성된 발기인 40명이 함께 만드는 것으로, 27일 오전 11시에 창립총회를 연다.

지역주부들 설립 재활용품 알뜰교환
농산물 직거래로 농촌·환경 살리기도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연결해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형식을 띠고 있다. 40명인 조합원은 창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인데,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출자금은 5천원에서 1만원 선으로 부담이 없다.

사찰에서는 석왕사(주지 영담스님)가 95년에 창립한 생협이 처음이다. 석왕사는 직거래 매장형식으로 농산물 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가,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이다.

석왕사의 생협 조합원은 1천세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80%가 신도이고 20%는 지역주민, 개신교도, 가톨릭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담스님은 "우리 농촌살리기, 환경운동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신도조직이나 신행생활에 있어 신도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할 수 있었다"며 "3년동안 운영해 보니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복지관에서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3년째에 접어든 석왕사 생활협동조합은 주부들의 먹거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질 복지관 생협과 석왕사 생협은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 지역 주부들이 국산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석왕사에 이어 덕유사회복지관이 추진하는 생협운동은 IMF극복을 위한 생활소비문화 개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교계에 생협운동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032)326-0502

강지연 기자

건강 365일 〈20〉 백급



이만성 〈영재한의원 원장〉

백급(白芨)은 대암풀이라 하며 난과(蘭科)에 속하는 다년초이다. 악창(惡瘡), 두통(頭痛), 타박상, 어지러움증, 부인대하증, 유방염 등에 좋고, 각종 염증을 없애며 새살을 나게 하는 생기(生肌) 작용이 있다.

옛날 한 장수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살고 있었다. 근위대장에 임명하겠다는 황제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가는 도중 서융족의 장수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산해관에 도착할 무렵 또 서융족 십여명과 싸우게 됐다.

장수는 그들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칼을 맞았고 화살까지 맞아 중상을 입게 됐다. 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다들어 주리라"고 말했으나 농부는 "소인은 돈도 싫고 벼슬도 싫사 옵니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태의원(太醫院)의 약서(藥書)에 이 약의 효능을 기록하여 만백성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옵니다"고 말했다.

염증 없애며 새살나게 하는 다년초
태음인 출혈질환 지혈효과 뛰어나

천신만고 끝에 돌아와 황제 앞에 인사를 드리고 자초지종을 고하였다. 황제는 감동을 하여 태의(太醫)를 부르고 치료케 하였으나 화살을 가슴에 맞았던지라 호흡이 거칠고 피를 토하는등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다. 황제는 전국에 명의를 찾는 방을 붙였고, 한 늙은 농부가 몇 개의 약초를 가지고 황궁으로 왔다. 농부는 약초를 불에 구어 절반은 가루로 먹고 절반은 상처에 붙이면 곧 치유될 것이라 했고, 얼마후 근위대장은 씻은 듯이 완쾌되었다.

황제는 하도 기특하여 늙은 농부에게 "상을 주리라. 소원

황제는 농부의 이름을 본따 약초의 이름을 백급이라 지었다.

백급은 폐결핵의 각혈, 토혈등 출혈성 질환에 지혈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위염, 위궤양, 관절염등 염증성 질환에도 약효가 있다.

이 백급은 특히 폐기능이 약한 태음인 체질에 잘 맞는다. 태음인은 산소흡입량이 부족하여 탄산가스 배출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 작용이 약해 독소가 침체되어 각종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

복용법 백급 4g, 백지 4g, 감초 4g을 달여서 하루에 두 번 먹는다.

詩 대상에 이소령 '기구'
전북파라미타 백일장

파라미타 전북지부(지부장 도영스님)는 제2회 파라미타 백일장 대회를 17일 금산사에서 1천여명의 청소년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상은 여산고등학교 3학년 이소령양이 시 '기구'로 수상했다.

기 구
이소령

누가 품다 만 마음인가
산인(山人)이 퍼 올린
한 삽 구름이 흐르는
저 산은
누가 달아놓은 아픔인가
산이 슬프게 껴안은
저 바다는,

무의 세계에 침범하였더니
모를 일이 천지라.

나의 출현으로 구름이 부서지니
어린 달의
내 꿈도 부서져 내리고
땅과 멀어지면
하늘에 가까워 지리라 했거늘
하늘은 하늘일 뿐이로구나.

지상
보이는 세상의 크기만큼
무형의 감옥에서
눈을 감지 않고는 답답했어라.

이제는 눈을 감고도
자유로운데…

산중(山中)의 내 집도
속세라
집을 버렸건만

새가
나를 피해 날으니
고독하여라.

아
육망에 검어진 인간이
되더라도

목탁소리가 그리워
나는 이제
기구를 버린다.



◇대한불교소년소녀무용단의 부채춤 공연은 장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온양 · 아산지부 풍물팀 '대상'
청교련 예술경연…전통부문등 20개팀 참가

제11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가 17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각 학교 및 사찰 불교학생회 소속 학생들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주최로 열린 경연대회에서 온양·아산지부의 풍물팀이 대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청협회장상은 부채춤을 선보인 대한불교소년소녀무용단이, 청교련회장상은 광동중학교 풍물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과 최우수상 모두 전통예술 부문에서 수상하는등 올해 경연대회는 전통예술 부문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와 달리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복수참가를 가능하게 해 참가율이 높았다.

총 20여개 팀이 사물놀이, 풍물, 고전무용, 합창, 탈춤 등을 선보인 이날 경연대회에는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선일스님(인천지부장), 지성스님(경남지부장), 광명스님(서울지부장), 이원주 명성여고 교장, 우하수 동대부중 교장, 안은자 명성여중 교장 등이 참석했다.

〈연〉

단 신

익산 파라미타 발대

파라미타 익산지회(지회장 일행스님)가 16일 익산지역 파라미타 회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익산지회는 청소년 문화한마당을 펼쳐 불교 불모지에 가까운 익산에 불교를 널리 퍼트릴 것을 다짐했다.

참나 청소년 예술대전

제3회 참나 청소년 및 지도자 통일·환경·문화·복지 예술대전이 1천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7일 보라매 공원에서 열렸다.

마음의 전화·참나 빛 모임이 주최한 예술대전은 문학·미술·서예·종합예술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초등부·중고등부·대학 지도자부로 참가대상을 나눠 시상된다.

수상자 발표는 6월1일이고 수상작품은 6월1일부터 4일까지 대학로 예총회관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시상식은 6월14일 오후4시 봉원사에서 거행한다.

자연사랑 포스터 공모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총재 월주스님)는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자연사랑 의지를 일깨우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자연사랑에 맞춰 환경보호 자연보호, 공해추방 등 자연과 관련된 것들이다. 직접 작성한 원고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입상자는 6월10일 발표하고, 시상은 13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다.

명성여중 진로체험 발표

명성여중(교장 안은자)은 진로체험 추진 상황 발표회를 21일 개최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개설한 호텔조리연구반 학생 24명의 조리실습 참관 및 시식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정서장애 '놀이치료' 개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설옹스님)는 주의가 산만하고 정서불안이나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만 4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개설했다.

놀이치료를 받고 싶을 경우 미리 예약을 하면 전문선생님과 일대일로 행해지는 놀이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지능, 인성, 적성검사 등도 받을 수 있다. (02) 817-8052

청소년지도사 연수생 모집

문화관광부(장관 신낙균)는 '98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생을 6월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연수대상자 발표는 12일까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11월22일 예정이다.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대회
6월 6일~7일… 여름불교학교 활성화 논의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철오스님)는 6월 6일·7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25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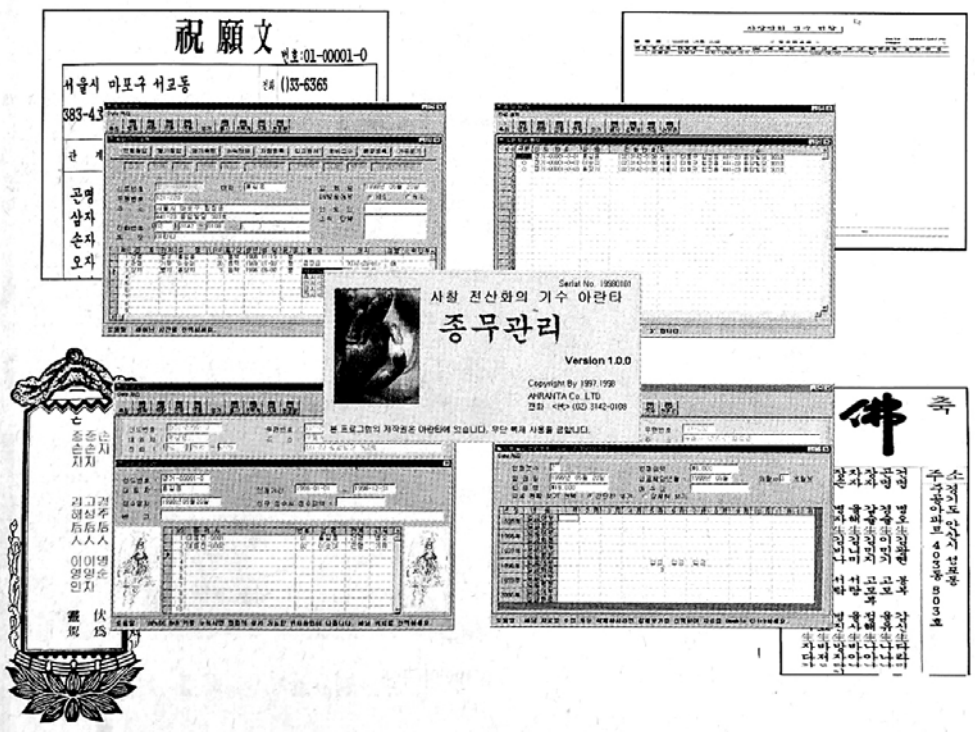
연수대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알맞는 여름불교학교 활성화와 어린이 포교확대를 위해 마련될 계획이다.

연수회는 △어린이법회에 대한 현대적 모색 △IMF시대에 맞는 불교학교 준비와 운영 △다양한 주제별 프로그램 검토 △야외 공동체 놀이 △법당에서 주의집중놀이 △불성계발을 위한 심성프로그램 △어린이에 맞는 수행법 △장애체험 △극기훈련 △창작 찬불가와 율동 개발 등 여름불교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여름불교학교의 효율적 개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띠별로 듣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해낸 일보다 남은 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 하는 사찰 전산화 의 선두주자 아란타

신도관리 전산화 이젠 문제 없습니다.
아란타에서 개발한 종무관리 시스템



어렵게만 느껴지던 컴퓨터
이제 자신있게 시작하세요 !

Windows 버젼 출시 기념 할인판매

사찰관리 프로그램 전문업체로서 10여년 동안의 노하우로 개발한 프로그램 Windows95용 종무관리 시스템

불교계 전산화의 일꾼으로 만들어진 아란타 종무관리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도 할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출력물(축원문,위패,등표..)은 스님의 만족도를 한층 더높일 것 입니다

AHRANTA

스님께서 키워가는 기업 아란타
삼일사이(3142)에 컴퓨터의 백팔(0108)번뇌를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 지원 센타 02) 3142-0108

21세기 사찰 전산화를 이끌어 가는 기업 아란타 서울 마포구 압정동 441-23 동암빌딩 303호 Tel : 02) 3142-0108 Fax : 02) 3142-2329

불자 세상보기

6·4 지방선거 지역감정…흑색선전…금권 난무

"진흙속에서 연꽃 피우자"

유권자·시민단체 '선거감시' 활동 나서

깨끗한 선거는 불국토에서만 가능한 것일까. 19일부터 후보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6·4지방선거전이 예년과 다름없는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선거법을 개정, '돈 안드는 선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정당이 향후 정계개편등 정국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 중앙당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딴나라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정치 '궁민회의'가 있습니다" 등 말장난 정치광고가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있다. 초반부터 정책대결은 없고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지역감정 조장 및 상호비방과 폭로·탈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다수 유권자들은 "이같은 혼탁·과열선거 풍토에서 뽑힌 단체장들이 과연 경제난국을 잘 수습할 지 의문"이라며 "내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안·포부를 제시하고 승패를 가르는 정책경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불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공동대표 손봉호)는 18일 '공선협 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19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후보자 1인에 대한 감시단원을 편성,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게 된다. 감시단은 특히 △식권이나 각종 금품 제공 △상대정당 및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불법적인 청중동원 △선심공약 남발·지역감정 조장여부 등에 대해 '1일 보고서'를 만들어 공선협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한다.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은 19일 지방자치시대에 친환경적인 인사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경후보' 89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와함께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줄 〈정책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 과제를 발표하는 동시에 공명선거 감시활동도 벌이고 있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친환경적인 자치단체장의 10대 조건'을 발표하는 한편,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반환경적인 이력도 조사·공표할 계획이다.

'평택시 공선협' 공동의장인 정견스님(심복사 주지)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 관권·금권선거를 막고 선거를 통해 IMF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먼 미래를 내다 보며 진흙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자세로 개발에 밀려 소홀이 다뤄진 복지·환경·문화행정에 관심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후보자 1대1 감시" ◇공명선거실천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6·4 지방선거 후보자 모니터 자원봉사대원 발대식'을 열었다. 자원봉사대원들이 지급받은 감시용 카메라를 조작해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제공〉

불교의 눈 "바른생각 실천하는 자 뽑자"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우선 자신을 잘 다스린 후, 자비심으로 백성을 가르쳐 불순한 마음을 없애 주어야 한다.…가난한 백성이 밀려오면 창고를 열어 원하는 것을 내주고, 그 기회에 사악한 마음과 탐욕을 떨쳐 버리는 지혜를 가르친다"〈화엄경〉 '가야골프장 해인총림 대책위원회' 법찬스님은 "각 지방마다 유서깊은 전통사찰과 아름다운 산수(山水)가 있는만큼 환경과 전통문화를 사랑할 줄 아는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임영래 사무국장은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은 非 '철새정치인' 중 바른 생각과 실천이 가능한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5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금상첨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들었다

정리해고제를 앞세운 기업의 무단해고와 정부의 임시방편적 실업대책은 노동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면서 급기야 지난 1일에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사태까지 불렀다. 그러나 시위는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악재로 작용하는 등 비난을 받았다. 지금은 정치 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만 하는 때이다. 특히 노사간의 상호이해에 따른 인내와 협력에 국운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들어 양측이 대화를 모색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노사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지와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경전의 말씀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노사협력 "분쟁 일으키면 고뇌 맛보네"

▨고용주는 고용인을 대하되 다섯 가지 일에 힘써 존경해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힘에 알맞게 부리며,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해야 하며, 때에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어야 하며, 때때로 휴가를 주고, 병이 나면 채료해 주도록 하라.
〈선생자경〉

▨고용인은 고용주를 위하여 다섯 가지에 힘써야 하느니라.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 그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도록 하라. 주인의 물건을 아끼고 버리거나 도둑맞지 않도록 하고, 주인이 출입할 때 항상 예절로서 대하며, 주인의 착한 점을 말할지언정 나쁜 점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
〈시가리월육방예경〉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협력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아함경〉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따르니,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美 LPGA 챔피언십골프대회 우승컵을 안은 박세리.

박세리의 무심타법 '세계 평정'

시합전후 "관세음보살"…모정불심도 큰 힘

"훌륭한 골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18일 美 LPGA 챔피언십골프대회에서 우승, 일약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발돋움한 박세리(21). 그녀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승자 답지 않게 앞으로의 포부를 겸손하게 밝혔다.

국력과 인종의 벽을 뛰어넘어 잠자고 있는 우리의 도전정신을 일깨운 그녀의 쾌거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후원자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날마다 밤 10시까지 계속되는 지옥훈련 등 엄격한 자기통제와 끊임없는 채찍질은 혼자만의 고행의 길에서 한줄기 깨달음의 광명을 맞는 것과 같은 감동적인 일이었다. '골프는 가슴으로 치라'는 아버지 박준철씨(48)의 엄격한 지도,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 등도 빠뜨릴 수 없는 성공 요인이었다.

하지만 박세리가 '무심 타법(無心打法)'으로 세계를 평정한 뒤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부처님의 보이지 않는 가피가 있었다. 어머니 김정수씨(45)는 시합기간 내내 계룡산을 찾아 불공을 드렸다. 김씨는 동학사 미타암을 자주 찾아가 기도를 올리지만, 인연닿는 절은 어디나 찾아가 딸의 성공을 기원했다.

박세리 역시 한국에 있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산사에서 기도를 올렸다. 훈련 중 힘이 들 때면 염주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염했다. 시합전이나 후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 왔다.

"불완전한 통치는 추락한다"

인도네시아 32년 철권 수하르토 퇴진



"통치자는 백성이 고통을 호소하기 전에 그것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백성이 태평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 통치는 불완전한 것이다."〈대살차니건자소설경〉

'불완전한 통치는 언젠가 추락될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금 현실에서 입증됐다.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1일 철권 32년의 막을 내렸다. 이란의 샤 팔레비, 마르코스 필리핀 전대통령 등 장기독재자들이 '피플즈 파워'에 의해 물러났듯이 개인의 권력욕을 끝없이 추구한 말로는 하나같이 비슷했다.

"지자체 환경보다 개발우선"

녹색연합 환경공무원 설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지역 개발문제와 연관되면 환경보다는 개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은 지난 4월 한달동안 PC통신을 이용, 전국 2백50개 지방자치단체 과·계장급 환경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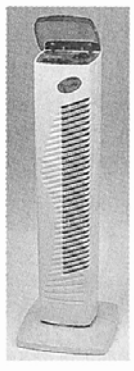
응답자인 1백1명의 환경공무원들 중 95%가 단체장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나,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 상충되면 '지역개발에 더 적극적이다'는 답변이 53.5%에 달했다. 반면 환경보존이 우선한다는 답변은 1%에 불과했다.

"밥 굶는 제자를 돕자"

한국교총 모금, 교사 1만명 동참

점심을 굶는 중·고생이 전국적으로 1만7천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교총은 이달안으로 교직수당 인상이 각의를 통과하는대로 '한명의 교사가 한명의 굶는 제자 맡기' '인상분 2만원 모으기' 등 행사를 통해 총 30억원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성금 기탁 희망자는 국민은행(760-25-0007-680)의 한국교총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한편 성남교육청도 결식아동들을 위해 헌옷등을 팔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랑의 헌옷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다. (0342)706-0167



생상품 "에어콘형 선풍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에어콘형 솔바람 선풍기'.

이 제품은 기존의 날개 방식에서 탈피 원통형 팬을 장치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강력한 터보팬을 채용해 보다 세고 시원한 바람을 공급해 준다.

차세대 감각에 맞는 미려한 디자인으로 공부방, 거실 등 어느 곳에나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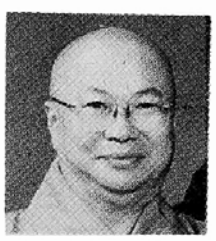
(주)금강전자. 5만8천원. (02)992-5431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묻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시론

인도네시아와 한국

얼마전 경제위기로 인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32년 독재의 수하르토 체제를 붕괴시킨 정치변혁을 맞고 있다. 수하르토의 퇴진이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상황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인도네시아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계적 관심국가로 떠올랐다. 한국의 국익과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 사태는 다측면적 중요성을 안고 있다.

1 두나라 모두 IMF체제 정치와 경제 조율 필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관련하여 논쟁을 정리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싱가포르 前 수상 이광요는 1994년 Diplomacy지에서 서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을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곳의 권위주의는 아시아적 전통의 독특한 가치관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중씨는 같은 잡지에서 맹자의 정치철학을 계승하는 아시아의 다른 전통사상을 내세우며 이광요의 글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인류적 보편성을 옹호하였다. 이후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여러 방면으로 비화하였다.



황 태 연

〈동국대 교수·정치학〉

한국의 과거 유신체제는 권위주의적 '교도민주주의'를 내세운 수하르토 체제를 모델로 하여 탄생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유신체제의 모국에서 마침내 민주화 요구가 터져나오면서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가 달성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유신체제'가 붕괴하는 두 번의 정치변동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이광요를 두 번 이긴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계적 상징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한국을 껄끄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체제의 대부격인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로 나아가면 민주적 가치가 평가절상됨으로써 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한국에게 유리하게 돌아 갈 것이다. 이 경우 한국과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외교에서 정치문화적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태가 "서울의 봄"에 비견되는 것이라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주도권은 그리 쉽사리 정착하기 힘들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울의 봄" 이래 10여년의 권위주의 군부통치를 더 겪은 후에야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되기까지 앞으로 1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이럴 경우 아시아에서 민주한국의 리더십도 그만큼 더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도네시아 사태가 "서울의 봄"에 비견되는 것이라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IMF 관리체제하에 있을지라도 인도네시아를 정치경제적으로 무려 20년 가까이 앞선 나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나라의 국내사정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사태는 한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정국혼란 한국경제에 악영향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국정혼미는 5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투자 및 공공차관을 공여한 한국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가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하여 독자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또한 우리 국민도 대동단결하여 제2기 노사정합의를 기필코 이룩하여 위기극복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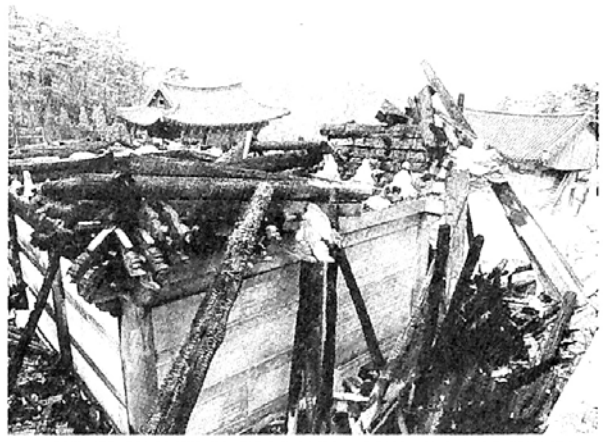
3 한국 정부가 우리 교민들의 보호에 신속하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지시켜주고 있다.

한국 정부가 우리 교민들의 보호에 신속하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주지시켜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은 미국 정부처럼 신속히 대처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늑장에 불안해 했었다. 한명의 생명도 소홀함이 없이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챙기는 선진국가들의 행동을 본받아 한국 정부도 차제에 국제적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교민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사찰보험 가입

불국사와 석굴암이 국내 사찰 건물로는 최대규모인 보험계약액 1백9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찰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보험가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미 주요 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찰은 보험료 부담, 보험사의 계약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찰의 보험가입 현황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이교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방화로 전소된 서울시내 한 사찰의 대웅전.

"성보보존의지 표현…가입마땅"

종열스님 〈화엄사 주지〉

우리 절은 올해 초 각황전(국보 제67호) 대웅전(보물 제299호) 나한전 명부전 원통전 등 주요 전각을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매년 2백만원을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화재가 났을 경우 최고 3억원의 보수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

화재 시 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려는 생각으로만 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복구에 도움을 받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노존하려는 의지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보조를 받아 폐쇄회로 카메라도 설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찰의 예산 가운데 일부는 각종 성보를 보존하는 경비에 투자해야 마땅하다.

물론 화재가 났을 경우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보수비를 받아 원상태에 가깝게 새로 지어놓으면 언젠가는 후손들이 문화재로 지정해 보전할 것이다.

근래 들어 여러 사찰이 화재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보험에 가입하게 된 동기이다. 보험가입 이후 사중의 문화재 보호의식도 매우 높아졌다. 매월 한차례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소임자스님은 물론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정부담 커 보장성상품 필요"

지광스님 〈익산 승림사 주지〉

지방 작은 전통사찰의 경우 건물 보존차원에서 화재보험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사찰의 건물이 대부분 목재로 지어진 것이어서 한번 화를 입으면 소실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화재보험료율이 높고, 또 어떤 사찰은 보험사의 규정에 위반된다 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된 경우도 있다. 보장의 경우도 새로짓는 건축실비만 받게돼 있어 문화재보존 가치는 예의로 두고 있는 것도 가입치 않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전국사찰이 이교도의 방화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차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본다. 소멸성보험 위주인 화재보험상품에 보장성보험이 늘어나야 되고 목조건물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풀어 주었으면 한다.

마직막으로 종단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찰상황과 맞게 보험회사와 적절히 협상하여 사찰전문 화재보험을 개발했으면 한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찰에는 종단이나 본사차원에서 일정정도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계종 교구본사 24개 사찰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사찰은 쌍계사, 범어사, 불국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봉선사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들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이 빈번한데도 보험가입은 의외로 적었으며, 가입했더라도 일부 주요 전각에 대한 가입이 대부분이었다. 또 문화재적 가치는 포함하지 않고 건물의 복구 비용만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있다.

사찰보험 가입현황

불국사등 10곳 가입
문화재 가치 산정 안돼
보험사 계약 기피

그러나 화계사 등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사찰은 화재 이후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해 요사채가 전소하는 피해를 입은 관촉사의 경우는 당시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아 순조로운 복구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태종 구인사는 10여년 전 주요 건물을 보험에 가입했으며, 정기적으로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아예 사중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커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계약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제주 관음사는 2년전 화재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사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목조건물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대흥사의 경우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측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문화재 보험가입

반가상 3백억 '최고'
보물급은 대여때만
도난·파손대비 가입



◇국보 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는 전시를 위한 대여·이동시를 제외하고는 보험에 들고 있지 않다. 문화재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보험액을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금전으로 따지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액의 보험가를 기록한 단일 문화재는 금동미륵보살반가상(국보 제78호)으로 3백억원이었다. 반가상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으로 6월 7일부터 8개월 동안 미국에 머문다. 화재 피해시 1백91억을 받도록 계약한 불국사와 석굴암은 사찰 건축물로는 최고액수이다.

사찰이나 사립박물관, 개인 소장품에 대한 보험은 거의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호암박물관과 연세대박물관처럼 박물관종합보험에 가입, 문화재의 도난과 파손에 대비하는 보험에 들기도 한다.

사찰보험 가입방법

사찰건축물 4급요율

국조건축은 보험 가입시 4급의 요율을 적용 받는다. 보험 가입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일시불로 지급되는 소멸성이고 또하나는 장기보장성이다.

예를들면 단청한 30평 목조 건축의 경우 평당 건축비는 8백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30평과 8백만원을 곱해 나오는 2억4천만원이 보험 계약금이 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은 2억4천만원의 0.394%(4급요율)인 94만5천6백원이 된다. 일시불로 연간 94만여원을 내면 화재로 가입건축물이 소실 되더라도 2억4천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소멸성이므로 화재를 당하지 않을 경우 환급받을 수 없다.

장기보장성 보험은 별도로 계약금을 추산하지 않고 보험사와 계약한 가입액에 따른 보험금을 계약 기간(3년 혹은 5년) 동안 납입하고 화재를 입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의 10%을 되돌려 받는 경우다. 4급 목조건축물에 대해 5년 기간으로 2억의 보험을 계약하면 5년간 매월 37만2천원의 보험금을 내게 된다. 만기가 됐을 경우 총 납입액은 2천2백32만원. 계약기간 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2억의 계약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화재 없이 만기가 되면 2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불상이나 탱화등도 4급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 계약에 관련된 요율의 적용이나 만기시 환급 비율등은 보험협회가 정한 기준에 준하므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사찰의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들이 유치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사 선택이 중요하다.

가용우〈해동화재보험 종로지점장〉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101 - 교리·입문편

여시아문의 신책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책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단순히 서구 지성의 불교 이해 차원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갈 현대인 모두에게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불교가 왜 '내일'의 '대안'일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 주는 보르헤스야말로 20세기에 21세기를 온전히 앞당겨 살아갔는지도 모르겠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된 지의 이것보다 없이 전하겠다'는 장신으로 시대의 및 이 될 석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856(영업부), 737-0931(편집부), 737-0857(팩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지,
김홍근 편역/ B6 241쪽
값 5500원/ 여시아문 펴냄

수록 내용

Ⅰ.보르헤스의 문학 세계와 불교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보르헤스와 불교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재미있게 읽는 보르헤스

Ⅱ. 불교 강의
전설상의 붓다
역사상의 붓다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불교의 우주관
윤회
불교 교리의 핵심
대승불교
라마불교
중국불교
탄트라 불교
선불교
불교윤리
불교란 무엇인가(강연요지)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서울 지점장사 02)651-3880 ·부산 보문사 051)523-5262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종단소식

조계종

해인사 여름 수련대회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27일부터 8월11일까지 보경당에서 여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일반부는 27일~7월1일, 7월 4~8일, 7월 11~15일, 7월 18~22일, 8월7~11일 5차례이며, 중·고등부는 7월25~28일, 어린이부는 7월29~31일까지. 0599)31-1003

태고종

전국신도회 조직 개편

총무원(총무원장 인곡)은 전국신도회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에 교구별 신도회 결성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 신도회 조직을 이달말까지 각 시도교구별로 구성하고 6월 초에 전국신도회장 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통일기원 수륙 방생법회

대구·경북교구종무원(종무원장 일우)은 지난 11일 안동시민공원에서 남북통일 및 국난극복 기원 수륙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일우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국가위상을 재정립하고 평화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교도가 앞장서서 범국민적 의식개혁을 이끌어내자"고 호소했다.

천태종

서울 구강사 기공식

구강사(주지 월제)는 지난 18일 서울 강동구 천호4동 일대의 250여평의 부지에 사찰 건립을 위한 낙성식을 봉행했다.

그 동안 일반주택에서 법회를 운영해 오던 구강사는 신도들이 사찰건립에 대한 원력을 세워 천호동 일대에 부지를 매입,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구강사는 관청의 허가가 나는대로 그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진각종

기로 진원식 봉행

정년을 맞은 스승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기로진원식이 지난 12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이날 기로진원식은 혜안정, 자비화, 각암, 일승행, 선심월, 대자심, 정광심, 우승, 청담월 스승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륜심인당 헌공 불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소재한 선륜심인당(주교 덕운) 헌공불사가 지난 19일 봉행됐다.



선륜심인당은 연건평 3백90여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유치원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

총지종

예비성직자 기본 교육

법장원(원장 안효강)은 지난 18~24일 1주일간 예비성직자를 대상으로 교학, 결인, 진언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예비성직자들은 법장원에서의 기본교육 후 최소 7개월간 각 사원 스승 아래에서 성직자 소양 및 교학교육을 받는다.

원융종

총무원장 법륜스님 대행

총무원은 지난 7일 중앙종의회를 열고 그 동안 사의를 표명해 온 총무원장 보인스님의 사표를 수리한데 이어 부총무원장 법륜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에 선출했다.

또 11명의 중앙종회의원을 보선하고 6월 25일 삽교천에서 개최할 국난극복기원법회 및 영산수륙대재 개최에 따른 세부계획을 논의했다.

미타종

성우스님 총무원장 취임

제5대 총무원장 취임식이 지난 2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봉행됐다. 총무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돼 오던 미타종은 지난 12일 종정의 재가를 얻어 성우스님을 총무원장에 추대했다.

성우스님은 1973년 벽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미타종 총무부장, 사무총장, 총무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만해기념관 문 열었다

남한산성에 교육관·세미나실 등 갖춰
자료 6백점 전시 '만해정신' 계승확산

만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이 문을 열었다.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회장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 20일 남한산성 수어장대 아래에 문을 연 만해기념관은 대지 5백20평, 연건평 1백20평 규모의 전통한옥 2층건물, 종합전시실(60평)을 비롯 기획전시실(20평), 교육관(40평), 세미나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 만해정신의 계승과 확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종합전시실에는 전관장이 30여년동안 수집한 만해스님 친필유묵, 〈조선불교유신론〉(1912년) 등 만해스님의 각종 저술의 초간본, 3·1운동 당시 옥중투쟁을 보여주는 신문자료, 희귀본인 〈님의 침묵〉초간본 및 1백여종의 이본, 만해스님 관련 연구서 등 6백여점의 관련 자료가 전시돼 만해스님의 종교·사회·문학활동을 살필 수 있다.

또 정원에는 만해기념관 표지석 및 민복진 前 홍익대교수가 조각한 만해스님 흉상, '나룻배와 행인' 시비 등을 세웠다. 기념관 관람을 통해 느낀 만해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추모의 장도 마련, 만해사상 선양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동국대 역경원장 월운스님, 경기광주·하남사암연합회장 지근스님, 명호근 만해사상실천선양회장, 박찬수 목아박물관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만해기념관 표지석 및 만해스님 흉상, 시비 제막식도 함께 거행됐다.

명호근 만해사상실천선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만해사상실천연구원 건립 등 주체적인 만해사상연구 토대를 마련, 이 시대의 만해사상을 재창출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만해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할 수 있는 만해전시관이 20일 남한산성에 문을 열었다.

인터뷰

만해사상硏 전보삼회장



"남한산성의 만해기념관은 만해스님을 연구하고 추모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자료를 모으고 그 정신의 확산을 위해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만해사상연구에 평생을 바쳐 온 전보삼 교수(신구대)가 만해기념관 건립을 발원한 것은 88년 독립기념관에서 만해스님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후원하면서부터. 당시 자신이 수집한 만해스님 관련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간 것을 확인한 전교수는 상설 전시관을 세워 만해사상을 널리 알리고 계승시켜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89년부터 만해기념관 부지 옆 주택을 빌려 임시로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건립허가에만 3년이 걸렸다. 자택과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 등을 팔아 비용을 마련했고, 평생 모은 자료 6백여점도 전시자료로 내놔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전보삼교수는 "만해사상을 선양함은 물론 행락지로 변해가는 남한산성의 민족정신을 다시 한번 집중 조명하는 민족문화의 자리로 가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화엄종 본산이며 15대 대사(大寺)중 하나인 나라(奈良)시 동대사(東大寺)의 계단원(戒壇院)에서 지난 20일 불 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불로 나라시대를 상징하는 사천왕상 등 국보급이 안치된 천수당이 전소됐다.

日 東大寺에 불

태고종 후원 천불영탑 세운다

인천 일광정사에 2만평규모 99년 완공

태고종 종단차원의 후원으로 대규모 영탑 조성 사찰이 건립된다.

태고종 일광정사(원장 정태진)는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등 산 121-3번지 일대 2만여평의 부지에 본존 및 지장천불 영탑을 조성한다.

3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탑조성에 들어가는 일광정사는 1차로 8월 초까지 대불과 육존불을 조성하고 대불 좌대 밑에 1천5백24기, 육존불 좌대 밑에 각각 1천기 씩의 유해를 안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후 99년 5월까지 일광정사 본당과 지장존 친불전을 건립한다. 또한 일본 국제복지사업협회(UNSSA)를 통해 무연고 및 연고 유해 2백기를 들여와 봉안한다.

이같은 일광정사의 불사계획과 함께 태고종은 종단 차원에서 회원을 모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계가 앞장서서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는 정태진 원장은 "영탑분양에 따른 수익금은 동방불교대학 건립 및 종단발전기금, 대한불교법사회 중앙법당 건립, 청소년회관건립, 군불교포교기금으로 25억을 보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사 코앞에 고층 아파트

선산 원각사 환경권 침해…9개단체 진정

전통사찰인 선산 원각사(주지 대혜) 인근에 총 5개동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다 그 중 12층 규모의 1개동은 사찰경계로 부터 5m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의 조망권을 비롯한 환경권을 크게 저해 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2백2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97년 12월 착공하여 99년 12월 준공예정인 공공임대주택 3백85세대(선산읍 노상리 48번지 일대)로 12층 2개동, 13층 2개동, 14층 1개동으로 건립되고 있다.

원각사 주지 대혜스님은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 시야가 가릴 뿐 아니라 법회때 외부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게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건립과 관련 원각사 구미불교사암연합회 직지사신도회 구미운불회 등 9개 불교단체는 1천5백21명의 연명으로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고층아파트의 건립을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지난 20일 구미시청과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 제출했다.

김천사암련 무료급식소
어려운 이웃에 점심제공

김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등 직지사부주지)는 28일 12시 舊 금릉군청 건물내에 무료급식소를 개원,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불교에 대한 친근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무료급식은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들이 돌아가며 담당할 계획이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실시한다.

분황사 상량문 또 발견
1616년 중건 시주자 기록

경주 분황사 보광전 상량문이 지난 3월에 이어 또 발견됐다.

보광전 보수공사 도중 중도리에서 발견한 상량문은 보존상태가 좋지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황사의 중건연대와 약사불 조성내력, 목수와 부목수, 시주자 등의 이름이 확인됐다.

그러나 앞서 밝혀진 1380년 분황사 중건설과 달리 만력44년(1616)에 완공된 것으로 적혀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태종 한중일 1400년 역사 재조명

btn 개산기념 특집 방영

한중일 삼국불교에서 거대한 산맥을 이뤘던 천태종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집중 조명해보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불교TV가 천태종 개산 1404주년을 맞아 22일, 29일, 6월5일 3일간 오전 11시10분~12시 방영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천태종의 역사와 인물, 천태종과 우리문화와의 관계 등을 현장추적과 역사재현을 통한 드라마형식의 역사추리 기법으로 구성됐다.

22일 방영되는 제1편 〈천태산에 불던 바람〉에서는 지난해 중국 천태산에서 있었던 국청사 조사당 준공 사건을 계기로 동양삼국에서 그 교세를 떨치고 있는 천태종의 역사와 종지, 중興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29일 방송되는 제2편 〈개성에 핀 연꽃〉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개산된 한국 천태종의 역사를 각 시대별로 알아보고 우리 역사속에 천태종이 차지했던 위치를 확인해 현재 한국불교속에 천태종이 어떻게 허석돼야 하는지를 전달하고 있다.

6월5일 선보이는 제3편 〈소백에 뜬 달〉에서는 해방이후 소백산에서 시작한 천태종의 현대사를 상월원각 대조사의 일대기, 재건된 천태종의 현황과 현대화된 포교방식, 엄격한 수련과정을 알아본다.

산신백일기도 안내

여래사 중흥·소원성취 만등불사



산신기도도량 여 래 사 주지 정 수 합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1319-2 (방곡도예촌)
전화 :(0444) 22-0315, 22-2449

귀의 삼보하옵시고, 옛부터 우리나라는 나라에 환란이나 재변이 있을 때마다 명산의 대사찰에서 국토위호 불리신이며 산신국사 호정상을 모셔 놓고 산왕대신 기도를 올리는 산신문화가 전해져 내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와 호법신장 산신의 옹호로 민족의 재난과 수난을 타파하고자 산신 100일 기도를 본 사찰에서 입재합니다. 평생 한번 산신기도의 영험이 있다는 산왕대신 100일 기도에 무루 많은 동참 있으시어 원력 성취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입 재 :1998(불기2542)년 5월 28일 (음 5월 초3일) 오전 11시
회 향 :1998(불기2542)년 9월 4일 (음 7월 14일) 오전 11시
동참금 : 3만원 • 장 소 : 여래사 삼성각
문의처 : (0444)22-0315, 22-2449
온라인 : 농협 221118-56-029481 박정수

기도는 수시접수합니다

만등불사 동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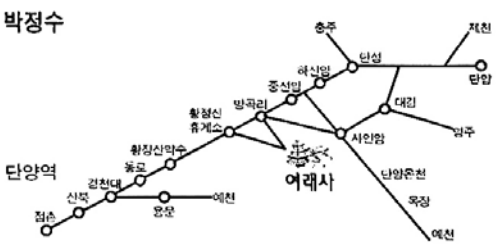
나의 가족, 이웃, 친지의 사랑의 등, 지혜의 등,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을 밝힙시다.

98년 9월 4일 산신기도 회향하는 날 밝혀질 만등 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꺼지지 않았던 난타의 등불처럼 무량한 복덕이 회향될 것입니다.

일만등불사 : 1998(불기2542)년 9월 4일 (음 7월 14일) 오후 7시
동참금 : 1인 1등 5,000원
온라인 : 농협 221118-56-029481 박정수

여래사 가는길

교통편 : 청량리역→단양역→방곡리
기도정진하실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차량을 단양역에 대기합니다.



경불련, 시민단체 첫 실직자 구호센터 열어

'아침을 여는 집'

무료급식 · 구직정보등 제공
"구호품 · 자원봉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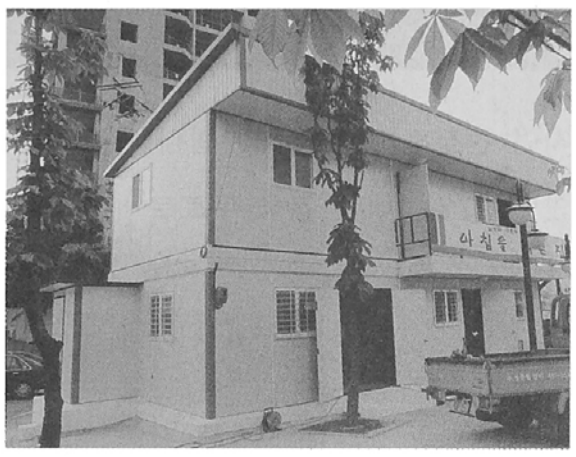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이 시민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직자 구호시설을 설치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중구청의 지원으로 중구 의주로2가 서소문공원에 실직 노숙자를 위한 구호및 자활 모임터인 '아침을 여는 집'을 건립, 25일 오전에 개소식을 가졌다.

삼환기업(회장 최용권)이 5천여만원을 들여 건립, 기부한 지상 2층 36평의 건물에 마련된 '아침을 여는 집'은 △무료급식 및 양·한방 진료, 이·미용봉사 등 '긴급구호' △실직자 개별상담 및 실태조사 △법률·건강·가정문제상담 등 '전문상담'(02-3147-2525,6) △소규모 창업지원과 구직 정보제공 △실직자를 위한 각종 정책 개발 등의 종합적인 실업대책 사업을 펼치게 된다.

'아침을 여는 집'은 서소문공원 일대가 서울역 주변인데다 이미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천막을 치며 노숙할 정도로 알려진 곳이어서 찾는 사람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침을 여는 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일 2백명분(1인당 8백80원)의 급식재료비와 매달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매일 두 배나 많은 5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점심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기사 4면>

〈김재경 기자〉



◇시민단체로는 처음으로 25일 문을 연 실직자 구호센터 '아침을 여는 집'.

"공공기관 종교편향 행정 극심"

종교편향대책위 분석

종교편향대책위(공동위원장 송강·원혜스님)에 접수된 종교편향 사례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편향대책위는 21일 발족 이후 한달 동안 모두 40여건의 종교편향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4건을 해결했으며 7건은 조사중, 공공기관 편향사례 11건은 해당부처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공공기관 편향사례가 많음에 따라 올해 중점적으로 교육기관과 군부대의 종교편향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금융연수원 시험과 관련, 5월3일 봉축행사와 맞물린 것에 대해 금융연수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불교행사 참여 연수생의 경우 불참사유를 인정해 추가시험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서울구치소 경비대장의 교회 기도회 간증과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종교편향 사례접수 스티커 1만장을 추가 제작, 사찰과 군법당 학교에 배포키로 했다. (02)734-0108

6월 20·21일 김제 금산사서 전국불청 '모인다'

'청년불자 작은 깨침, 사회 속의 큰 울림으로'란 주제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의 제17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6월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다. 청년회 각 지구, 지부, 지회회원 1천여명이 동참하게 될 이번 불청대회는 부처님의 자타불이, 동체대비심에 입각한 인간성 회복과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해 이타행을 실천하는 행사이다. 대회의 주요일정은 20일 입제식을 시작으로 전야제 및 문화공연과 21일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의 강연 및 캠페인 등이 마련됐다.

뉴스 & 뉴스

장위1동 어린이집 위탁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성북구청으로부터 장위 1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로 선정돼, 15일 위탁운영을 체결했다.

이번에 '위탁받은 장위 1동 어린이집은 성북구 장위동 218-2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93평 연건평 85평 규모로 5세 이하의 유아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시민의식과 종교' 세미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종교'라는 주제로 한 종교지도자 세미나가 6월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근목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혜인교수(서강대 사회학과)가 '바람직한 종교교육의 현황',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바른 심성과 종교'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승가대 교육현황 공청회

중앙승가대학교의 위상 재정립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중앙승가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주최로 6월3일 오 10시~4시까지 중앙승가대 정진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중앙승가대학교의 입장에서 종단의 기본교육체계 재정립이 갖는 의의와, 중앙승가대학교의 교육내용의 문제, 교육기구의 재정비와 교육자원관리의 문제,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 문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반도군축 200인 선언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를 비롯한 한국기도교사회문제연구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평화통일연더회의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군축을 촉구하는 200인 선언'이 2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발표됐다.

사회 각계 인사 2백여명은 선언문을 통해 평화군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남북한 상호군축을 남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청년정토회 등반대회

청년정토회(회장 박남규)는 30~31일까지 양일간 소백산에서 '98 전국청년불자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등반은 30일 울산초등분교에 집결해 등반전야제를 갖고, 31일 등반을 시작, 법륜스님의 통일법문·영가천도제·대동놀이·통일기원 연날리기 등으로 진행된다.

日 정행사 신도 30명 내한

일본 정행사(주지 다케아라) 신도 30여명은 15일 내한 성남 망월사, 양재동 등을 방문하고 17일 귀국했다. 백제 아악의 정통성을 이어온 정행사는 17일 자매결연 사찰인 구룡사를 방문 정토진종의 고유의식으로 법회를 봉행한뒤 합창단과 함께 찬불가를 부르며 우의를 다졌다.

대구 관음사·영남불교대 '내일을 준비…' 등

실직자돕기 '구체적 실천'

대구 관음사 부설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이 실직자를 위한 자비 손길을 펼치고 있다.

실직자 가족을 위한 초중고 장학생 선발·결식아동 지원·불교대학 수업료 면제(가을학기)·무료이발·무료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육성회비 전액이 지급되며, 장학생 신청접수는 30일 까지다. 무료이발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오전 10시~4시에, 무료급식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실시한다. (053)474-8228

맑고향기롭게가 운영중인 실직자 쉼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6월 1일 제기동·홍파초등학교 앞 보문선원에서 실직자 무료급식소를 개설한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구직정보 제공 등 쉼터를 운영하고, 오후 12시~1시30분에는 점심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02)741-4696

16회 교정대상 자비상에 정각스님 특별상에 보선스님

법무부와 한국방송공사 서울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제16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목포교도소 종교위원 정각스님(보현정사 주지)이 본상인 자비상을, 김천소년교도소 종교위원 보선스님(정심사 주지)이 특별상인 자비상에 각각 받았다.

'위안부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순회 산중음악회

나눔의집(원장 혜진) 신문로포럼(이사장 유관언) 일본군위안부기념관개관준비위(위원장 월주)는 16일 춘천 봉덕사(주지 각림)에서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한 '김영동(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의 산중음악회'를 개최했다.

나눔의집 등 주최측은 앞으로 다섯차례 더 순회 산중음악회를 열어 기념관 건립 불사를 앞당기기로 했다. △6월20일 부산 범어사 △7월4일 대구 동화사 △7월25일 대전 동학사 △7월중 낙산사 △8월1일 능인선원 등이 산중음악회를 주관해서 열 예정이다.

지난해 3월1일 기공식을 가진 '일본군위안부 기념관'은 IMF사태로 인한 경제사정으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0347)768-0064

한사람의 생명나눔 6명이 새삶 찾아

15일 새벽 뇌사자 정영호씨(41)가 가족들의 결정으로 생명나눔실천회에 장기를 기증, 6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정영호씨는 지난 4월30일 자택에서 아침에 일어난 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판명을 받게 됐다.

장기를 이식받은 6명의 환자들은 기증자의 심장(40세, 남) 간(59세, 여) 신장 둘(40대, 남) 각막(29세, 남) 각막(57세, 남)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귀농불자 농민조직 결성하자"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국장 제기

불교귀농운동을 계기로 '깨달음의 사회화' 소속 '농촌위원회' 혹은 자발적인 불교농민단체인 '농민과 농업을 생각(걱정)하는 불교모임'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조계종 농촌살리기위원회, 실상사, 전국귀농운동본부, 우리는선우, 불교환경교육원이 22일 공동주최한 '귀농운동과 불교의 역할' 주제의 워크숍에서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이 제기한 것.

유씨는 "불교귀농학교의 시작은 불교내에서 농촌·농민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운동"이라고 전제, "앞으로 귀농희망자를 조직화하고 그들간의 네트워킹을 만들도록 조정협력한 후 불교귀농자들의 농민조직을 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산하에 '생활협동조합운동본부'를 설립, 도시내에 있는 사찰과 신도를 가입시켜 유기농 직거래와 도시공동체 운동을 전개시키고 농업생산자들의 조직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민운동은 80년대발부터 생명운동으로 전환,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산공동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불교농민운동은 타종교 농민단체와는 달리 농민운동의 조직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와관련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는 귀농학교 졸업생과 기존 농민운동단체의 불자, 사찰농장 운영자들이 주축이 되는 불교농민운동단체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박에도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이 '지금 왜 귀농인가-흙에 뿌리한 자립적인 삶을 위하여', 불교귀농학교장 도법스님이 '한국불교의 시대적 역할과 귀농운동'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목탁소리

'중앙신도회의 황소걸음'

정 성 운 〈취재1부 차장〉

20일 회장직무대행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릴 예정이었던 중앙신도회 운영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참석자는 41명의 운영위원중 단 5명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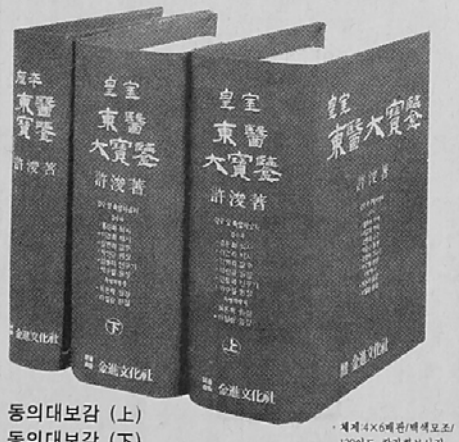
중앙신도회는 이날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행체제 이후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중앙신도회는 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정상체제로 돌아가 명실상부한 신도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날도 정상체제 복귀 방안과 6월 5일 열기로 한 신행단체 간담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등 주요한 현안을 안건으로 논의키로 했었다.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살림살이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도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사안이다.

회의 시간이 됐는데도 운영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자 '이왕 모였으니 얘기나 하자'는 식의 간담회로 전환됐다. 그런데 뜻밖에 백영기부회장이 8일 열린 운영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에서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잘못이니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곤회장이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는 회칙 규정이 있으며, 송회장이 나를 직무대행으로 지명했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받았다. 결론은 6월 중순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한곤 회장직무대행에 대한 추인을 받자고 자어졌다.

이를 지켜본 기자들은 의아했다. 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정상체제로 돌아가 명실상부한 신도조직으로 나아가야 할 판에 소모적인 논쟁이니냐. 다음 운영위원회도 정족수가 미달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걱정스런 물음이 나왔다.

'인류사회와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발전시키고 대승불교운동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부처님의 정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작년에 창립하며 대내외에 천명한 중앙신도회의 목적이다. 굳이 목적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중앙신도회가 창립 때의 초발심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3권 가정종합대학3권



IMF 긴급자금조달 특별할인판매

3

2

5만여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사회생활의 대총람



체제:신국판/백색모조/총6,000여쪽/각권 양장 케이스
박중화 문학전집 전15권 정 가:₩120,000

동의대보감 (上)
동의대보감 (下)
동의대보감 원본
정 가 전3권:
₩650,000원

1

· 체제:4×6배판/백색모조/120아트 칼라화보사진 3,000컷/총3,000여쪽/각권 레자가죽케이스/총무게12.5kg 영구보존



월탄 박종화 선생님의 대표작
◉ 지고가는 저구름이 전 5권
◉ 아름다운 이 조국을 전 5권
◉ 청산의 만즘 흙들 전 5권

◉ 동의보감의 특징
◆ 특수처방 비법의 한방용어를 알기 쉽게 수록하였다.
◆ 돈, 량을 g으로 표시하여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중세, 처방 먹는 용법이 쉽게 수록되어 있다.
◆ 기존 한약값의 1/5만 가지고 직접 한약을 지어 복용할 수 있다
◆ 기존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동의보감 특수처방 비법
◆ 학생, 수험생들의 머리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비법.
◆ 70대가 30대의 정력을 유지하는 비법.
◆ 당뇨, 고혈압, 신경통, 류마치스를 시원하게 낫는 비법.
◆ 산후조리에서 고생하시는 분 감쪽같이 낫게하는 비법.
◆ 특수 한방요리 및 불로, 신선차 만드는 비법.
◆ 아들, 딸 구별하여 낳는 특수 비법.
◆ 특수 침술·지압·미용 수록

◉ 가정종합대학(上中下)의 주요내용
효, 예절, 얼, 가정의례, 의학, 지혜, 생활경제, 취미, 교양, 미용, 관광, 나의뿌리, 장수하는 불로초(무공해 치료식품), 한방요리, 현대의학, 자녀교육, 청소년지도, 동양철학, 관상, 수상, 돌상, 생일, 수연, 회갑, 상례, 제례, 지방, 축문, 풍수지리, 명당자리, 입춘대길, 충효, 효부, 효자, 효성, 부모자식예절, 술, 차, 의식주예절, 삼강오륜, 직위, 촌수, 명문, 종가집, 축가, 축사, 연말연시 인사, 화술, 최면술

경영실무·소기업~대기업

· 체제:백색모조/4·6배판/총3,900여쪽/내지 칼라사진 및 흑백사진/레자가죽 칼라카바.
· 표지고급케이스 영구보존 기로 225×세로315×두께95
· 총무게 : 15Kg · 정가 : ₩580,000

체험감수 문화박사 이경원 외 회사회장 봉기업 수원장 의학박사 김인호 외 원장 한의사 원장 규장각 이익원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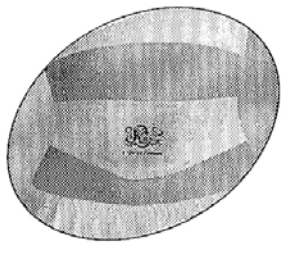
특별할인판매
· 구입방법 ·
· 정 가 : ~~350,000~~
· 특별현금가 : 148,000
· 할부가 : 49,500×4회
(02)253-3626~8
한국전통예절중앙회

최임감수 연호상 박사 이현남 박사 정주영 박사 이일형 박사 김선명 박사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부다피아 쇼핑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주문방법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 송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A1-1



완제품



보관형태

팔각오색연등

국내최초 완전조립식 팔각연등. 비. 눈에도 변색이 없으며 기존 연등과는 달리 경전문구(화엄경약찬게)를 넣어 디자인 했습니다. 사용후 보관이 편리하며 재활용 이용 가능 합니다. 1000개 이상 주문시 원하시는 발원문 및 경전을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재질 : pp
의장등록출원 - 98-6490
실용신안출원 - 98-6425

A6-1



A6-2

A6-3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A2-1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6.2 (세로)㎝
547쪽

A7-1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하므로 크기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맛이 일품 입니다. 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단 외줄 인쇄이며 :3자 이내)
크기 :9(세로) 5~7(지름)㎝

A3-1



불교시계

A3-2



원형탁상형 알람시계 (벽걸이겸용)

색상 : 군청, 노랑, 빨강
크기 : 160(가로) 160(세로) 45(두께)㎜
특성 : 심플한 모양의 다양한 칼라와 탑 모양의 반야심경 한글 및 한자 내부디자인

사각 그림 벽시계

색상 : 청색, 흰색
크기 : 200(가로) 320(세로) 45(두께)㎜
특성 : 하단부분 화엄일승법계도 및 법성게 경전문구 디자인

- 이외의 불교시계
  유리탁상 알람시계 - 맑고 깨끗한 곡면 유리 탁상시계
  금강경 사구게 한글 한자 문구 디자인
  사각림 벽걸이 시계 - 화엄경 약찬게 , 보왕삼매론 경전문구 디자인
  원목시계 - '초발심시 변정각' 문구 디자인
  50개 이상 주문 가능 100개 이상 주문시 원하시는 경전 및 문구를 넣어 드립니다

A9-2



A9-1



단주 열쇠고리 ·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A4-1 A4-2 A4-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재질 : 100% 청동
종류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 40.5 ㎝
가격 : 350,000원 (코팅형, 골동품형)
580,000원 (개금)

A5-1



불교 티셔츠

천진한 동자의 맑은 세상 비쌀기 , 연꽃나팔 등 본지에서 제작한 동자 캐릭터 및 연꽃 문양으로 디자인한 면 티셔츠. 여름 수련대회및 각종 행사용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며 사찰 이름 및 단체명 인쇄가 가능합니다.

A10-1



A10-2



다포및 기도포

원하시는 문양및 문구를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